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4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9월 2일(음력 7월 14일) 수요일(주간)

사람

탤런트 김민종

'卍'의 스타 국제포교사!



김민종. <현대불교자료사진>

마곡사서 일본팬 만나
시간 날 때마다 사찰찾아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꽃미남 연예인 김민종(38). 남성듀오 프로젝트 그룹 '더 블루'의 멤버였던 시절부터 '卍(만)'자 목걸이와 염주를 하고 당당하게 브라운관을 누볐던 그가 산사를 찾는다.

10월 24~25일 공주 마곡사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일대에서 열리는 '김민종과 보내는 33관음성지 템플스테이 인 마곡사' 행사에는 한류스타 김민종을 만나러 온 일본 팬들로 북적일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한 일본 팬들은 마곡사 견학, 108염주 만들기, 불화 그리기, 사찰요리 맛보기, 참선 및 명상, 토크쇼 및 미니 라이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방송계와 영화계 등에서는 김민종이 '불자'인 것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그의 불심은 깊다. 김민종은 20년 가까이 지속되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서울 능인선원, 설악산 백담사, 봉정암 등을 찾았다. 그의 불심은 불교계에서도 일찍이 인정했다. 1999년 '신도증 갖기 운동'에 무료 모델로 출연, 제10회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받기도 했다. 그 밖에도 불자가수회 회원으로도 활동, 불교 음악 앨범 '인연'에도 동참했다. 또 지난해에는 로터스 월드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김민종은 연예활동 만큼이나 오랜 세월동안 변함없는 불심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 겸 가수로 20년간 꾸준한 활동을 하며 사랑을 받고 있는 김민종은 2008년 일본에서 공식 팬클럽 'SKY LOVE JAPAN'이 창단되는 등 한류스타로도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 등에서 그의 불심 만큼이나 깊은 연기와 가수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하고 있다.

마곡사에서 일본팬들과 한일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한류스타 김민종씨의 모습에서 1000년전 불법을 전하기 위해 도일(渡日)의 수고로움을 마다않았던 스님들의 모습을 본다. 이상언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파행 불가피

중앙선관위 "후보 3명 자격 인정 못해"… 3후보 "공고 후 규칙제정은 불법" 강력 대응

9월 7일 예정된 제24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가 후보자 자격 시비로 논란에 휩싸여 선거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 '복수추천'이 논란 핵심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보경)는 8월 27일 총무원장선거 후보접수자 4인에 대한 심사결과 인공(前중앙종회 의장) 스님을 제외한 지허(금둔사 주지)·대은(前종회 부의장)·도산(보우승가회 회장) 스님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후보등록시 중앙종회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입후보자들이 받은 추천이 중복돼 실제 추천인원에 미달한다는 것이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8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선거규칙을 새로 제정했으며, 그 규칙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선거법은 중복추천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공고한 8월 17일까지 없던 규칙을 선거가 개시된 이후 제정한 것이다. 선거규칙 제정 과정에서 예고나 공고가 없었고, 후보등록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안내나 고지가 없어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대은·지허·도산 스님 "선거중립 위반 책임져야"

선관위에 의해 단일후보로 확정된 인공 스님을 제외한 세 후보자 캠프에서는 "선관위 결정은 무효"라며 즉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은·도산 스님과 지허 스님 대리인은 8월 27일 저녁 종로구 낙원동 해동불교대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종헌종법에 의거한 법규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선거세칙 결정 효력정지 및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사회법에 호소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스님은 공동성명서에서 "종헌종법에는 '종회의원 10인의 추천을 받는다'는 조항 외에 어떠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복수추천 무효'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세 스님은 또 "8월 17일 선거공고에 이은 21일 선거규칙 제정, 주말 이틀을 지나 24일 후보자 등록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선거규칙 제정의 일정은 종헌종법을 무시해 우리 세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횡포"라고 성토했다.

세 스님은 "입후보자인 중앙종회 의장이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아놓고도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이 출마한 선거관리를 담당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접 임명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종단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원장 보경 스님과 인공 스님 선거캠프에 참여한 총무원장 직무대행 월운 스님과 종책위원장 자월 스님에 대해 선거법상의 '종무원 선거개입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인공 스님 "선거일정 예정대로"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단독 후보'로 인정받은 인공 스님은 선거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공 스님은 28일 오전 서울 봉원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공약을 발표한 후 선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월운 스님과 종책위원장 자월 스님,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인공 스님은 중앙선관위의 후보자격 결정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적법한 절차로 선거규칙을 만들어 시행한 만큼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자월 스님은 "우리는 8월 17일 선거공고 후 19~20일 종회의원들의 추천을 받았다. 종회의원 28명의 추천을 미리 받아서 의도적으로 다른 후보의 등록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상대 후보들도 '1인 1추천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정당한 추천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선거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 월운 스님은 "종헌종법을 제정할 당시 종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후보 검증과 규칙 제정의 권한을 가진 선관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인공 스님은 "9월 7일 열리는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들이 무투표 당선 여부를 확정한다"며 "선거에 임해 관용을 베풀 상황이 아니기에 7일 종회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선거관리로 종도 여망 부응

중앙선관위에 의해 단독후보로 인정받은 인공 스님과 후보자격이 박탈된 세 스님간의 의견 절충이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사회법 제소와 그로 인한 선거일정 중단, 종단 분규의 후유증까지 우려된다. 세 후보자 선거캠프에서는 종정 혜초 스님이 원만한 선거일정 마무리를 위해 '유시(諭示)'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다.

김성우·노덕현 기자



8·27범불교도대회 1주년을 맞은 8월 27일 범불교도대회의 핵심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관 스님이 종교편향 종식에 더욱 앞장서자는 당부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사진=박재완 기자

법구경

부당한 방법으로
자식과 재물과 권력을,
자신의 성공을 탐내지 말라.

금주의 Hot



혜정 스님
14선지식



명진 스님
08불자들



이경제
20새연재

태고종단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거듭 태어나야만 합니다.

- 제24대 총무원장 선거의 잘못된 절차와 방법에 즈음하여 -

우리 속담에 "눈감고 아웅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얕은 수단으로 남을 속이려고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종교인을 넘어 인천(人天)의 스승임을 자부하는 종단의 수행자(僧侶)가 이러한 '얕은 꾀'를 써서 사사로운 이익을 획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종단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아시다시피 태고종단에서는 제98회 임시중앙종회(2009.8.11)에서 총무원장 운산스님의 사퇴 발표와 그에 따른 총무원장 보궐선거가 오는 9월 7일자로 결의되고, 지난 8월 24일부터 3일간 제24대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태고종단의 모든 불제자와 종도들은 이번 24대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높여 최근 우리 종단에 불어 닥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자 바라고 자못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보경 이하 선관위)가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 이번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격 심사에서 후보 복수추천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등록후보 4명 중 인공스님 1인에게만 후보자격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본종의 종헌종법에 명기된 '총무원장 선거법'에는 "중복 추천을 제한 한다"고 하는 아무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 선거를 공고한 8월 17일까지도 없었던 선거운영 규칙을 선관위가 갑자기 8월 21일 회의에서 새로이 선거규칙을 만들어 이번 선거 후보들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밝힌 것(불교닷컴 2009.8.27일 기사)은 명명백백한 선관위의 크나큰 잘못입니다.

또한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중앙종회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본종 선거법에서는 분명히 '후보자 복수 추천'이라는 법령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제24대 총무원장 후보등록자(대은스님, 지허스님, 도산스님)에게 일방적으로 "입후보자들이 받은 추천이 중복되어 실제 추천 인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힌 것(불교닷컴 2009.8.27일 기사)은 본종의 종헌종법을 무시한 해종 행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태고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잘 이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은 태고종조님의 가르침을 봉대하고, 태고종단의 법맥과 전통 그리고 문화를 계승해온 태고종도들의 수행의지와 종헌종법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단의 종지종풍과 종헌종법을 무시한 채 개인적으로 입신양명만을 꾀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태고종단을 중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가 이러한 제도와 법령이 필요하였다면, 먼저 태고종도들에게 충분히 고지(告知)하고 공개 절차와 방법으로 이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각 후보들에게조차 공지(公知)하는 노력도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선관위가 8월 21일 스스로 정한 선거 세칙을 종단기관의 의결구조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단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은 물론, 종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조차 공지를 하지 않는 등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24대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에 입후보한 하기(下記)의 후보들은 이번에 선관위가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작태를 접하면서, 공명정대한 선거업무를 주관해야 할 선관위가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특정후보를 총무원장으로 만들려고만 하는 아주 얕은 잔꾀를 부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선관위와 일부인사들이 이번 총무원장 선거 국면에서 자행하는 선거 세칙의 왜곡과 꼼수가 판치는 총무원장 선거의 결과를 논외(論外)로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와 행동, 종단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우리 종도들에게 더 큰 실망과 아픔을 주지 않을까? 왈칵 눈물을 쏟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불교 전통종단에서 수십 년 동안 수행과 포교, 그리고 복지문화 등을 위해 봉직한 후보자들의 잘못일까요?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등록 후보자의 부덕함일까요? 종단이 위란(危亂)에 처하면 분연히 일어서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올바른 종도로서 불제자로서의 자세가 아닌지요.

저희 후보자들은 충정(忠情)어린 마음으로 종단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를 서원했습니다. 위와 같은 자세로 종단의 중흥을 이루고자 발원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정법(正法)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부터 실천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원하건대, 종헌종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례도 없이 밀실 결의로만 이번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고자 혈안이 된 선관위는 그 결정사항을 당장 철회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방해하고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종도와 몇몇 인사들에게는 스스로 발로참회하시기를 충언 드립니다.

끝으로 태고종단의 전 종도께서는 이번 선거가 종단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종단의 전통을 잇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3(2009)년 8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자
정 대 은
정 지 허
이 도 산



죽비와 목탁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투병 진미한씨는 지금?

본지 738호(7월 1일자)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투병중인 미얀마인 진미한(49)씨 기사가 게재됐었다. 진씨가 한국인 아내 강미금(42)씨와 남방불교를 체험하고자 미얀마를 찾는 한국 수행자들을 도우며 생활해 오다 잠시 한국에 들러 건강검진을 받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없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진미한 · 강미금 부부와 직접 통화해 보도 뒷 소식을 살폈다.

"많이 좋아졌어요.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진씨는 예전 인터뷰 때 보다 더 활기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진미한씨는 현재 빠른 속도로 쾌유 중이다. 여러 불자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병세가 호전돼 무균실 생활을 마치고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미얀마에 있는 동생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동생과 진씨의 골수가 일치해 9월 중순경에 이식수술 일정도 잡혔다. 또 지인들의 도움으로 뒤늦은 혼인신고를 통해 의료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반액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액인 치료비는 불자들이 힘을 보탰다. 강미금씨는 "미한씨 소식이 나간 뒤로 수십 통의 격려전화를 받았다. 먼 길을 마다않고 지방에서까지 직접 방문하는 분들까지 있었다"며 "이번 일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확인했다. 언젠가 좋은 일로 보답하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미한씨는 그래도 교계에서는 다행스러운 경우다. 불자들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고통이 우리 전부의 문제라는 점이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말은 진언 같이 입속을 맴돌 구절이지만 많은 선지식들은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안다. 그냥 도울 수 없다면 제도화 시키자. 조계종이 진행하는 자비나눔운동이 좋은 예다. 아름다운동행은 자비의 등달기, 연꽃 배지달기 등의 나눔 행사상품판매를 통해 직접 지갑을 열어 기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때 간접기부 운동을 조성했다. 아니면 적십자 등이 크리스마스씰을 통해 결핵퇴치에 앞장섰듯이 교계에서도 씰 같은 것을 발행해보자. 물론 편지가 아닌 핸드폰 등 휴대기기에 적용시킬 실용적인 대안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진미한씨의 빠른 쾌유를 염원하며 교계 곳곳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이웃돕기의 열풍이 불기를 기대한다.

종교편향은 아직도 진행중

8 · 27범불교도대회 1주년 세미나… 종교편향 막는 방파제 역할 '톡톡'

정부의 종교편향과 사회 곳곳의 종교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2008년 대한민국 전역을 울린 불자들의 함성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8 · 27범불교도대회' 1주년을 맞은 8월 27일, 범불교대책위가 개최한 기념세미나에서는 출가와 재가, 종교를 떠나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살을 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반시민에게 불교계 집단행동이 오히려 갈등 유발로 비춰지는 것 고려해야 한다."(서화동 한국경제신문 종교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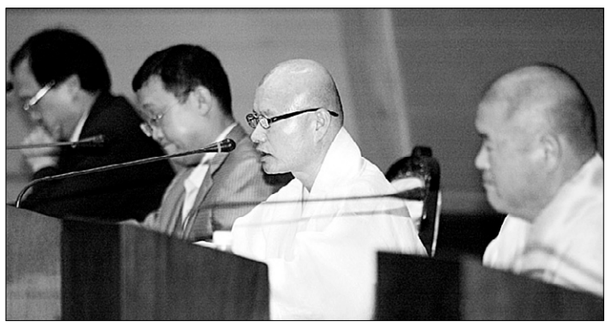
"스님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간호사보다 쳐진 17위로 조사됐듯, 불교 내부요인이 적지 않았다."(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타종교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 쉬운 불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불교계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장)

"현재 개신교 영향력은 사상누각이 아니라 역사적 이슈에 대응한 노력의 산물로 한국불교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

"불교교리의 올바른 이론 작업도 병행돼 교리적 뒷받침을 통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박경준 동국대 교수)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처럼 많은 질타와 대책이 쏟아진 것은 종교편향 문제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 범불교도대회 이후 와해위기를 겪었던 범불교대책위 등 불교계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을 뺀 공무원법 개정, 실효성 없는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 징계 권고 등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타종교인의 배타적 행위와 함께 그 근본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오른쪽부터 현각 스님, 진화 스님, 서화동 기자, 홍사성 사회자. 사진=박재완 기자

7월 28일 신임 대책위원장으로 선출돼 조직재정비 등을 밝힌 승원 스님은 이날 1부 행사에서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불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그동안 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스님은 이어 "전문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 '종교차별 바로알기' 책자 발간, 지역대책위원회 조직, 종교평화모니터요원 활동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며 향후 방침을 밝혔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스님은 "총무원장 재임 4년 동안 가장 신경쓴 큰 일이 범불교도대회였다. 범불교도대회는 종교편향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차별과 편향을 없애기 위한 불자들의 행동은 불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법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을 피하지 않는 위법망구 정신을 더욱 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8 · 27범불교대회에 공헌한 관계자들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전 상임대책위원장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에게 조계종 종정상이, 윤남진(참여불교재가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세용(조계사 총무과장) 정우식(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권오국(중앙신도회 운영팀장) 이상효(실천승가회 사무국장)에게 조계종 총무원장상이 수여됐다.

아울러 조용석씨 등 20여 대불련 학생들도 범불교대책위로부터 종교평화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받았다.

이어 2부 행사로 진행된 기념세미나에서는 차분한 평가와 함께 향후 대안이 모색됐다.

이날 주제토론에서 첫 발제를 맡은 진화 스님은 "MB정부에 들어서 공직자 종교편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범불교도대회를 촉발시켰다"며 "불교계는 개개의 대응을 넘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종교인권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스님은 "MB정권의 종교편향문제는 유감스럽게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취임초기 '고소영' 내각으로 공직자 종교편향의 물꼬를 튼 그 분은 최근 故김대중 전 대통령 병문안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를 기도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제2발제를 통해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행동해야 사랑받는 불교가 될 것"이라며 "종교편향문제에 당당하고 지속적인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3발제에서 조성택 교수는 "선적인 깨달음을 세간윤리를 초월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데서 한국불교의 '소극성' 나왔다"고 주장하며 "사회부조리를 따끔히 비판하고 재발치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불자의 의무로서 보다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각 발제에는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 서화동 한국경제 종교전문기자,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장, 박경준 동국대 교수 등이 논평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승려법계품수식

천태종 가사수여식 함께

천태종은 8월 27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비구 · 비구니 승급자격을 증명하는 '제7회 승려법계와 가사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번 승려품수식에서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받은 스님은 제7회 승려법계고시에 합격한 비구 60명, 비구니 113명 등 총 173명이다. 이 외에 지난 가사수여식에서 가사를 받지 못한 82명의 비구니스님들에게도 가사가 수여됐다.

한편, 이에 앞선 26일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에서 제97회 천태불자 기축년 하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이날 결제에 들어간 1100여 불자들을 비롯한 전국 천태종 사찰 신도들은 한 달동안 각 사찰에서 관음정근 등 수행정진에 들어갔다. 해제식은 9월 25일 오후 10시 구인사 설법보전 5층 법당에서 봉행된다.

노덕현 기자

성보보존위원 위촉

조계종 전문가 66명

성보문화재 보존 · 관리에 앞장서 온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8월 2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성보보존위원회 위촉식에서 신임 성보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정책 분과(김동현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등 11명) △동산 분과(김정희 원광대 교수 등 21명) △고고 · 건축 분과(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등 7명) △박물관 · 보존 분과(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 등 6명) △무형 분과(오출세 동국대 교수 등 9명) △문화예술 분과(조계종 영산어장 동주 스님 등 12명)별 전문가 66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지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성보문화재의 보존과 창달을 위해 각계 전문분야 위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애정어린 비판과 관심 깊은 조언으로 불교문화 콘텐츠의 보존 · 활용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된 성보보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이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과제는?

9월 14~15일 제2회 대중결사 워크숍 개최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가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중결사는 9월 14~15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연수원에서 '제2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가 지난 6~7월 사부대중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무원장 자질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사부대중이 생각하는 총무원장의 자격과 자질, 차기 과제 등이 포함됐다.

이날 설문분석발표에 이어 안직수 한국불교기자협회장이 '기자가 바라본 종단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제와 '대중결사 사업의 구체화와 회원 결속 방안 모색' 좌담회도 열릴 계획이다. (02)732-1209 노덕현 기자



종단협, 해외파견 국제포교사 템플스테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8월 25~28일 인제 백담사에서 해외파견 예정인 국제포교사 2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국제포교사들은 3박 4일간 발우공양과 서예, 전통무용을 체험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생명평화의 길 10년 미래를 말하다

불교환경연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10월 14일 후원의 밤 개최

환경문제를 넘어 각 사회현안에 불교계를 대표해 활동해 온 '환경보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태동한지 10년만에 첫 후원의 밤 '생명평화 걸어온 10년 나아갈 10년'을 연다.

불교환경연대는 8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4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후원의 밤은 불교계 환경운동의 지난 십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사에서 불교환경연대는 조직안정화와 인재불사에 주안점을 둔 3대 불사 △불교NGO센터 건립 △불교환경문화연구소 설립 △불교환경 인재불사와 그에 따른 사안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3대 불사 내용을 살펴보면, 불교NGO센터 건립으로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대불청, 대불련 등의 안정적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불교환경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교환경문화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재원확보와 연구소개원을 계획하고 있다. 불교의 미래인 인재불사는 불교환경장학재단 설립을 목표로 인재불사 추진위원회를 조성한 뒤 불교환경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3대 비전 중 인재불사는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었다. 앞으로는 청소년 포교에 주력할 것"이라며 "인재불사추진위원회 설치, 불교환경장학생을 선발하고 불교환경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은 "인적기반과 경제적 기반 확보를 넘어 불교환경연대의 미래를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후원의 밤을 통해 3대 불사와 향후 10년 비전 등 교계 사회운동의 기반이 될 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그동안 빈그릇운동 전개, 불교환경교육, 어린이불교생태학교 운영을 통해 환경보존에 힘써왔을 뿐 아니라 지리산 살리기 · 댐 백지화운동을 시작으로 북한산 천성산 미륵산 가야산, 새만금 갯벌 지키기, 4대강정비 사업 등 굵직한 사회현안에서 앞장서 불교적 생명관을 실천해왔다.

정우식 사무처장은 "그간 사회이슈마다 동분서주하며 뛰어 정작 불교환경연대의 토대를 닦는데 힘쏟지 못한 면이 있다. 이번 행사는 불교환경연대 진로의 변곡점이자, 새로운 10년을 향한 출발점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 격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02)720-1654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이철규 경무관 훈훈한 기부 화제

아름다운동행에 보시금 2000만원 전달

한 경무관이 자녀의 결혼비용을 아껴 소외아동을 위해 2000만원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교통관리관 이철규 경무관이 그 주인공. 이 경무관은 8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에 보시금을 전달했다.



이철규 경무관 가족이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지관 스님, 부인 김희경씨, 딸 이경희씨, 사위 홍순성씨와 그의 모친 안혜숙씨.

이날 업무관계로 불참한 이철규 경무관을 대신해 부인 김희경씨, 딸 이경희(28)씨, 사위인 홍순성(32)씨와 그의 모친 안혜숙씨가 직접 지관 스님을 예방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자비나눔운동에 깊은 호감과 관심이 많았던 이 경무관은 지난 6월 자녀 결혼비용을 아껴 모아진 2000만원을 소외된 아동과 노인을 위해 써 달라고 아름다운동행에 기부의사를 밝혀왔다. 이 경무관은 평소에도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노인들을 후원해왔으며 특히 낙산사 공부방과 노인무료급식소에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해왔다.

지관 스님은 "갈수록 세상이 각박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줘서 정말 고맙다. 뜻있는 일에 잘 쓰도록 힘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경무관의 부인 김희경씨는 "신심이 부족하지만 사돈 어르신의 깊은 불심으로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됐다. 매우 뿌듯하고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위인 홍순성씨는 "양가 부모님이 불심이 깊고 항상 이웃을 위해 베풀라는 조언을 평소 자주했는데 결혼을 기념해 이런 뜻 깊은 일에 동참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 자생한방병원 한의사이기도 한 그는 "최근에 아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의료봉사를 갔었는데, 앞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경무관의 딸 경희씨는 "공직자인 아버지는 당신의 일에 언제나 엄격하고 원칙을 지켜왔다"며 "아버지처럼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자비나눔을 통해 모연된 기금은 7억5000만원이다. 이 중 1차로 지난 7월 저소득, 실직가정, 다문화가정에 치료비, 긴급생계비, 쌀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이 집행됐다. 앞으로 동절기 지원사업, 소외계층 후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여러분 우리 책 읽어요"

불출협 · 동대 산하 종립학교 워크숍

불교출판문화협회와 동국대 산하 8개 종립학교가 함께 청소년 불서 읽기 붐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 회장 지홍 스님(불광사 주지)은 8월 22일 동대부(여)고, 동대부(여)중, 금산중 · 고, 홍제중, 은석초교로 구성된 동국대 산하 종립학교 교장단 워크숍에 참석,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 · 청소년 불서 출판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보급망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지홍 스님은 "기독교문화가 팽배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불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종립학교 도서관에서 많은 불서를 보유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접하게 하고, 나아가 독서토론회 개설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교장선생님들은 "불서가 읽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모으고 △어린이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불서 출판 △불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교육현장(선생님들)의 여론 반영 등을 요청했다.

김성우 기자

생명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희망걷기

1. 일시: 9월 26일(토) 오후 1~5시
2. 장소: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내 별자리광장)
3. 코스: 월드컵공원 난지순환길(6㎞)
4. 참가대상: 환우와 가족,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단 기업봉사단 등 누구나
*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품 증정 예정
5. 접수기간: 9월 21일까지
6. 신청문의 및 접수: (사)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www.lisa.or.kr

주최: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 등 8개 불교언론사
후원: 행정안전부, BS HLA Lab, 녹십자 의료재단, (주)은은, 서울메트로 안국역
모금계좌: 농협 053-01-271485 (사)생명나눔실천본부

김영선씨 명함꽃이 등 대상

제3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시상식 열려

한국불교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 제3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시상식이 8월 24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개최됐다.


공모전 최우수 수상작인 김영선씨의 '피어나다'.

이번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에는 책갈피, USB, 도장, 메모지 등 일반인들이 구매 욕구를 느낄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불교 문화상품디자인 및 제품디자인 2개 부문에서 230여 점이 접수됐다. 이 중 총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김영선씨의 연꽃을 모티브로 한 책갈피와 명함꽂이 '피어나다'가 대상으로 선정 상금 300만원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연꽃을 모티브로한 책갈피와 명함꽂이는 실용성, 장식성, 창의성을 겸비한 작품으로 현대적이면서도 불교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심사평을 했다.

한편, 우수상에는 이경국 씨의 귀USB2.0 HUB가 선정됐으며, 이주연씨의 '여인의 향기' 외 장려상 5명, 특선 10명, 입선 14명 총 3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8월 24~3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전시관에서 일반인들에게 선보였다.

이상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문제 중재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 불교계가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8월 2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5층 사찰음식전문점 '바루'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오찬을 함께 하며 용산참사 문제에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런 중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서울시는 1월 20일 참사이후 단 한 건의 교섭조차 없이 대화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세수 하려는 작태'라는 일부 비난 속에 이뤄진 서울시장의 이번 종교계 방문으로 용산참사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선주 기자

제천시 종교행사 공식후원 파문

'제천성시화대성회' 관공서 후원 드러나

제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정태영 목사) 주최로 9월 14~16일 제천시 제천제일감리교회에서 열리는 '제천성시화대성회'를 제천시청, 제천시의회, 제천경찰서 등이 공식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 제천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제천시 관공서 등은 '제천성시화대성회' 후원광고를 8월 19일자 제천일보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홍보실은 "시청 내 기독교 친목 단체인 '시목협의회'를 시청명의로 부풀려 표기한 것이다. 제천시청 차원에서가 아닌 시목협의회의 의견임을 알아 달라. 시목협의회는 오래전부터 일년에 한 두 차례씩 모여 제천성시화대성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후원은 자연스레 결정된 것 같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제천시청과 제천경찰서에 연락해 사건 전위를 살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발생한 종교편향사건은 과거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던 훼불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성시화운동이라는 이념적 바탕 위에 계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언론의 뭇매를 맞아도 기독교 정신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등 종교편향 발언을 일삼아 온 박승숙 인천구청장(인천중부교회 장로)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제천시의성시화운동을 후원하는 공공기관의 행태가 타종교와 차별된 행정을 펼치지 않도록 주의깊은 관찰이 요망된다.

박선주 기자

남해 제일 관음기도도량
향 일 암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일암
대웅전 황금단청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하게 되어
이에 낙성식을 봉행합니다
복과 지혜를 섭수하는 소중한 인연으로
감사와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3년 8월
주 지 양원문 신도회장 최반야심 합장
www.hyangiram.org



봉 향일암 대웅전 낙성법회 행
• 일 시 _ 불기2553(2009)년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 소 _ 향일암 대웅전
• 문 의 _ 061)644-4742 (종무소)

남해 제일 관음기도도량 금오산 향일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산 7번지
전화 061-644-4742 팩스 061-644-2390

선도성찰나눔실천회 사단법인화

"좌선수행과 나눔실천 문화의 삶 선도 앞장서겠다" 다짐

대표적인 재가 참선단체인 선도성찰나눔실천회(회장 이창훈, 이하 선도회)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8월 14일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선도회는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좌선수행과 나눔 실천 문화의 삶을 선도하는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사)선도성찰나눔실천회는 8월 14~16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성찰과 나눔'을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설립인가 이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선도회는 14~16일 '성찰과 나눔'을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데 이어 8월 22일 성남시립정성노인의집에서 위문 음성공양, 생필품 전달 및 유쾌한 노년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선도회는 전국적인 지부 확장을 통해 사회문화 공동체 기반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 목동 본회를 중심으로 서울 8곳, 인천, 충북 제천, 전남 담양, 광주에 이어 대구, 부산, 경기, 강원 지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창립목적에 따라 성찰실천운동 및 나눔실천운동 전개에 진력할 예정이다. 귀의삼사(歸依三師), 입실점검(入室點檢), 좌일주칠(坐一走七) 수행가풍을 이어 정기 좌선모임과 지부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성찰실천운동에 앞장선다.

선도회는 또 각 지부별 성찰과 관계된 음성공양, 미술전시, 결식아동을 포함한 소외계층 돕기 등 나눔실천 분야를 특화해 나눔실천의 노하우 공유, 나눔 문화 진작 등을 선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선사상 및 선문화의 연구 △전통 종교 및 타종교와 대화 · 협력 △선수행 공동체 운동 △시민운동 단체 및 봉사 단체 지원 활동 △성찰 · 나눔 실천 문화의 홍보 및 출판 등을 전개한다.

선도회의 박영재 지도법사(서강대 물리학 교수)는 "사단법인 인가는 종달 이희익 노사의 유훈 하나를 해결한 것으로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삶 속에서의 지속적인 성찰 실천은 바른 통찰체험으로 이어지고, 이 통찰체험을 원동력으로 나눔실천이 이어지지 않으면 통찰체험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법사는 "지도법사로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선도회와 백천만겁난조우의 희유한 인연으로 만난 모든 분들에게 잃어버린 꿈을 깨워주거나, 꿈을 갖게 하는 일, 허황된 꿈은 버리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도회는 1963년부터 조계종 소속 단체로 출발해 철야정진, 정기 참선법회, 정기 수련회 등을 통해 선불교 수행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제1대 종달 이희익 지도법사의 유지를 받아 법경 박영재 교수가 제2대 지도법사로 활동 중이며 17명의 법사와 200여 회원이 정진하고 있다.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선종어록인 <무문관(無門關)>을 수행의 나침반으로 좌선 수행을 통해 생로병사와 사회 제반의 문제를 선불교 수행전통의 시각에서 깊이 통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02)2648-1090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이호신 화백의 지리산 야단법석 참가기

"민들레꽃씨 같은 불광 되기를…"

'지리산 야단법석' 치열한 논의 교계 성찰 요구하는 간절한 바람

"절집살림은 재가불자가 맡아하고 스님들은 수행에만 힘쓰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 실상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겨우 용돈을 얻어 쓰는 경우지요."

"안거 해제 경비로 나가는 스님의 해외여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생들에게 회향하심이 어떠신지…."

"아닙니다, 스님들이 더 많은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하고 돌아와야 한국불교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불교는 승려교육이 실종입니다. 조계종단의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타종교인들은 목회 장소에서 신도들과 악수하고 껴안는데 절은 너무 냉랭합니다. '수행중' '출입금지' '묵언' 등의 팻말 앞에서 대중들은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이 위대한 불교사상이 2500년이 지난 오늘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왼쪽부터 이호신 화백, 법인 스님, 도법 스님, 성전 스님, 향봉 스님, 마가 스님.

4박5일간 진행된 '지리산 야단법석'은 그야말로 불교계의 안팎사정에 대해 성찰을 촉구하는 간절한 바람이요, 뜨거운 용광로였다.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정법 불교를 모색해 보자는 취지아래 펼쳐진 여정은 내내 가슴 벅차고, 전율스럽고, 때론 비통하고 또한 은혜로웠다.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식을 모시고 통렬하게 자기 점검과 주의 주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은 실답고 신선했다.

먼저 "차마 오늘날의 불교 현실이 눈에 밟혀 병든 노구지만 수수방관만 할 수 없어 노심초사 동참하게 됐다"는 무비스님(움직이는선원 조실)의 설법은 진중했다. 실제 거동하기 어려운 중환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법주로 회향한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 살펴본 수행지침 경험과 반성' 주제의 법문은 <금강경>을 재발견하고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발원이었다.

대중의 질의에 바로 답하지 않고 다시 대중에게 응답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열린 토론과 동기유발의 덕화는 참으로 넉넉하였다. 또한 "어떤 관념도 남겨 놓고서는 바른 깨달음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며 <금강경>의 본질을 재해석해 현실과 상통을 꾀하도록 신신당부했다.

혜국 스님(전국선원 수좌대표)은 절차탁마의 삶과 체험적인 수행의 예를 들려주어 그 희열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간화선 제일주의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관해'에서는 간화선의 역사와 법통을 상기시키며 "법당이 낡아서 위험할 경우, 완전히 새로 짓는 방법과 고쳐서 손질해나가야 할 경우가 있다면 여건이 안 될 경우, 후자를 택해야 한다'며 "과정이 생략된 오늘의 수행풍토를 질타하며 인재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법 내내 세 손가락을 다비한 모습에서 고행과 참구의 서슬 푸른 선지식과의 인연에 감개무량했다.

초청강사 이시우 박사(천문학자)는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자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목적(아인슈타인)"임에 과학적인 불교관을 피력했다. 이른바 '만물의 마음의 종교가 불교요, 만물을 위한 만물의 종교가 불교'라는 인식의 전환이 밤하늘의 별처럼 돋아났다.

움직이는선원의 열중인 향봉 스님과 도법 스님의 출현은 모름지기 폭염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였다. 불교계의 초상을 드러내는 하심과 용기의 발로 그 자체였으니. '자유를 위해, 행복을 위해' '참 불교 참사람에 이르는 길'을 주제로 법주가 된 향봉 스님은 20년간의 침묵수행을 깨고 이제 남은 생을 회향하겠다는 결의로 사자후를 토했다.

스님은 "전생 내생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마음이 윤회할 뿐, 살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할 뿐,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존재일 뿐"이라며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을 역설했다. 또한 구업(口業)은 넓게 보면 팔만사천 털구멍 세포 하나하나가 입 아닌 게 없으며 온 몸 그대로가 다 입이 될 수 있음과 중도사상, 제행무상, 제법무아의 진리를 강물로 흐르게 했다. 한편 총림사찰의 인맥, 학맥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개혁의 문제를 예로 들어 사부대중 모두를 부끄럽게 했다.

도법 스님은 오늘의 야단법석이 진정 '화엄법회'요 '화엄회상'이라고 강조하며 유아독존, 본래부처, 본래면목의 자신을 살피라고 주문했다. '본래 부처와 팔정도'에서 수행과 삶이 통일되는 방편으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알아보고(如實知見), 사실대로 실천(如實知見行)함이 팔정도의 실행이라고 설파했다.

나아가 '모심과 섬김이 바로 생명의 법칙과 질서'이고 화엄의 인드라망 세계 속에 함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실의 부조리를 덮어 둘 것이 아니라 싸울 건 싸우고 따질 건 따져야 가치의 의미를 지속해 갈수 있다고 했다.

참으로 인상적인 사연으로는 향봉 · 도법 스님이 토론방식에 의의를 달아 새벽에 3시간이나 언쟁했다는 법거량의 아름다운 고백이 사부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한편 진정성 속에 승속을 초월해 만날 수 있을 때 서로의 입장을 더욱 존중케 된다는 실감으로 모두 '복밭'의 주인이요, 시절인연임을 찬탄했다.

이 다함없는 낮춤의 자세와 용기 있게 아픔을 드러내는 일. 이 결연한 의지가 지리산 야단법석으로 부터 발아됐으니, 부디 불꽃처럼 민들레꽃씨 같은 불광(佛光)이 되기를 서원한다.

해외약탈문화재 반환

중신회 CARA 등 조직

해외약탈문화재 반환에 청년 대학생들과 시민이 앞장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문화재환수위원회 청년연대(Culture Assets Redemption Agency, 이하 CARA)'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시민탐방단' 등을 조직하고 해외약탈문화재 환수 활동과 전통문화계승보급에 앞장 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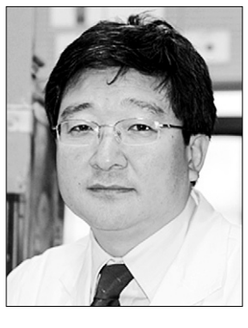
CARA와 시민탐방단은 약탈국 현지 방문, 반환 촉구, 현지 여론 조성, 전통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해외약탈 문화재 환수에 적극 나선다.

중앙신도회는 9월 9~23일 견지동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지하1층 갤러리에서 '해외약탈 문화재 기금마련전시회'를 열고 전시회 기간 중인 9월 12일에는 견지동 템플스테이 정보관 3층 교육관에서 CARA 발대식을 개최한다. (02)733-7277

이상언 기자

"전국 거점병원에서 협력 봉사할 것"

병불련 제4대 회장에 류재환 교수 선출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련, 지도법사 각광)는 8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류재환 교수(경희대 부속한방병원 동서협진실 · 사진)를 선출했다.

제3대 회장에 이어 4대 회장에 연임된 류재환 교수는 "회장단 이하 개편된 보직을 통해 회원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울, 충청, 전라, 경상도, 강원 등에 거점 병원을 두고 협력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류 교수는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의 의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포교와 신행 활동이 겸비된 병불련이 될 것"이라며 "자신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처님 자비 실천행인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병불련 회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교수는 봉사활동의 개인적인 소감에 대해 "전국 무의촌에서 혈액, 심전도, 의사 진단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면 자비를 실천하는 포교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이웃종교와 같이 불교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실감할 때는 큰 자부심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의료봉사단인 병불련은 전국 국립병원과 경희대, 동국대 일산병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도락산 광덕사

백만불전 미타삼존불 봉불식

2009년 9월 14일 (월) 오전 10시 (전야제 9월 13일)

전야제
9월13일 일요일
오후 5시 …… 저녁공양
8시 …… 삼귀오계 수계식
9시 …… 국제고승 법문
10시 …… 선지식초청 법문
밤 12시 …… 철야 용맹정진

점안 · 봉불식
9월14일 월요일
10시 … 점안식
11시 … 봉불식(본행사)

불법은 대지 허공과도 같아서 모든 만물이 그 속에 존재하며 또한 바다와도 같아서 그 깊고 오묘함은 言說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지혜와 자비의 종자를 잘 가꾸어 보살이 되고 成佛하는 종교가 불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불제자인 형제요 四海一家이기에 항상 서로 존경하고 의지하며 서로 돕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신도님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백만불전에 삼존불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점안법회는 韓中日 국제고승들을 초청하여 봉행하며 평생을 수행정진하신 53 대 선지식 스님들과 함께 철야용맹정진을 거행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이 뜻깊은 행사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성불도반이 되십시다. 이러한 인연공덕으로 선망부모가 왕생극락하고 법계 모든 중생이 보리심을 발하여지이다.

도락산 광덕사 회주 혜 인 합장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산30-1번지 / 전화 : (043)421-4700
이메일 : gwangdeoksa@hanmail.net / 광덕사 홈페이지 : www.84000.or.kr

동참안내 연락처
제주도 약 천 사 064) 738-5000
다 도 투 어 064) 724-1185
경북·대구 은해사(영 천) 054) 337-3413
불광사(대구시지) 053) 792-1181
하 양 포 교 당 054) 851-2315
봉 림 사 054) 337-3413
경 남 진주 성전암 055) 754-7056
마산 현각사 055) 253-8656
부 산 법등회(금정구) 051) 523-1480
소림사(초 량) 051) 468-4497
불 교 신 문 사 051) 806-4717
우 진 항 공 051) 468-7447
금 강 정 진 회 051) 635-7878
서 울 용 진 관 광 02) 2279-1191 011-730-6147
• 13일 12:00 조계사 출발 ▶ 오후 1:00 잠실역 4번 출구 롯데마트 앞
• 14일 6:30 조계사 출발 ▶ 오전 7:20 잠실역 4번 출구 롯데마트 앞
광 주 성 거 사 062-676-1080

국적 초월한 '화합의 하모니'

청주외국인보호소 대학합창단 연주회 열어



청주외국인보호소가 8월 24일 개최한 대학합창단 연주회 모습.

청주외국인보호소는 8월 24일 청주외국인보호소 명예인권담당관 장현수 목사, 보호외국인 고충상담도우미, 보호외국인 및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호외국인과 함께하는 대학합창단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됐던 보호외국인들에게 감성적인 음악감상 기회를 제공해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다문화사회에서 서로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태근 소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보호외국인들의 환경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동감프로그램을 계발해 보호외국인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현수 명예인권담당관은 "보호외국인들이 색다른 문화행사에서 지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돼 흐뭇하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인 팜 띠틴(26세)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합창연주회를 체험하게 될 줄 몰랐다"며 기뻐했다.

한편, 대학합창단(The Korean Students Glee Club)은 1966년 음악을 전공하는 서울시내 대학 학생들로 구성돼 44년 동안 선교와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수련으로 성숙해지세요"

영동 중원불교대학 등 영국사서 하계수련회

충북 영동군의 안녕과 불교 발전의 신심과 원력을 다지기 위한 행사가 영동 영국사에서 열렸다.

영동 중원불교대학(학장 청원 · 영국사 주지)은 8월 22~23일 영동군사암연합회 연합신도회와 합동으로 영국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중원불교대학 5기생이 주축을 이룬 이날 입제식에는 학장 청원 스님, 황룡사 종림 스님, 유점사 돈증 스님, 정원용 영동군문화원장, 유주원 민주평통회장 등 60여 내외빈과 불교대학생들이 참석했다.

청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자주 모이고 자주 경을 읽고, 자주 독송을 해야 승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수련회를 통해서 흘린 땀이 내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회향할 때까지 신심과 원력을 다질 수 있게 적극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제식이 끝난 후에는 영동군 발전과 불교회관건립 발원하며 2층석탑에서부터 원각국사비까지 삼보일배 오체투지 정진이 있었다.



8월 22~23일 영동 영국사에서 열린 영동중원불교대학 하계수련회 모습.

영동군 신도연합회 장인학 회장은 "오체투지라는 걸 말로만 듣고 스님들이 하는 것만 보았는데 직접 해보니 얼마나 고행인지 알 것 같고 이를 통해 신심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형부가 많이 아파 오체투지를 하면서 부처님께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끝날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 밝혔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이밖에도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과 108참회정진, 염주 만들기 그리고 5기생에 대한 수계식이 있었으며 각자 소감발표를 끝으로 회향한다. 회향 후 참가자들은 함께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영전에 분향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사는 9월 5일 오후 5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혜철 충청지사장

옥천불교연합신도회 창립

옥천불교사암련 월례회의서 지원 논의

옥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 · 대성사 주지)는 8월 21일 세계불교세심종 총본산 옥천 황룡사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8월 21일 옥천 황룡사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박영학 연합신도회회장(前 옥천교육장)의 신도회 결성 현황보고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연합신도회 창립 대법회 세부 일정과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전수하 옥천불교청년회회장은 청년회 활성화를 위해 사암연합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암연합회는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회의를 마치고, 세계불교 세심종 대종정 무변 스님은 옥천불교연합회와 세심종 교류에 대한 환담을 나누고, 즉석에서 일필휘지의 휘호 한 점씩을 증정했다.

옥천불교연합신도회는 이용희 국회의원(前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회장), 연규학, 박효근(前 문화원장)씨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옥천군 사암에서 회원 5명씩을 추천해 200여 회원으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창립법회는 9월 26일 11시 옥천농협 예식장에서 봉행하고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이 법문한다.

혜철 충청지사장

무심천 유등문화제 열린다

청주청원불교협, 4일 무심천 특별무대서

청주청원불교합회(회장 광해 · 금불사 주지)는 9월 4일 오후 5시부터 청주 무심천 특설무대에서 '2009년 무심천 유등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청주 무심천변에서 충북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주관하는 창작유등 공모전을 시작으로 일반시민과 불자들이 접수한 유등 띄우기, 불교전통의식인 범패시연(작법무, 바라춤 시연), 국가와 충청북도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의식, 기념법회, BBS청주불교방송이 주관하는 축하공개방송 등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선율도 무심천을 수놓는다. 청주불교방송 민지혜월 보살의 사회로 가수 김종환(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 윙크(부끄 부끄, 천생연분), 박시원, 홍수라 등 인기가수가 공연한다.

사무총장 법정 스님(반야정사 주지)은 "지난해 보다 실속 있고 볼거리가 풍성한 나눔의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성제 스님 등 명사초청강연

영동참여연대, 신미 대사와 김수온 재조명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회장 임대경)는 8월 24일 영동읍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 '2009년도 명사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는 반야사 주지 성제 스님과 충북학연구소 류정환 소장이 강사로 나와 한글창제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금강경> 번역 등 불교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혜각존자 신미 대사와 괴애 김수온 선생의 업적과 일대기를 재조명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연대 임대경 회장은 "이번 강연회에서 우리 고장이 배출한 걸출한 선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인생의 가치를 정립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미 대사는 충북 영동에서 김훈(金訓)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본명이 수성(守省), 본관은 영산(永山)이며, 집현전 학자로 있다가 법주사로 출가했다. 또 괴애(乖崖) 김수온(金守溫)은 신미대사의 셋째 동생으로 조선시대 4대 문장가로 필명을 날렸다.

스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후,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을 짓고, <능엄경> <원각경> 등 28종의 경전을 한글로 변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삼국유사 문화축전 열린다

일연선사 열반 720주기 다례재 봉행

일연선사 열반 720주기 추모 다례재가 8월 27일 오전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군위 인각사(주지 도권)에서 봉행됐다.



8월 27일 군위 인각사에서 봉행된 일연선사 720주기 다례재.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과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다례재는 인각사 신도회 임원진의 육법공양과 조계종 불교어산 작법학교 학인 스님들의 영산회상 시연무대 등으로 진행됐다.

인각사는 이날 다례재를 시작으로 9월 19일 삼국유사 골든벨, 26일 삼국유사 문화의 밤 행사를 잇따라 갖는 등 '삼국유사 문화축전' 일정에 들어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포교사 합창경연

5일 김제 금산사서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총괄팀은 9월 5일 오후 4시 김제 금산사에서 '제1회 포교사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한다.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합창경연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8개팀이 참가해 경합을 펼친다.

이 가운데 충북총괄팀은 7월부터 매주 청주관음사에서 합창대회 출전을 위한 맹연습을 하고 있다.

충북총괄팀은 충북불교합창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남녀 혼성합창단 30명을 구성해 지정곡 '우리도 부처님같이'와 자유곡 '운수대통' 등의 작품으로 대상 수상에 도전할 예정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1516주년 개산대재 10월 17일

대구 동화사 교구종회 열고 현안 논의

조계종 9교구 본사 동화사(주지 허운)는 8월 25일 오후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종회를 열어 개산대재 행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올해로 1516주년을 맞는 동화사 개산대재를 10월 17일 봉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개산대재 행사로 법요식과 보살계 수계식, 만등불사 점등식 등을 진행하고 법화 산림법회와 신재순 교수의 '닥종이 인형과 함께하는 고승열전' 등의 문화행사를 개산대재 8일 전부터 갖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구 동화사는 신라 소지왕 15년(493)에 극달 조사가 산문을 열고, 흥덕왕 7년(832)에 심지 왕사가 중창한 고찰이다.

소장문화재로는 보물 제1505호로 지정된 '사명당대장진영'등 다수가 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역시 이름값 하는

2010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이루어주소서-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 -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 -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관음의 미소-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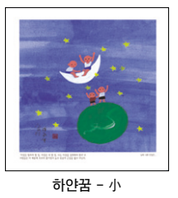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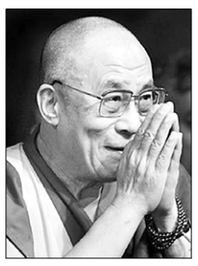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해 외 WORLD

달라이 라마 대만 방문

대만총통 방문승인… 양안관계 미지수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가 8월 31일 대만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관영 중앙통신은 최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8월 27일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천쥐(陳菊) 가오슝(高雄) 시장과 6명의 민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달라이 라마가 대만을 방문해 태풍 피해 주민들을 위로해 달라고 초청한 바 있다.

대만 정부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달라이 라마는 8월 31일~9월 3일 태풍 모라꼿 피해를 입은 대만 남부 지역을 둘러보고 위로 법회를 봉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달라이 라마는 마잉주 총통 취임 이후 두 차례 대만 방문의사를 밝혔지만, 마잉주 총통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완곡한 거부의사를 밝혔었다.

이는 마잉주 총통이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을 허용할 경우, 양안의 해빙무드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 측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반대 입장을 밝힐 경우, 양안관계가 달라이 라마 대만 방문 문제로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소 중국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는 국가를 탐탁찮게 여겨왔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만과의 관계가 호전될지는 미지수다.

이나은 기자

러시아 대통령 불교지원 약속

부랴트 공화국 이볼가 사원 방문해 '눈길'

개신교신자인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불교의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끈다.

드미트리 메드 베 데프 대통령은 8월 24일 러시아 불자들에게 그들의 전통을 부활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시킬 것을 약속했다.

인도 주요뉴스 사이트인 Zeenews는 최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시베리아 부랴트 공화국의 주요수도원인 이볼가(Ivolga) 사원을 방문한 것은 역대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 일어난 일"이라며 "그는 러시아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함보 라마(Pandito Hambo Lama Damba Ayushev)와 그의 제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모태신앙인 대통령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전통종교시설들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이슬람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모스크바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는 등 다종교 정책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이번 불교사원 방문이 당국과 전통종교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TV연설을 통해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기본 종교교육 실시 △군대에 종교시설 설치 등 종교활동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 같은 결정이 "모든 종교 공동체의 지원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다문화가정 체계지원… 국내외 활동기반 다져

8월 25일 사무실 현판… 교육 · 문화 · 건강 · 법률 등 6개 분야 자문단 129명 위촉

정치와 종교를 초월한 다문화가정지원단체인 한국다문화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는 8월 25일 서울 신문로에 사무실 개소 현판식을 열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관 4층 대강당에서 정책자문단 발족식을 가졌다.

정책자문단에는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을 정책자문단장으로 △교육 △문화 △건강 △법률과 인권 △언론 △거버넌스(민관학 통합연계망) 등 6개 분야에 전문가 129명이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선 · 무원 스님, 한나라당 진영 국회의원, 윤형식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을 비롯해 정책자문단 위원 및 어린이 합창단 레인보우코리아 1기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와 관련한 행사들이 풍성한 시대에 자칫 행사에 치우쳐 다문화가정 및 해외이주민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등한시하기 쉬운 요즘"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자문단 발족과 같이 다문화정책을 거론하고 이를 재정립하자는 시도는 한국의 다문화역사를 재정립할 중차대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 다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정책 자문단 여러분의 몫에 달려있다"며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며 올바른 다문화사회를 위해 모두 힘을 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사회의 법제화를 준비하는 '국회다문화포럼' 발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날 발족한 다문화정책자문단은 국회다문화포럼에 대한 정책지원을 비롯해 한국의 다문화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다문화센터는 교육 · 인권 등 6개 분야 전문가 129명으로 구성한 정책자문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에 나선다. 가운데는 정책자문단장 무원 스님.

정책자문단은 6개 분과별로 서로 열띤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제반 문제를 조사 연구하며,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열린 다문화공동체로 나아갈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문단은 주요사업으로 △다문화사회관련 자료집 발간 △정부 및 국회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국제 다문화 포럼 및 네트워크 참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정책자문단은 매월 1회 분과별 세미나와 분기별 전체세미나를 진행하게 된다. 9월에 열리는 첫 세미나에서는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문제를 포함해 국내의 정규교육을 받을 때 겪는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진영 한나라당 의원은 "다문화정책자문단 발족은 미래로 가는 로켓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빈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자문단에서 역량을 힘껏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선 스님은 "'나'라는 상(相)을 없애고 이웃을 위해 살라고 모든 성인들이 가르쳤듯이 자문단 구성원 및 국민들이 모든 상대를 나와 같이 대하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축사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 이어 한국다문화센터의 사업 중 하나인 '다문화자녀대학생 멘토링' 1기 시상식, 레인보우코리아 1기 어린이합창단원들의 합창공연 및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부소장의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 있다>(소울메이트 刊)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이제 '엄마' 밖에 말 못해요"

생명나눔 9월의 환우 천재호씨 선정

"한 가정을 짊어지기 위해 이라크 파병에 지원했던 용감한 청년이 이제는 '엄마'라는 말 밖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의 환우로 천재호(27 · 남)씨를 선정했다

밝고 책임감 있는 천씨는 집안의 기둥답게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라크 파병에 지원해 군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가정경제를 걱정하며 대학진학의 꿈을 접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천씨에게는 사업실패 후 보이지 않는 한쪽 눈으로 건축 일용직 노동일을 하다 척추수술을 3번이나 받은 아버지와 요양보호사 등을 하며 가계를 이끌어온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강하고 믿음직스럽던 천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낙상으로 머리를 다치고 여러 차례의 머리 수술을 받게 된 것.

천씨는 얼마 전 건강이 호전되다 갑자기 뇌수종이 생겨 다시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어머니는 아들의 오랜 간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 자식의 치료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심신이 지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고 웃거나, 인사하고, 치료를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미어지지만 희망의 끈을 더 힘주어 잡고 있다.

천씨는 이번 입원으로만 800만원 넘는 고액의 치료비를 내야하고, 앞으로 수술도 앞두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할지 모른다. 전세자금 융자 4100만원도 상환해야 하는데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치료를 어찌 감당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인연터에서 염불봉사 회향하길"

조계종 복지재단 염불자원봉사교육 1기 수료

불자가정이 상(喪)을 당했을 때, 염불 위주로 임종봉사를 펼칠 불자를 양성하는 염불자원봉사 교육이 첫 회향식을 가졌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8월 26일 재단 프로그램실에서 염불자원봉사교육 1기 수료식을 가졌다.

복지재단은 수료생들을 모집해 7월 13일~8월 26일 총 12회에 걸쳐 염불자원봉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1기 염불자원봉사교육에서 염불은 국립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인 무관 스님이, 조가는 한국불교음악연구소 소장인 도영 스님이 지도를 맡았다.

무관 스님은 수료식에서 "염불봉사는 불교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기간동안 열심히 배운 것들을 인연터에 가서 잘 회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 · 장례봉사문화와 포교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염불자원봉사자 1기생들이 8월 26일 수료식을 가졌다.

도영 스님은 "불교계에 염불봉사자들이 부족해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곳에서 첫 봉사자들이 배출됐다는 것이 매우 뿌듯하다"고 밝혔다.

염불봉사 1기 교육생들은 모두 60명이며 이들은 앞으로 호스피스 대상 가정, 일반 불자 가정을 방문해 무료염불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계획이며 2기 염불봉사 교육은 10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1기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 대부분은 본인의 가정이 상을 당했을 때 염불봉사의 필요성은 느끼나 교계에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크게 아쉬움을 느꼈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복지재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스피스 활동과 함께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한 염불자원봉사단을 양성, 체계적인 상 · 장례봉사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재단 복지사업부 이운희 팀장은 "염불봉사교육 프로그램이 그간 미진했던 교계 상 · 장례봉사문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염불자원봉사활동은 포교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불교 백년대계를
동국대학교와 불교계가 함께 준비합니다.

불교계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가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갈 주인공 양성을 위해 '1사찰 1장학생 후원' 장학 불사를 시작합니다.
불교계 인재 육성의 중심 동국대학교는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각 사찰마다 장학생 후원 참여는 불교 대중화와 미래 불교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1사찰 1장학생 후원' 장학 불사

❖ 참여 대상 : 사찰(스님 및 신도회)
❖ 참여 방법 : 신청 방법 – 전화 접수 02-2260-3300, 8992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http://ilove.dongguk.edu
후원 금액 – 학생 1명당 1백만 원(인원 추가 가능)
❖ 기타 사항
• 장학금 출연 사찰 명의로 해당 장학금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 ○○사찰 장학금, △△스님 장학금 등)
• 장학생 선발 기준, 지급 인원 및 장학금액을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출연 사찰과 선발된 장학생간 1:1의 직접적 인연
(해당 사찰에서의 신행생활과 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단 –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Tel. 02-2260-3300, 8992 / Fax. 02-2260-3796
http://ilove.dongguk.edu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dongguk UNIVERSITY

봉 행

불기 2553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헌종법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종도수련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불기 2553년 9월 22일 ~ 9월 24일(음 8월 4일 – 8월 6일)
◆입 재 : 불기 2553(2009)년 9월 22일 오후 3시 입재
(입소등록 당일 오후 3시까지 완료요망)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등
◆장 소 : 다보수련원 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02) 951-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0-7322-4747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 대한불교대승종 중앙 종의회
대한불교대승종 교구종무원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도관 지법 합장

"염불 수행 지향점도 부처 되는 것"

불교학연구회 건봉사서 하계워크숍… 염불 수행에 대한 담론 펼쳐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방법 가운데 염불은 쉬운 길(易行門)로 알려져 있다. 염불 수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

758년 발징 스님이 만일선원(萬日禪院)을 세운 이래, 몽골 침입 때는 백련결사 운동의 근간이 되는 등 염불수행의 중심도량으로 활약했던 고성 건봉사(주지 도후)에서 염불 수행에 관한 학술적 담론이 펼쳐졌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8월 22~23일 고성 건봉사에서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종수 동국대 외래강사가 '건봉사와 만일염불회'를, 성해영 서울대 HK연구원이 '염불선과 예수기도의 비교종교학적 고찰'을, 법상 스님(중앙승가대 박사과정)이 '염불수행의 의미에 대한 일고'를, 무상 스님(경기 광주 지장사)이 '실상염불선의 이해와 실수 소찰'을 발표했다.

#조선조 억불 사실 아니다

이종수 외래강사는 발징 스님의 만일염불회를 계승한 1801년 제2차 만일염불회를 중심으로 건봉사에서 일어난 만일염불회를 살폈다.

이 외래강사는 "숭유억불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불교가 핍박받았다는 기존 주장은 틀렸다"며 "18세기 이후 억불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조선 후기에는 휴정 스님이 경절문 원돈문 염불문의 삼문(三門)을 드는 등 불교가 통불교적 성향을 띠게 됐고, 스님들이 부역에 종사하게 된 것도 제도권으로 승단이 포섭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종수 외래강사는 올 2학기 제출할 박사학위 청구논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염불과 예수기도 유사해

성해영 서울대 HK연구원은 염불선과 개신교의 예수기도(Jesus Prayer)를 만트라 수행으로 간주하고 두 수행법의 유사성을 고찰했다.

성 연구원은 "염불선과 예수기도는 '말'을 도구로 삼아 인간의 의식이 변형될 수 있고, '헌신과 믿음'에 기초한 수행이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체험적 인식을 줄 것을 역설하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두 가지 수행법 모두 인간이 몸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며, '사랑(자비)'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점도 같다"며 "염불선과 예수기도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 조화를 이루나 자기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성해영 서울대 HK연구원.

#염불은 쉬운 수행법 아니다

법상 스님은 "염불이 쉽다는 것은 오해"라며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쉽다는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의 모든 수행이 그렇듯 염불의 궁극적 지향점도 삼매를 통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가 되는 것"이라며 "염불수행에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과 극락에 왕생함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불은 본래 부처 관하는 것

무상 스님은 "염불의 염(念)은 사람마다 마음에 나타난 생각을, 불(佛)은 사람마다 갖추고 있는 깨달은 근본성품"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칭명염불(稱名念佛), △부처님 원만덕상을 관찰하는 관상염불(觀象念佛), △부처님 자비와 지혜의 무량공덕을 상상하는 관상염불(觀想念佛), △부처님 법신이 중도실상의 묘심(妙心)임을 관조하는 실상염불(實相念佛)을 실참 지도했다.

한편, 행사에 참가한 100여 사부대중들은 23일 오대산 월정사를 방문해 정념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이날 법문에서 정념 스님은 "한국불교가 시대의 요구와 바람의 수용을 못하고 있다. 시대에 걸맞는 종지를 살피고 새교학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승가교육 등은 수행과 승가상 정립 등과 직결돼 종단 교육체제 재정비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1994년 개혁 후 매너리즘에 빠진 종단현실도 언급했다.

정념 스님은 "종단이 시대변화를 쫓지 못한 채 종도 여론과 역량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종책의 한계와 집행기능의 문제점을 드러낸 현재대로면 자기혁신과 변화가 있기 어렵다"며 "불교학 연구자 등 교계지식인들이 나서 각 분야별 자기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법문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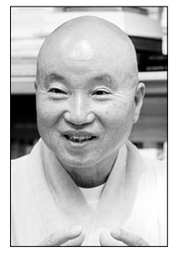
임진왜란 조선 대불교정책 변화시켜

법산 스님 광해군 추선 기념 학술세미나서 주장

임진왜란이 조선왕조의 대불교정책에 일대 변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 · 보조사상연구원장) · (사진)은 8월 22일 남양주 봉인사에서 열린 제2회 광해군 추선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님은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을 때 의승장 영규가 청주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은 승군(승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선조는 서산 대사에게 팔도도총섭의 직함을 주어 전국의 의승군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왕실은 임란 후 다른 의병들은 해체했지만 승군은 남겼을 만큼 불교계의 충정을 확인했고, 이는 불교에 대한 정책 완화로 이어졌다.

법산 스님은 "왕실의 불교에 대한 정책 완화는 서산 사명 영규 의엄 각성 등 당시 활동하던 스님들이 산문을 정비할 여유를 줬고, 이때 현재까지 전해지는 법통이 수립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광해군이 폭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국제적 외교관계에 대해 대담함과 능란함을 보였고 불교에 대해서도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가 '백곡처능의 간폐석교소와 탈유교주의'를, 박해당 서울대 규장각 연구원이 '광해군 시대 대표적인 고승들의 국가의식'을, 감용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임란 이후 불교계의 변화와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임강사지 발굴 벽화 등 최초 공개

국립부여博, 백제불교문화전 10월 4일까지

최초로 공개되는 임강사지 발굴 벽화를 비롯해 백제불교 문화재가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백제불교 문화를 한자리에 정리한 '백제 가람에 담긴 불교 문화전'을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과 공동개최하는 전시회에는 백제 불교의 발자취 및 사원, 불상, 불교 공예, 사원건축과 백제 불교의 대외교류 등 6개 주제로 나뉘어, 백제 불교문화재 270여 점이 선보인다.

백제 불상을 통해 '백제의 미소'가 소개되는 것을 비롯해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금동 광배와 청양 본의리 가마터에서 나온 도제대좌 등 백제시대 대불이 전시된다. 백제 목탑지가 재현되고, 사리기 등 백제시대 사리장엄구 다수도 전시된다.


군수리 납석제불좌상(보물 제329호)

(041)833-8562 조동섭 기자

"불교 생명관은 불교의 사회적 책무"

정병조 교수 만불학술회의서 '생명 본질과 현대적 가치' 기조강연

황우석 박사 사건과 존엄사 논란 등 생명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이어지는 때, "불교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불교의 사회적 책무를 물음과 같다"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정병조 동국대 교수(사진)는 만불회(회주 학성)가 8월 26일 동국대에서 '불교에서 바라본 생명의 본질과 현대적 가치'를 주제로 개최한 제2회 만불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 했다.

정 교수는 "생명의 기원과 가치를 논하는 첨예한 문제들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며 "관념적이고 교조적 접근이 아닌 불교적 원리로 해석한 결과에 대해 현실적인 응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주제발표 '근본불교에서 본 생명'에서 "부파불교에서는 선정수행과 관련해 체온과 의식이 생명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허남결 동국대 교수는 '불교윤리에서 본 생명'에서 "바람직한 불교윤리의 정립은 현대인들의 윤리적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는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영 불학연구소 연구원은 '선의 관점에서 본 생명'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과학시대에서 생명과 나를 찾아서'를 통해 "자신을 이루는 아상(我相)이 열려야 적극적 비움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대장경 특별전

東大 중앙도서관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신재호)은 9월 1~12일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부처님 말씀 곳집'을 주제로 대장경 특별전을 개최한다.

행사는 동국대가 소장한 △한국판(초조대장경, 고려대장경(인경본), 한글대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중국판(송판대장경, 건륭대장경, 홍무남장, 홍무북장, 빈가대장경 등) △일본판(대정신수대장경, 대일본 속장경, 남전대장경, 국역일체경 등) △기타판(티벳대장경, 태국대장경, 빨리대장경 등) 대장경들을 선보인다. (02)2260-3457

조동섭 기자

한·중·일 목탑지 최초 보고서 나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목탑지' 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목탑지를 최초로 분석 ·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최근 <한 · 중 · 일 고대사지 비교 연구(Ⅰ) - 목탑지(木塔址)>를 펴냈다.

보고서에는 5~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개별 절터 58개소(한국 16개소, 중국 2개소, 일본 40개소)의 발굴조사 현황과 목탑의 기단, 계단, 평면 형식, 심초 설치 및 안치, 출토유물에 대한 내용을 표와 도면, 사진, 참고문헌 등과 함께 수록했다.

또한, 고찰편에는 이러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 중 · 일 고대 목탑지 비교분석 내용을 수록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최근 왕흥사지, 정림사지 등 백제 고도(古都)의 절터를 조사하면서 비슷한 시기의 동아시아 고대 절터와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 · 중 · 일 고대사지 비교연구'라는 기획연구 계획을 수립했다.

김용민 관장은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목탑지를 집대성한 보고서가 발간된 사례는 없었다"며 "고대 사찰 및 목탑지 발굴조사와 이에 대한 정비 · 복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보물 제200호)'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보물제1313호)'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보물 제1366호)' 등 국가지정문화재(보물) 3건을 국보로 승격한다고 8월 28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의식(범음 · 범패) 단기 속성 수련생 모집
(제11기 교육)

사단법인 전통불교영산회에서는 실제로 상용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을 여법하게 배울 수 있는 제11기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범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단기간 집중적 교육(단기속성 7일간)으로 이론, 실기, 현장학습을 같이하여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11차 불교의식교육에 수행정진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일시 : 불기 2553년 9월 20일(음 8월 2일) 일요일 -
9월 26일(음 8월 8일) 토요일(7일간)

■교육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269-4(밤실마을) 율곡사 (062-263-4575)

■교육대상 : 출가사문(비구, 비구니)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회에서 배부) / 반명함판 사진 2장 / 승려증 사본

■교육동참비 : 일십오만원(교육교재, 숙식, 제반비용 포함)

■접수기간 : 불기 2553년 9월 18일까지

■접 수 : 총무스님 010-3639-2946
교무스님 010-2633-7633 재무스님 011-9605-5155

■생활습의는 대중처소와 같이합니다.(가사,장삼,목탁,요령,필기도구 지참요망)

■교육과목

안채비	(1) 의식편(상단, 중단, 하단의식 불공 등) (2) 제의식편(시련, 대령, 관욕, 시식 등)
거채비	(1) 사물 다루는법 (2) 민바라 (3) 천수바라 (4) 다게(나비춤)

※ 실제 법회에서 상용되고 있는 의식을 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므로 초심자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 수료식 후 수료증과 함께 본회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우수한 스님들은 정회원에 가입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에 동참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통불교 영산회 대중스님 일동 합장

일주문



불광장학회 2회 장학금 전달

서울 불광사 불광장학회 이사장 지홍 스님은 8월 23일 탈북 새터민 자녀를 비롯해 불자 대학원생 2명 등 총 24명의 학생에게 2학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제징용 희생자 위령재

양산 천불사 회주 도봉 스님은 8월 26일 열린 '태평양전쟁 한국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및 합동위령재'를 봉행했다.



법주사 비천상 벽화 전시회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12월 4일까지 경내 진영각에서 비천상 벽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 신임회장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8월 19일 부산 홍법사에서 열린 2009년 불교문화대학원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위안부 피해자 주제 공모전'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9월 30일까지 '제1차 전국 청소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정승가대중결사 2차 워크샵

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진오 스님은 9월 14~15일 공주 전통문화문화원에서 제2회 대중결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02)732-1209



자비명상 공개강좌

천안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은 9월 9일 오후 1시 서울 템플스테이 정보센터에서 자비명상 지도자과정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041)622-1190



동산불교대학 불교대학 졸업식

동산불교대학 안동일 이사장은 8월 23일 무진장 대종사 스님을 계사로 불교대학 31회 대학원 22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동우장학회 2009 동우장학금 전달

동국대 총동창회 산하 동우장학회 전순표 회장(세스코 회장)은 8월 2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2009 동우장학금을 각 100만원씩 40명에게 전달했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연주회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9월 2일 세종체임버홀에서 '음악, 법의학자를 만나다-슈베르트 편'을 개최한다. (02)718-4599

"약자위한 삶으로 다시 회향"

1000일기도 회향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불자들과 약속한 천일기도 동안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약자를 위한 삶으로 회향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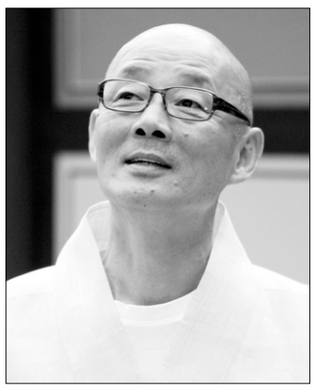
2006년 12월 5일 1000일기도에 들어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사진)이 기도 회향을 5일 앞둔 8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명진 스님은 매일 1000배씩 1000일 기도를 빠짐없이 해왔다. 산문출입 조차 하지 않은 스님의 뜻이 꺾인 적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봉은사 신도였던 권양숙 여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국민장 영결식 의식집전을 한 것이 유일하다.

스님은 "김 前 대통령처럼 노 전 대통령이 노환으로 돌아가셨다면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살이 있게까지 한 원인, 이것이 남긴 역사에 동참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이어 스님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자정 넘게 TV 토론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에 못 일어날까 걱정한 날은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더라. 불자들과의 약속이라는 긴장감이 1000일간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과 조계종 개혁에 앞장서며 일명 '운동권 스님'으로 불렸다. 1987년 6월 20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열린 6월 항쟁 집회 당시 백골단에 끌려가는 명진 스님의 사진은 주지실 한 켠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다. 사회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던 스님이 보수 색채가 강한 강남, 그 중 조계종 사찰 중 최대 예산을 운영하는 봉은사 주지가 됐을 때 큰 화제를 모았다. 스님은 이러한 관심을 수행중심의 사찰 구현, 투명한 사찰 운영을 기치로 승화시켰다.

재정 · 예산 공개 및 신도회와 함께 하는 종무결정, 빠짐없이 직접 진행한 일요법회 등은 냉담자가 많아 참여율이 저조했던 20만 봉은사 신도들의 신뢰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 천일기도와 더불어 명진 스님은 사중 스님, 재가신도들과 매일 아침 바루공양을 하고 예불과 운력을 함께하는 수행생활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초기 200여명에 불과했던 봉은사 일요법회 참가자는 매주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스님은 "'쇼'한다는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출가자로 가장 기본적인 신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님들이 서로 다투는 '쇼'보다 신도들에게 신뢰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쇼'를 더 했으면 좋겠다."

1000일 기도기간 중 세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부터 용산참사, 전직 대통령의 연이은 서거 등 격변에 대해 스님은 "안에 있으면서 더 투사가 된 것 같다. 몇 번이고 나가고 싶을 때 견디게 한 자기 성찰이 사판승으로서도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수행과 동시에 사회참여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일까. 명진 스님은 8월 30일 회향법회 후 당일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1999년 스님이 첫 방부를 들인 인제 용화선원에 9월 3일부터 산철결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향법회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강석천 조선일보 주필이 나란히 축사해 눈길을 끈다. 또 기도동안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모은 쌀 1000가마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강남구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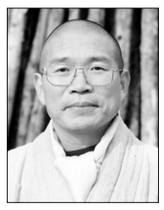
끝으로 스님은 "11 · 12대 중앙종회 의원 역임 후 13대에 총무원장 스님의 간선추천을 고사했고, 이후 종단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찰 재정 투명화 등 봉은사를 잘 이끄는 것도 종단 개혁과 한국불교 미래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밝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6 · 17교구본사 주지 후보

원혜 스님 마곡사 당선, 원행 스님 금산사 추대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에 원혜 스님(사진 왼쪽)이, 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에 원행 스님(사진 오른쪽)이 각각 선출됐다.

공주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영진)는 "8월 24일 산중총회를 열어 본사주지 선거 결과 135표 중 74표를 얻은 원혜 스님(前 봉은사 주지)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새 주지 원혜 스님은 1973년 공주 마곡사에서 일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포교원 포교부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주통일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스님은 부여 고란사와 강경 용암사, 서울 봉은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원혜 스님은 "스님들이 편안하게 사는 본사,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 금산사 제14대 주지에는 원행 스님이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 금산사는 "8월 22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원행 스님이 제13대에 이어 제14대 주지에 추대됐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3년 혜정 스님을 계사로 법주사에서 사미계를, 198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지구촌공생회 이사, 전북사암승가회 회장, 전북도경승지단장 등을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MB뽑은 것, 깨달음 위한 시련"

기로에 선 대한민국 비전 제시, 추미애 국회의원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Social well-being'을 이루는 것이다."

추미애 국회의원(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8월 25일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교미래사회포럼에서 '국회에서 바라보는 비정규직문제'를 주제로 위기와 희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에 비전을 제시했다.



추미애 국회의원.

추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 즉 우리가 개척해야할 30년의 과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생공영'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과학이 발달하고 인재교육이 잘 이루어질수록 일자리가 줄고 노동직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기술자가 하나의 발명을 이뤘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공이 아니다. 과학자들의 선행연구와 주변의 도움이 있었다.

모두의 힘이 더해진 획기적인 발명으로 창출되는 가치는 나눠야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 뽑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들으면 부처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려고 큰 실수를 하게 도와준 것 같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는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끝으로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월 740만원, 하위10%는 80만원이다.

이것은 8.68배의 차이로 작년 8.3배보다 높은 수치다"며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4대강 운하사업 등이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불자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주 기자

이웃불교국가 지도자 잇따라 조계종 방문

24일 칼미크 공화국 마리나 무카 베노바 의원 지관 스님 예방

칼미크 공화국의 마리나 무카 베노바 국회의원과 몽골의 아자 린포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잇달아 예방했다.

러시아 연방인 칼미크 공화국 마리나 무카 베노바 국회의원은 8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칼미크 불교계와 조계종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 마리나 의원은 한국 불교계의 지원을 요청했다.

몽골계로 러시아 연방 21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인 칼미크 공화국은 '초원의 진주'라 불리며 인구는 33만명 중 60%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나 의원은 지관 스님에게 "올해로 칼미크 공화국이 러시아에 편입한지 400주년을 맞았다"며 "한국불교와 칼미크 공화국의 불교가 더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불교지도자들이 칼미크를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칼미크 공화국 마리나 무카 베노바 의원.

같은 날 몽골 출신 티벳불교 스승인 아자 린포체도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아자 린포체는 지관 스님에게 "한국불교계가 동대문 몽골법당에 많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 미국에서도 한국불교의 위상과 정신이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 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 수련기간 : 2박 3일 ■ 수련인원 : 1~3명 ■ 수련비 : 150만원 ■ 개강일 : ① 2009년 9월 7일(월) 오후 1시 / ② 9월 10일(목) 오후 1시

스님이 직접 강의 하고 스님들만 교육 받는 유일한 곳

많은 스님들께서 최면 교육에 비싼 비용과 무리한 시간을 내어 최면을 수련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스님된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딱! 일년만 저렴한 비용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스님들이 최면을 완벽하게 시술 할 수 있도록 최면 강좌를 열겠다고 그것이 소승의 의무라고 생각 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벌써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150여분의 스님들이 미흡한 제 강좌를 들으시고 최면을 시술 하시어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소식에는 스님들께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정락 스님이 강의를 너무 쉽고 편하게 가르쳐준 덕분이라는 그말엔 송구 스러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소승은 오히려 150여 스님들께 감사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말을 제 가슴에 새길뿐입니다. 이제 약속의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특별 개인 지도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세미나와 수련회에만 열중하여 유마 최면 연구소 정회원님들께 고난이도 테크닉 전수와 각 회원님들이 삼생의 시공을 넘나드는 자기 최면 완성을 돕는데 진력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대상 최면 교육의 명가

≫ 많이 하는 질문

질문 1) 정말 2박 3일에 최면을 시술할 수 있나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답)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소승에게 그동안 150여 스님들이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매주 시간을 낼 수 없고, 신분 노출을 꺼리시는 30여 스님들께서 개인적으로 2박 3일 수련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있게 최면 시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내에 완벽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이 저의 교육 노하우라 할까요? 비법이라 할까요? 같은말 인가요? 하~하~하

질문 2) 2박 3일 교육이 끝나면 끝입니까? 제가 둔해서 한번 교육에 최면 시술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 걱정 하지 마십시오.
2박 3일 교육을 받으시면 시술을 하지 못할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 한다면 언제든지 무료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승에게서 공부하신 스님이 현실에서 최면을 활용하지 못하신다면 제 성질이 그런것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승이 책임져 드립니다.

일대일쇠 개인 지도

질문 3) 이론 공부가 부족하지 않은가요?
답) 네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최면 강좌를 시작하기 전 많이 고심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학문과 기능? 학문과 기능이라? 그리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기능을 우선으로 하자입니다. 한문의 심오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자면 수년의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스님들께서 불사와 포교를 하시는데 몇 년의 시간을 할애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 했고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깊은 학문이 필요 없듯이 최면 시술을 하는데도 깊은 학문적 이해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기능면에 치중 하였습니다. 학문적 욕구가 절실한 스님들이 계시면 서점에 가면 최면에 관한 서적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최면 이라는 검색어만 쳐도 최면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도 많은 자료가 있어 기능이 완벽하면 학문에 대한 갈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소승은 최면의 가장 기본적인 이로과 더불어 와벽한 최면 테크닉에 중점을 두고 강좌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및 수련회 안내

- 일시 : 2009년 9월 24일 (목요일) 오후 1시 - 9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소 : 유마최면연구소 수련원 (백련사)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 주제 : 1. 최면 시술상 고난이도 테크닉
  2. 시공(時空) 왕래 자기 최면의 완성
  3. 묻고 답하기
  ※ 자격 : 유마 최면 연구소 정회원 준비 관계로 9월 15일 까지 참가 신청한 회원님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 유마 홈페이지 / 참여 마당 / 자유 게시판에 기수와 법명을 올려 주십시오.
  Ⓑ 핸드폰 문자 ☞ 010-5100-6612로 기수와 법명을 올려 주세요.
  Ⓒ 인터넷이나 핸드폰 둘 중 하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비 : 8만원
  - 기타 : 모두 참석 하시어 최면 시술중 궁금중과 답답함을 해소 하시고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마 최면 연구소 연락 전화 032)349-0666 수련원 : 경기, 안성시 금강면 한운리 산 171번지 홈페이지 http:www.yuma119.com



가을 하늘 와있는 은해사

은빛 바다 위로 가을 내려앉네



하늘빛이 벌써 계절을 탄다. 하늘은 깊어가고 뭉게구름은 토실토실 살이 올랐다.
은빛 바다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 은해사. 은빛 바다 위로 가을 하늘이 다가와 있다.

먼저 부도밭이 보인다. 낮은 담장 사이로 문 없는 문이 열려 있고, 생각 끊고 앉은 부도들이 따뜻하게 앉아있다.
부도에 남은 이름과 이름 사이로 거미줄이 한가롭게 걸려있고, 사선을 넘은 작은 나비는 숲으로 날아간다.
부도의 이름을 따라 걷는 발길 위로 도토리가 뚝뚝 떨어진다.

도량엔 하얀 영가등이 걸려있다.
심검당 툇마루에는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있고, 법당 앞 괴불석주에는 불자들의 서원지가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다.
행자들이 바빠졌다. 저녁예불이다. 사물을 울리기 위해 행자 셋이 종루에 선다.
범종 소리가 극락의 뒤를 두드리고, 기다리던 사물 소리는 시방(十方)의 끝으로 날아간다.

심검당 문이 닫히고 툇마루엔 저녁이 찾아온다.
허공에도 길이 있는지 구름은 구름이 지나간 길로, 나비는 나비가 날아간 길로, 잠자리는 잠자리가 날아간 길로,
사물소리는 사물소리를 따라서 사라진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은해사는…

신라 41대 현덕왕 1년(809년) 혜철국사가 해안평에 창건한 해안사가 역사의 시작이다. 본존불로 아미타불을 모시는 미타도량으로, 해안사 창건 후 고려시대 1270년(원종 11년)에 홍진국사가 중창하였으나, 1545년 인종 원년에는 큰 화재가 발생해 사찰이 전소됐다. 이듬해 천교 화상이 지금의 장소로 법당을 옮겨 새로 절을 지었다. 1847년 헌종 13년에 창건 이래 가장 큰 불이 발생해 극락전을 제외한 모든 도량이 소실됐다. 헌종 15년 혼허 스님의 3년간의 중창불사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가족애 재확인하는 동자승들

홍법사 제1회 동자승 가족 템플스테이 개최

지난 4년간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배출한 개구쟁이 동자승 천진불들이 가족들과 함께 다시 모였다.

홍법사는 8월 22~23일 '제1회 동자승 가족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홍법사가 2005년부터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쳐간 17명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홍법사를 찾았다.

몇 년 사이 훌쩍 자란 동자승들은 오랜만에 만난 도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들도 그간 몰라보게 달라진 홍법사 도량을 둘러보는 등 단기출가 당시의 추억을 되짚었다.

이들은 예전 동자승 단기출가 당시로 돌아가 조석예불 도량석 108배 발우공양 풀 뽑기 울력 등으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동련(이사장 지현)이 신설한 우리가족 소개하기, 가족간 관계지유, 주지스님과의 추억회상 시간, 가족미술치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재확인했다.





부산 홍법사에서 8월 22~23일 열린 제1회 동자승 가족 템플스테이에는 홍법사 동자승 출신 어린이 17명과 가족들이 참가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여러분은 우리 불교의 미래인 만큼 동자승 선배로서 공부, 효도, 생활태도 등 모든 면에서 책임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동자승 가족 템플스테이'에서는 영유아 수기대법회와 4~6세 동자승 단기출가, 마을상좌 수계법회 등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의 범종단적 시행을 앞두고 가능성도 살폈다.

심산 스님은 "영유아 수기대법회를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불자'라는 인식을 자연스레 심어주고, 동자승 단기출가 및 마을상좌 수계법회로 인생의 고비마다 스님과 절에 의지할 수 있게 유도한다면 어린이 · 청소년 포교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법회라는 화두만 안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수기법회의 당위성이나 동자승 단기출가의 가치, 그리고 마을 상좌의 소중한 인연을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신행의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홍법사는 그동안 대웅전 불사 등으로 중단됐던 동자승 단기출가를 1년 2~3회 실시하고, 동자승 가족 템플스테이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홍법사는 지난 4월 대웅전 불사를 회향하고 적극적인 수행 ·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언어예술제 개최

10월 경주에서 열려

이솝우화의 재미를 뛰어넘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릴 불교 동화를 위주로 한 언어예술제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린다.

제5회 사단법인 동련 언어예술제는 조계종 포교원과 동련이 주최하고, 동련 동화구연회와 한국불교아동교육연구소 주관으로 10월 25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상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동화 구연(동화를 여러 가지 목소리와 얼굴표정, 몸짓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 연극, 인형극, 뮤지컬 부문으로 나뉘어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남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예선은 5분 내외의 동화 구연 녹음테이프(CD, MP3 파일 등)와 함께 15분 내외의 연극, 인형극, 뮤지컬 등 동영상파일 및 원고를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동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우수자는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에게 상장 및 연구지원금 총 180만원이 시상된다. (051)864-4569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신임회장 김윤순

"찬불가는 구절구절이 모두 법문"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부산지역 불교합창단을 이끈다니, 정말 부담스럽고 큰 자리에요. 저를 뽑아주신 여러 합창단장님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4일 취임식을 앞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김윤순(52, 대법심) 신임회장은 "부산지역에는 40여 사찰 및 불교합창단이 있지만, 연합회에 가입된 곳은 25개에 불과하다"며 "숨어있는 여러 합창단을 발굴해 화합을 도모하고, 다함께 모여 더욱 여법하게 음성공양을 올리도록 발벗고 뛰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범어사 금강암 금소리합창단장으로 4년간 합창단을 성공리에 이끌어 왔다. 김윤순 회장은 음악을 전공하지도, 다른 합창단을 지도해본 적도 없지만 그저 음악을 사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길 좋아하는 평범한 불자였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우연히 선배 언니를 따라 금강암을 찾은 것을 인연으로, 12년 전 금소리합창단 창단 때 단원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절에 가도 조용히 뒷자리에 숨어서 조용히 기도하고, 법회가 끝나면 누가 알아볼까봐 부끄러워서 얼른 내려갔어요."

수줍음 많고 소극적이던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끈 것은 찬불가였다.

합창이란 장르는 어느 한 사람만 빼어나게 노래를 잘 해서는 소용이 없다. 모두의 음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듣는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소극적이던 김 회장도 여러 합창단원 도반들 속에서 남과 소통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웠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법당 맨 뒷줄에 숨어있던 이름 모를 보살은 합창단장이 됐다.

"어떤 일이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금방 실천이 안 되고, 말로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도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이나 스님의 법문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법문 중에 조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찬불가는 부르다보면 너무나 와 닿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죠. 찬불가는 가사 구절구절이 모두가 법문이거든요."

김윤순 회장은 "찬불가는 대중가요나 가곡 등 다른 장르의 음악보다 몸에 빨리 와 닿는다"고 말한다. 모든 찬불가는 스님의 법문과 똑같아 노래를 부르는 순간순간이 공부고, 또 나눔이기 때문.

누구보다 찬불가 속 불법 배우기를 좋아하고, 또 음성공양을 귀하게 여기는 김 회장이기에 이번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으로서 보낼 2년의 임기는 더욱 절실하다.

"오는 12월에 전국불교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우선은 이 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란 직함이 부끄러울 만큼 자격도 없고 단지 '부처님빽'으로 맡았는데요. 예전의 저처럼 부끄러워 마음속으로만 노래하는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신다면 아마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합창단을 권유할 만큼 용기가 생길 겁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051) 867-0501

박지원 기자

북한이탈주민 위한 여름캠프 개최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9~30일 통영에서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봉)은 8월 29~30일 통영에서 '새터민 가족관계개선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을 일컫는다. 현재 부산에는 600~800여 새터민이 거주하며, 그 중 약 28%에 해당하는 180여 명이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사하구에 거주 중이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중인 새터민지원 행사모습.

이번 행사에는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새터민 정신건강지원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새터민과 그 가족 3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수상안전교육, 공동체 항해훈련,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 모터보트, Fun수영, 레크리에이션, 케이블카 탑승 등 가족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박준오 사회복지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2~3개국을 거쳐 탈북하는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 자본주의 사회의 부적응 문제 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동안 해보지 못한 새로운 레포츠에 도전하고, 자연 속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외에도 사하구에 정착한 지 6개월 미만의 새터민에게 주택계약, 기초행정업무 등을 돕는 '정착도우미지원사업'과 1년 이상 거주한 새터민에게 문화체험의 폭을 넓혀주는 '정주도우미사업',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회복을 위한 '정신건강지원사업' 등 단계별 새터민후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051)264-9033

박지원 기자

불교문화연구원 설립 초읽기

29일 문수당에서 기념학술세미나 개최

부산 지역 최초의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산)는 8월 29일 부산 동명불원 문수당에서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추진발기인대회'를 열고, 기념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은 불교문화를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세워진다.

부산지역 불교계는 연구원이 설립되면 전통적인 불교문화의 문화산업적 활용방안 연구와 경쟁력 있는 불교문화상품이 개발돼 사찰 및 사회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발기인대회에는 설립추진위원장 정산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추진위원 소개, 추후 활동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사찰음식의 가치와 대중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기념학술세미나에는 홍승 스님(사찰음식연구회장)과 '사찰음식의 대중적 보급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또, 이을상 교수(동의대 문화콘텐츠연구소)와 정영숙 원장(약초양념연구원)은 각각 '사찰음식의 생태 · 철학적 고찰'과 '한국약선요리- 밥상이 약상'을 발표했다.

학술발표 후 동명불원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홍승 스님이 직접 요리한 다채로운 사찰음식을 선보인 사찰음식 시식회가 열렸다.

정산 스님은 "우리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문화콘텐츠"라며 "우수한 불교문화원형을 발굴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산업화해 불교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626-4337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힘든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휴대폰’ 사용 강좌

어르신들 무료교육 실시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정보화와 세대 간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휴대폰 활용교육을 진행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은 8월 13~21일 복지관 2층 컴퓨터교실에서 어르신 150명이 함께한 가운데 ‘KT 어르신 대상 휴대폰 사용법 무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KT전북서부 IT서포터즈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1:1 휴대폰 활용교육을 시행했다.

참가 어르신들은 교육을 통해 문자메시지 보내기, 사진촬영 방법 등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교육 받았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문자보내기 경진대회’를 열어 5회에 걸쳐 배운 휴대폰 기능을 확인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무공 스님은 “앞으로도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보격차 해소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활 · 나눔 캠프

장애우들 송광사서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새로운 삶의 의욕과 재활의지를 북돋고 나눔으로 함께하는 사랑의 하모니가 펼쳐졌다.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정심원(원장 우용호)은 정신지체장애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한 여름캠프를 8월 20일 완주군 동상계곡에서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물놀이와 개인별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우용호 원장은 “이번 행사는 정심원 생활인들이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의욕과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는 좋은 기회 였다”며 “그동안 우리 시설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함께해왔던 자원봉사자들과 보낸 시간이라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이 자리를 빌어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차별 올바르게 인식 하자”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불교아카데미, 종교평화 위한 강좌 실시

개신교 교세가 강한 광주전남지역에서 종교차별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한 강좌가 열렸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전우희)와 함께 8월 22~23일 자비신행회 법당에서 종교평화를 위한 강좌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사찰 및 신행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성오 스님은 격려사에서 “현재 종교편향과 불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이제는 불교인 하나하나가 불교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불교 호법전문활동가를 양성하고 조직화 하기위해 실시된 이번 강좌는 정웅기 처장(불교아카데미 상임연구원)의 ‘국가 복음화 전략과 민족문화경영전략’, 류상태 목사(예수동아리교회)의 ‘무례한 종교, 위험한 대한민국’, 박광서 대표(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의 ‘종교차별 금지



8월 22~23일 광주 자비신행회 법당에서 열린 종교평화를 위한 강좌에는 1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해 높은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개정법령의 이해와 실제’, 배병태 국장(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종교차별 대응과 감시활동’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웅기 처장은 “보수 개신교계 지도자들이 직 · 간접적으로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인의 삶에 개신교 세계관을 투영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운동의 총화가 ‘국가복음화운동’”이라고 규정하고, “민족의 문화와 역사의 폄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불교 역할을 정립해야 불교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상태 목사는 “개신교가 배타적 구원관을 극복, 이웃종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공격적인 선교정책에서 벗어나야 하며, 배타적 유일신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류 목사는 이어 불자들에게 “그리스도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인들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서 교수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없이 선진국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헌법, 인권 수호에 공직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배려와 관용의 문화 확산’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불교가 인류역사에 이바지한 위상을 바로 인식하고, 과학과 미래, 생태, 평화의 종교로서 불교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남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여 국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선진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민망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병태 사무국장은 “시민들에게는 관심과 캠페인, 여론화가 필요하며, 법원에는 종교편향과 침해사례에 대한 공익소송의 필요, 국회를 향해서는 종교차별금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정부를 향해서는 국가인원위원회,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와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퀴즈로 풀어보는 종교차별 뒤집기, 팀별 토론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칠월칠석’ 아주 특별한 법회

26일 광주 법림사, 독거어르신 초청 행사 개최

불교의 전통명절중 하나인 칠월칠석에 아주 특별한 법회가 진행돼 화제다. 광주 법림사(주지 무진)는 8월 26일 칠월칠석에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초청해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8월 26일 광주 법림사에서 열린 독거어르신 초청 행사 모습.

20여 독거어르신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칠월칠석 기념법회와 함께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실버연예예술협회 회원인 서명희, 임금덕, 강명숙, 진달래씨 등의 대중가요와 민요공연, 그리고 각설이 공연이 이어져 참석한 독거노인들을 위안했다.

이날 참여한 독거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하는 문화적 소외대상으로 대해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집에서 사찰까지 한분씩 모시고 이동해 행사에 참여했다.

무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법당이 종교적으로 엄숙한 공간이지만, 대중을 위해서는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한다”며 “매년 불교 명절에는 사찰에서 문화공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즐거운 세상 밑거름 되어라”

나주 심향사, 농촌 어린이 전통문화 행사

나주지역 다문화가정 및 농촌 어린이를 위한 전통문화체험이 펼쳐졌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에서는 8월 21~22일 지혜나눔실천회(회장 김백경) 주최, 심향사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및 농촌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30여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부모님에 편지쓰기, 전통사찰 배우기, 전통문양 그리기, 구연동화(부모은중경), 비누 만들기, 팥빙수 만들어 먹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이 진행됐다.

김백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적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즐거운 세상을 가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21~22일 나주 심향사에서 열린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모습.

신아현(11) 어린이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지금은 친구, 동생들과 즐겁게 지내게 됐다. 특히 <부모은중경> 그림자 구연동화를 보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이리불교대학 문순복 가릉빈가합창단장

“자원봉사는 포교의 원천”

익산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가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사장을 빛나게 하는 합창단이 있다. 익사지역 불교유일의 합창단인 이리불교대학 가릉빈가합창단(단장 김진수, 회장 문순복)이다.

가릉빈가합창단은 창단이후 20년간 매주 1회 이상 익산관음사 이리불교대학에서 꾸준한 연습을 해왔다. 그 결과, 지금은 각 사찰의 법회는 물론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고 초청 받는 단골손님이 됐다.

합창단은 매주 관음사 일요법회와 매월 초하루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의 일상법회와 군법당 법회 초파일 백중 등의 연중행사를 비롯해 지역 대내외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펼쳐왔다.

무엇보다 가릉빈가합창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불교의 인연법을 알고 실천하는 단원들의 열정.

아름다운 소리로 불보살님과 대중에게 공양하기 위해 음성공양의 원력으로 모인 단원들 하나하나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음률을 고르며 연습에 집중하는 모습은 합창삼매 그 자체이다.

가릉빈가합창단은 음성공양 외에도 매주 지역노인복지회관과 익산 자원봉사센터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칭송이 자자하다.

꾸준한 자원봉사활동이 포교활동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믿기 때문이다.

익산시 ‘문화사랑봉사단’에서의 문화유산 해설활동도 두드러져 최근 익산미륵사지 사리장엄 특별전에서도 한달 간의 전시기간 중 해설을 담당해 주변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다.

늘 불보살님을 찬탄하는 찬불가를 부르며 생활해서인지 합창단원들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날 줄 모른다. 합창단의 음성공양도 포교의 일환이라 믿고 무더위에도 연습에 열중하는 단원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롭고 화목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가릉빈가합창단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합창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다양한 찬불가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사암의 스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합창단 운영의 특성상 많은 경비가 소요됨으로 인해 단원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합창단의 규모가 늘어나면 교도소와 군법당의 합창공연 횟수도 늘리고 다양한 곳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찬불가를 들려줄 계획이다. 011-9814-5686



합창연습 후 함께한 가릉빈가합창단 임원. 왼쪽에서 3번째가 문순복 회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우리는 언제 깨달음의 연못에 몸을 던질 것인가?

⑳ 깨침의 서기가 솟구친 각연사

각연사는 속리산국립공원에 포함되는 칠보산(778m)과 보개산(780m)의 깊숙한 계곡이 합쳐지는 곳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창건 설화가 전하는 유서 깊은 고찰입니다.

신라 법흥왕 때 유일(有一) 대사가 쌍곡리에 절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매일 대팻밥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고 유심히 관찰해 보니 밤마다 수 백 마리의 까치들이 날아와 대팻밥을 물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까치들을 따라갔는데 울창한 산길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놓쳐 버렸습니다. 낙심하고 돌아서려는데 발아래 대팻밥이 일렬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이하게 여기고 그 길을 따라가 보니 숲 속에 연못이 있었고 까치들은 대팻밥으로 그 연못을 메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일 대사는 다른 스님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함께 연못을 찾아 온 스님들이 "이곳이야말로 천하의 명당"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연못 자리를 메우고 절을 짓기로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연못 속에서 광채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연못 속에 석불 한 구가 잠겨 있었습니다. 급히 꺼내보니 아주 아름다운 비로자나부처님이었습니다. 그런 기이한 일은 절을 더 정성스럽게 짓도록 했고 마침내 공사를 마치고 절 이름을 '각연사(覺淵寺)'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이 연못속의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각유불어연(覺有佛於淵)'의 의미를 절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지금 비로전에 모셔진 비로자나 부처님(보물 제433호)이 바로 그 부처님입니다.

깨달음의 인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인연을 만나고 있을까요? 그 인연은 뭔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 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순간순간 닥쳐오는 모든 경계가 다 깨달음의 길로 이어져 있을 것입니다. 업장이 두터워, 탐착심이 치성해, 분별심이 쉬지를 않아 수시로 다가오는 깨달음의 인연을 못 낚아채는 것일 뿐입니다. 선지식의 한 말씀과 닭 우는 소리와 발에 차이는 돌 소리에 귀가 번쩍 열리고 마음이 홀연 밝아지는 기연은 간절한 구도심이 오매불방 이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에 끌리고 저것을 보면 저것에 끌리는 중생심을 고쳐 성인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 수행일 것입니다. 각연사의 창건설화도 지극한 정성으로 불사를 하려는 스님들에게 영지를 점찍어주는 부처님의 가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건된 각연사를 중창한 스님은 통일(統一) 대사입니다. 자세한 행적이 전하지 않는 통일 대사는 고려초기의 고승으로 각연사에 그 부도와 탑비가 전합니다. 절 마당 어귀에는 여러 석조부재들이 널려 있는데 그 가운데 제법 우람했을 부도의 옥개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절 위 쪽 너른 묵밭에 목을 잃고 놓여진 귀부(龜趺)가 어느 고승의 탑비였다면 이 옥개석은 바로 그의 부도 중 일부가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각연사도 긴 역사를 지내오면서 많은 유물을 잃어버렸고 그 기록조차 희미해진 것입니다.

절 앞마당에서 계곡 쪽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300여 미터를 간 곳에서 길가에 서 있는 두 기의 석종을 만납니다. 왼쪽 키가 1미터 조금 넘을 정도의 석종은 몸에 '선적당탑(善跡堂塔)'이란 글씨를 뚜렷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적당이 어떤 스님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의 석종은 키가 조금 더 큰데 글씨는 읽을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석종을 관문으로 삼아 지나갑니다. 다시 300여 미터를 오르다가 왼쪽이 훤한 곳에 이릅니다. 그 훤한 곳을 들여다보면 개울 건너 당당하게 서 있는 통일대사탑비(보물 제1295호)가 손짓을 합니다. 선이 굵은 귀부와 화려한 이수로 장식된 탑비는 천년의 세월을 말해 주는 듯 몸돌의 글자들이 대부분 지워졌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몸돌에는 3500여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판독 가능한 글자는 260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정도를 읽음으로써 탑비의 주인을 알 수 있고 시대를 알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귀부는 어김없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데 인상이 매우 강렬합니다. 비석을 떠받치는 귀부는 원래 거북형상이었습니다. 거북이는 장수를 상징하므로 귀부 위에 설치하는 비의 영구한 유지를 기원하는 마음에 귀부를 조각 했습니다. 그 연원은 당나라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온전한 거북의 형상이었다가 나중 머리를 용으로 대체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의 머리를 거북의 몸에 결합시킬 생각을 한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은 물속에 사는 거북의 신령스러움과 물과 땅과 하늘을 두루 통하는 용의 신통 자재함을 빌어 탑비의 영원한 보전과 그 주인의 덕화가 세세생생 이어지길 염원하는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이수(螭首) 역시 그런 비원의 표현입니다. 허공에서 몸돌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하는 이수에 교룡(蛟龍, 뿔이 없는 용)을 새긴 것은 비석 자체의 신령스러움을 극대화 하고 그 주인의 행화를 지키려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귀부와 이수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조성된 탑비들은 대개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엽, 그러니까 선종의 화려한 문이 열리고 선불교가 흥성하던 때였습니다. 왕권국가에서 구산선문이 열리고 우렁찬 법문이 산하를 뒤흔들던 그 시절, 큰 스님들이 왕의 귀의를 받고 중생의 애환을 어루만지던 때의 고승들이 그 높은 덕행을 화려하고 웅장한 탑비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통일 대사의 탑비는 마모가 심해 그 주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지는 못합니다. 통일 대사는 신라출신으로 속성이 김씨입니다. 중국에서 구법 수행을 하고 귀국해 왕실에서 불법의 진리를 강론했다고 합니다. 이는 왕실과 민초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던 고승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던 대사가 입적하자 960년 무렵(고려 광종 11년)에 왕이 통일대사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비문은 한림학사 김정언이 찬했습니다.

고려초기의 직선적 힘이 느껴지는 탑비를 여러 바퀴 돌면서 눈 새김을 하다가 부도가 모셔진 능선을 오릅니다. 능선 오르는 길은 아주 가파릅니다. 탑비를 보기위해 계곡을 건너간 그 자리에서 계곡을 건너지 않고 45도 각도로 좌회전을 하면 그 가파른 비탈이 부도로 가는 길입니다. 언뜻 지나치면 거기 길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나무에 걸쳐 놓은 빨간 리본을 이정표 삼아 땀을 뻘뻘 흘리며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르막 능선을 한 참 간 곳에서 통일 대사의 부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땀을 한 바가지나 흘리면서 올라 왔지만 부도 앞에 서면 온 산의 바람이 다 그리로 몰려오는 듯합니다. 탑비의 영역이 그랬던 것처럼 부도의 영역도 말끔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2008년 정비 불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도는 석재들이 이리저리 흩어진 채 오랜 세월 그 아름다움을 잃고 있었습니다. 1965년에 부도 자리와 석재들이 발견돼 보존되다가 1982년 복원돼 오늘에 이릅니다. 지금은 거의 온전한 형태를 되찾았지만, 상륜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부도가 통일 대사의 것이라는 추정은 그 아래 계곡에 서 있는 탑비에 의한 것입니다.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며 문양이 화려하지 않지만 매우 기품이 있습니다. 250㎝ 가량의 키에 하나의 석재로 이뤄진 지대석과 안상석이 연잎을 새긴 복련석을 받치고 있습니다. 귀꽃이 남아있는 것은 매우 선명하고 화려한데 세 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하나는 파편을 간신히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통일 대사의 부도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채로운 것은 부도 앞에 설치한 도난방지 시설입니다. 부도보다 훨씬 높은 키의 쇠파이프에 달린 무인 카메라가 눈을 부도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집열판이 설치됐습니다. 절에서 먼 곳이라 관리가 수월치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태양열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부도를 보존하는데 불가피한 시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도 바로 앞에 설치된 이 장치들이 부도의 아름다움을 감상 하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도 한 통속의 일인가 봅니다.

까치가 줄이어 절터를 점지해 주고 여러 고승들이 덕화를 베풀던 도량 각연사. 지금은 마당가에 국립공원에서 경내지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반세기 가까이 제약을 받아 온 사찰의 자주성을 이제는 되찾자는 것입니다. 왕의 귀의를 받았던 천년 전의 고승은 그 고준한 법향을 전해주고 있는데 중생계는 아직 깨달음의 연못(覺淵)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 대사의 부도 앞에서 합장하고 서서 생각해 봅니다. 일체 중생이 깨달음의 연못에 풍덩풍덩 몸을 던질 그 날은 언제일까를.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각연사에서 1km 남짓 떨어진 산능선에 서 있는 통일 대사 부도와 보안 장치. 우측 사진은 통일 대사 탑비와 귀부의 용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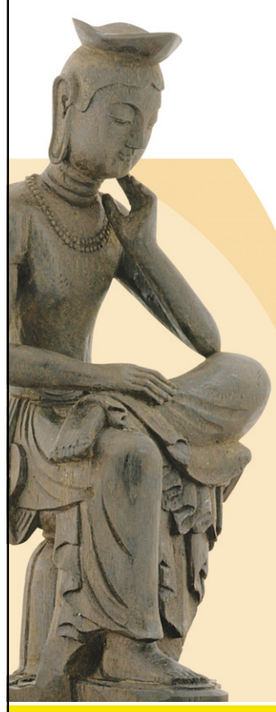
창건 설화 속 비로자나 부처님 단아한 모습 '압권'

통일 대사 탑비 귀부와 이수 조각 뛰어나… 부도는 가파른 능선위에 있어

부도 앞 도난방지시설 필요하지만 조망엔 '방해'

2010 불교달력출시
국6절 · 12절 · 두달 · 차걸이 · 미니 · 다이어리 · 탁상 · 한지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달력가격 대폭인하 !!!

4호 산사로가는길 | 8호 관음도 | 10호 동자승의하루 | 16호 산사에피는연화 | 41호 선의세계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 [공장직영] ※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E-mail dongjin8888@naver.com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 침향/주목/염주/염주주머니/양초/향
• 사경책/사경지/한지108사경/우리말사경
• 4· 8용품/등표/전선 · 전구/청사초롱
• 공단등/바림등/만월등/봉축 · 생일카드
• 예수재용품/영가옷/탑다라니/다포
검색창에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1

지옥 중생 다 성불 할 때까지

[원문]
地藏大聖威身力(지장대성위신력)
恒河沙劫說難盡(항하사겁설난진)
見聞瞻禮一念間(견문첨례일념간)
利益人天無量思(이익인천무량사)
–흥국사 명부전

[번역]
지장대성 위신력은
항하사 겁을 설해도 못 다함 일세
잠시 동안 보고 듣고 절하더라도
인간 천상 이익 됨이 한량없도다.

[선해(禪解)]

올해는 유난히도 이 나라에 슬픈 일들이 많았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서거를 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확연히 그 궤를 달리한다.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한 분은 아흔 가까이 사시다가 지병으로 세상을 떴다. 어차피 '죽음이란 둘이 아닌 하나'다. 인간은 그 누구도 생로병사의 아픔을 벗어날 수 없다. 부처님이 출가를 해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로병사의 아픔을 모두 겪으며 남북화해의 정상 회담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자신의 민주적인 원(願)을 모두 이루고 세상을 떠난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모두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기 라디오 연설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보내고 맞이한 새로운 국면(局面)에 대해 "역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직감한다. 이제는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어 여 야 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왜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발언을 했을까? 여기에는 일종의 자성적 반성이 깔려 있다. 아니 진작 정치권은 그렇게 해서야 옳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일말의 계기가 있다. 이나마 이 대통령이 자성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젠 정말 화합과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그는 절감했을 것이다.

참으로 시대는 많은 변천을 거듭했다. 국민의 마음과 눈도 이제 열려 있다. 옛날 그 무지 했던 민초(民草)가 아님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해온 일련의 정책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닫아 버리고 일사천리로 자신의 정책만을 펴왔던 정책을 버리고 이젠 정말로 지역, 계층, 세대를 아우르고 불필요한 종교적 편향에서 벗어나 종교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보장해야 한다. 이젠 정말 통합과 소통의 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가까운 서울 근교 사찰이다. 흥국사는 한국불교가 왜색불교를 몰아내고 선불교(禪佛敎)중심의 조계종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찰로서 1954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유시의 발단이 된 곳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사찰에 들렀다가 아이의 기저귀가 빨래 줄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왜색불교인 대처승을 몰아내는 정화유시를 발표, 한국불교정화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어쩌면, 이곳은 암울한 한국불교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절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론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절이라 할 수 있다.

흥국사의 창건의 역사는 깊다. '미타전 아미타불 복장 연기문'에 수록된 것을 보면 1,300 여 년 전 신라문무왕 원년에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원효 대사가 북한산 원효암에서 수행을 하다가 북서쪽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려 왔다가 서기를 발하고 있던 석조 약사여래(藥師如來)부처님을 본 후, 인연도량이라 생각해 본전(本殿)에 약사부처님을 모시고 '상서로운 빛이 일어난 곳이라 앞으로 많은 성인들이 배출될 것이다' 하고 절 이름을 흥성암(興聖庵)이라 지었다고 돼 있다. 이후 조선 숙종 때 중창을 하고 영조 시대에 크게 발전을 시켰다고 돼 있다.

지장보살 원력 우리 삶속에서 실현될 때 불국정토
마음 밝으면 극락 어두우면 지옥, '둘 아님' 알아야

특히 영조 대왕은 미타전 아미타불을 개금 중수했으며 생모 숙빈 최씨의 묘원인 소녕원에 행차했다가 많은 눈을 만나 이를 피해 이곳에 들러 하루 밤을 머문 뒤 아침에 일어나 한편의 시를 적었는데 '朝來有心喜 尺雪驗豊徵: 아침이 돌아오니 마음이 기쁘구나. 눈이 한 자나 쌓였으니 풍년이 들 징조로다'라는 시구(詩句)를 편액(扁額)으로 만들어 친히 하사하며 약사전을 중창, 왕실의 원찰이 돼 왕실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기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후 많은 스님들이 중창을 하다가 관선, 법헌 스님에 의해 후불탱화와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조성했다. 특히 이 사찰에서 유명한 것은 설법전으로서 정면 7칸 측면 8칸 규모의 H자형 팔작지붕 건물이다. 이곳은 조선후기 흥국사가 불화를 조성하는 불모(佛母)들의 근거지인 경산화소(京山畵所)로 불려질 때 이 건물에서 많은 불화를 조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흥선대원군이 쓴 '흥국사(興國寺)'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내부에는 근래까지 만월보전에 봉안했던 팔상탱과 괘불, 천수천안관음보살좌상, 지장탱, 신중탱, 범종 등을 봉안하고 있다. 이 밖에 흥국사는 약사기도처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곳이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출가(出家)한 딸이 하나 있었다. 속가의 아버지인 이성계가 병이 나자 약사여래를 바로 이곳에 조성했다. 이 후 흥국사는 신병으로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절에서 치성을 올리면 건강을 회복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시왕전의 내부에는 중앙의 목조지장삼존을 비롯해 시왕, 판관, 귀왕, 사자, 장군 등의 명부권속을 배치했다. 이러한 존상 뒤로는 1792년 조성한 지장탱과 역시 같은 해에 조성한 시왕탱이 봉안돼 있는데 시왕전의 주련은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담고 있다.

'지장대성위신력 항하사겁설난진: 지장대성 위신력은/ 항하사 겁을 설해도 못 다함 일세.'

원래 지장보살은 도리천궁에서 석가여래의 부촉을 받고 매일아침 선정에 들어 중생의 근기(根機)를 관찰, 석가세존이 입멸한 뒤부터 미륵불이 출현 할 때까지 몸을 육도(六度)에 나타내어 천상에서 지옥까지 고통에 빠진 일체중생을 다 구원하고 그 모두가 성불한 후에 스스로 성불하겠다고 했던 대자대비(大慈大悲)한 보살이다. 여기에서 '항하사'란 갠지스 강의 모래라는 뜻으로, 무한히 많은 것 또는 그런 수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으로서 지장보살의 원력은 그 항하의 모래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견문첨례일념간 이익인천무량사: 잠시 동안 보고 듣고 절하더라도/ 인간 천상 이익 됨이 한량없도다.'

이러한 지장보살을 중생들이 잠시 동안이라도 보고 듣고 절하더라도 큰 공덕(功德)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원래, 인간의 마음속에 극락과 지옥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으면 그것이 지옥이요, 밝으면 극락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몽환포영(夢幻泡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이다.

세상에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으며 비굴한 죽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의 죽음을 두고 어찌 일설(一說)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실로 우리 중생들은 그들이 가졌던 권력과 명예, 무한한 물질을 가질 수 없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생이란 '한갓 꿈이며 환에 지나지 않고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몽환포영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1

세상 즐거움에 집착하지 마라

[원문]

心瞥起 卽魔攝. 法身本來淸淨無受. 只緣迷故 不覺不知 因玆故 妄受報. 所以有樂着 不得自在. 只今若悟得 本來身心 卽不染習. 若從聖入凡 示現種種雜類等 自爲衆生. 故聖人逆順皆得自在 一切業拘他不得 聖成久. 有大威德 一切品類業 被他聖人轉天堂地獄 無奈何他. 凡夫神識昏昧 不同聖人內外明徹. 若有疑卽不作 作卽流浪生死 後悔無相救處. 貪窮困苦皆從妄想生 若了是心 遞相勸勉 但無作而作 卽入如來知見.

"임종할 때에도 전혀 상(相)을 취하지 않으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털끝만치도 일으키기만 하면 악마의 경계에 이끌리게 되느니라. 법신은 본래 청정해 받아들일 것이 없는데 미혹한 까닭에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이로 인해 업보를 쓸데없이 받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세상의 즐거움에 집착하느라 자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라. 지금이라도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습(習)에 물들지 않느니라. 성인의 경지에서 범부의 경지로 들어가 온갖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중생을 위한 까닭이니라. 성인은 역(逆: 악행), 순(順: 선행)에 자재하므로 일체의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느니라. 성인이 된 지 오래돼 큰 위덕이 있으며, 일체 종류의 업이 성인으로 인해 움직이므로, 천당이나 지옥이 성인을 어찌하지 못하느니라. 범부는 신식(神識)이 어리석어 사리에 어두우므로 성인처럼 안과 밖이 확실하게 밝지 못하니 의심이 생기더라도 의심하지 말지니라. 의심을 하게 되면 생사의 바다를헤매느라 후회를 해도 구제할 길이 없느니라."



日 무로마치(室町, 1338~1573년) 시대 명조(明兆) 作 달마도(동복사 소장).

[해설]

임종할 때에 극락에 태어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임종할 때 한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정진했던 분들은 한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진하지 않은 분들은 살면서 못된 짓 한 것만 사후세계에서 드러나니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 꾸준히 정진한 분들은 한 생각 놓치지 않고 가니까 극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생각도 분별이기 때문에 오직 한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염불만 놓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극락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법신(法身)이나, 도(道)나, 불성(佛性)이나, 마음이나 똑같은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 아닌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고 죽음도 없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근본실상 반야자리는 본래 청정해 받아들일 것이 없는데 미혹한 까닭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이로 인해 업보를 쓸데없이 받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세상의 즐거움에 집착하느라 자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수행이나 출가를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습(習: 습기, 잘못된 습관)에 물들지 않느니라. 성인의 경지에서 범부의 경지로 들어가 온갖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중생을 위한 까닭이니라.'

도(道)를 깨치면 습기가 없어진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근본실상은 체험을 했지만, 전생의 업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업을 녹이는 수행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임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백생 동안 보살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과거로부터 많은 수행을 하셨고, 마지막 성불(成佛)의 경지까지 가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익혔던 습기가 모두 끊어졌겠지요. 도(道)를 깨쳐 우주와 하나 되는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부처님 경지, 모양이 없는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우주의 근본자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업(業)을 다 녹이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계속 수백 생 동안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습기가 다 끊어져 나간답니다. 우주와 하나가 돼 자비의 차원에서 온갖 화현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몸을 나투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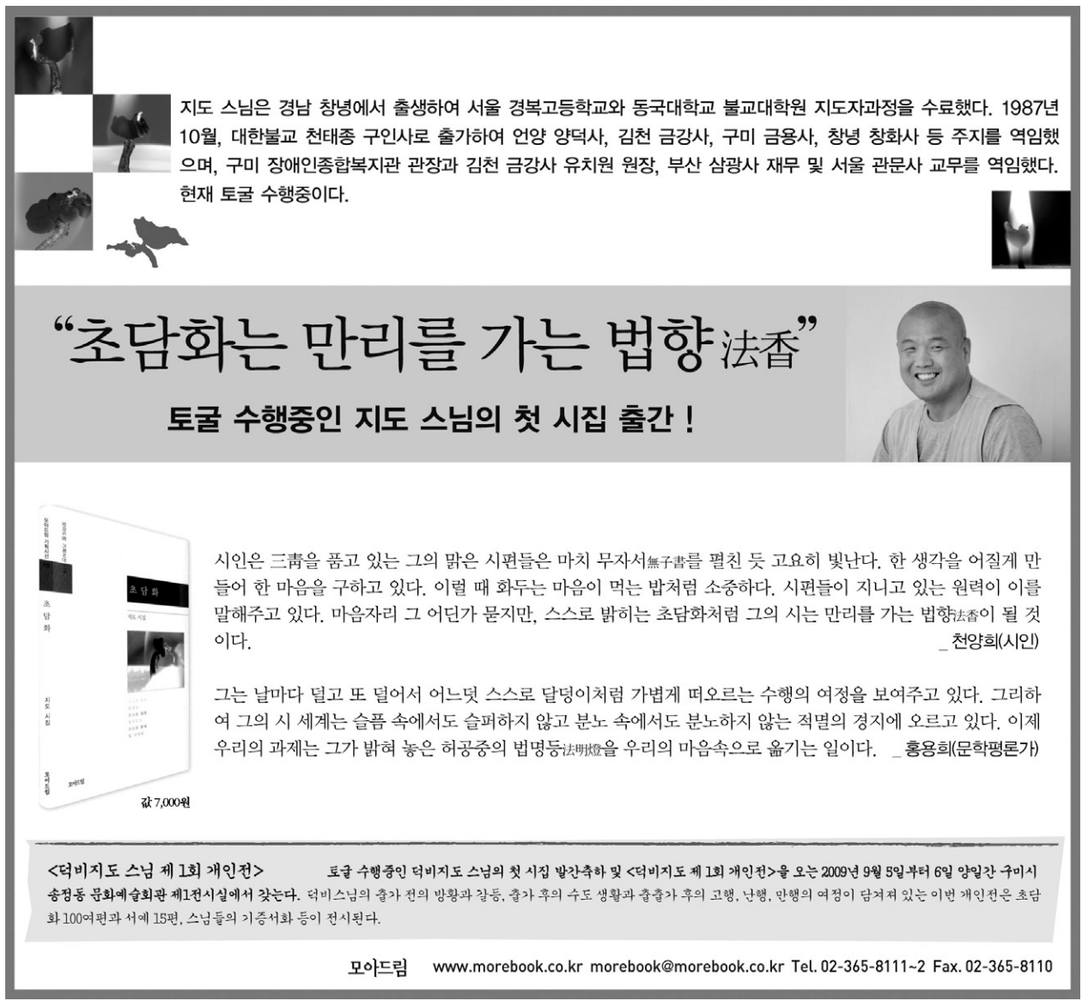
'성인은 역(逆: 악을 짓는 것), 순(順: 선을 이루는 것)에 자재하므로 일체의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느니라.'

중생은 업(業)에 끄달려 살지만 성인은 업(業)을 자유자재로 운용하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인은 오온 경계에서 벗어나 무애 자재하게 몸을 나툴 수 있는 육신통(六神通)을 쓰기 때문에 대자유인, 대해탈자라 합니다.

'범부는 신식(神識: 의식, 심식)이 어리석어 사리에 어두우므로 성인처럼 안과 밖이 확실하게 밝지 못하니 의심이 생기더라도 의심하지 말지니라. 의심을 하게 되면 생사의 바다를 헤매느라 후회를 해도 구제할 길이 없느니라.'

성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로 보고 가지만, 우리는 안과 밖을 따로 보잖아요. 분별하는 세계란 얘기죠. 의심이 생기더라도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지도 스님은 경남 창녕에서 출생하여 서울 경복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 10월,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로 출가하여 언양 양덕사, 김천 금강사, 구미 금용사, 창녕 창화사 등 주지를 역임했으며, 구미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과 김천 금강사 유치원 원장, 부산 삼광사 재무 및 서울 관문사 교무를 역임했다. 현재 토굴 수행중이다.

"초담화는 만리를 가는 법향法香"
토굴 수행중인 지도 스님의 첫 시집 출간 !

값 7,000원

시인은 三靑을 품고 있는 그의 맑은 시편들은 마치 무자서無子書를 펼친 듯 고요히 빛난다. 한 생각을 어질게 만들어 한 마음을 구하고 있다. 이럴 때 화두는 마음이 먹는 밥처럼 소중하다. 시편들이 지니고 있는 원력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마음자리 그 어딘가 묻지만, 스스로 밝히는 초담화처럼 그의 시는 만리를 가는 법향法香이 될 것이다. _천양희(시인)

그는 날마다 덜고 또 덜어서 어느덧 스스로 달덩이처럼 가볍게 떠오르는 수행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시 세계는 슬픔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분노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적멸의 경지에 오르고 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가 밝혀 놓은 허공중의 법명등法明燈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옮기는 일이다. _홍용희(문학평론가)

<덕비지도 스님 제 1회 개인전> 토굴 수행중인 덕비지도 스님의 첫 시집 발간축하 및 <덕비지도 제 1회 개인전>을 오는 2009년 9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구미시 송정동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갖는다. 덕비스님의 출가 전의 방황과 갈등, 출가 후의 수도 생활과 출출가 후의 고행, 난행, 만행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이번 개인전은 초담화 100여편과 서예 15편, 스님들의 기증서화 등이 전시된다.

모아드림 www.morebook.co.kr morebook@morebook.co.kr Tel. 02-365-8111~2 Fax. 02-365-8110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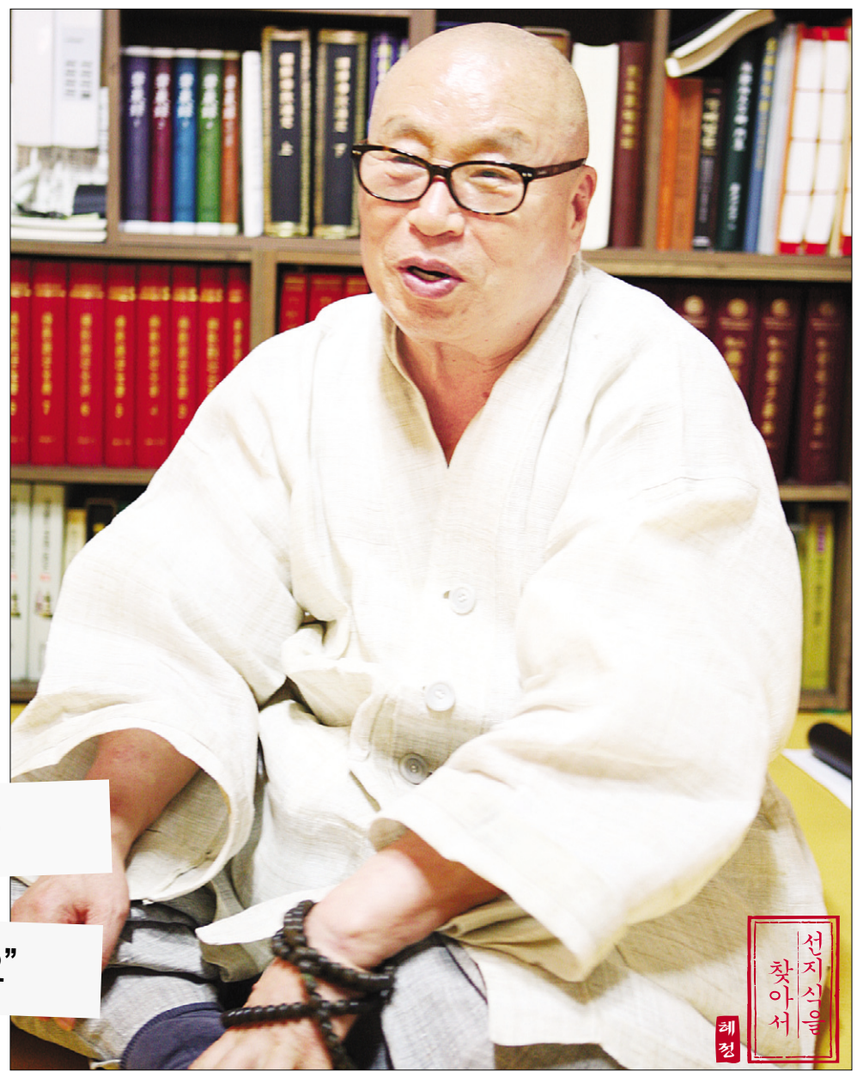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수행엔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원력' 있어야

문수사 회주 혜정 스님



20년 넘도록 매주 일요일마다 등산객에 법문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부처라 생각하고 공경하세요"

절기상으로는 '찬 기운에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處暑)이건만 한 낮의 태양은 맹렬했다. 매미소리 또한 우렁차서 쉬이 가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처서가 되면 풀들은 성장을 멈추고 다시 대지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나. 길섶의 풀들은 아직 혈기방장하건만, 안으로는 그 푸른 생명력을 거두어들이고 있다니 우주의 기운을 읽어내는 그들의 능력이 신기하기만 하다.

삼각산 문수사로 오르는 길은 가팔랐다. 구기탐방지원센터에서 문수사까지 한 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산행이 서툴러서인지 두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와 땀을 식혀주는 솔바람에 의지해 느릿느릿 산길을 걸었다. 한참을 올라가자 예불소리가 들렸다. 어찌나 반갑던지 고개를 들어 소리 나는 쪽으로 보았더니 절벽에 까치집처럼 매달려 있는 대웅전이 눈에 들어왔다. 고려 때의 탄연(坦然) 국사는 하필이면 저렇게 험난한 곳에 절터를 잡았는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문수사에 주석하면서 남긴 시 한수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 칸 방 어찌 그리 너무도 고요한가
만 가지 인연이 모두 적막하네.
길은 돌 틈으로 뚫려 있고
샘은 구름 속에서 새어나네.
밝은 달은 처마 끝에 걸려 있고
산들바람 숲 속에서 일어나네.
누구 저 스님 따라
고요히 앉아 참 즐거움 배우려나.

한 칸 방에는 산들바람이 머물다 가는가 하면, 구름도 쉬었다 가고, 달빛과 별빛이 숨바꼭질 하듯 숨어들기도 했을 것이다. 이들과 벗하는가 하면 자신과 마주해 고요를 즐겼던 그리고 선정삼매에 빠져들었던 수행자의 진면목이 그대로 그려진다.

혜정 스님이 1985년 대구 동화사 주지를 마치고 문수사를 찾았을 때 문수동굴 앞 작은 법당 한 칸이 전각의 전부였다. 혜정 스님의 원력으로 법당, 문수전, 나한전, 삼성각, 공양간, 요사채 등 여러 채의 당우를 갖추어서 천년 고찰로 거듭났다.

오고가는 등산객들 틈에서 염주를 돌리고 있던 혜정 스님은 "뭣 하러 볼품없는 이 노인네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느냐"고 타박을 놓았다. 혜정 스님은 곧 법문이 있다면서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법당으로 들어가실 채비를 하셨다. 혜정 스님은 20년 넘게 매주 일요일마다 등산객들을 상대로 법문을 해주고 있다. 스님의 법문으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문에 들어선다면, 한 사람이라도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다.

"은사이신 청담 스님은 법당에 한 사람이 앉아있어도 법문을 하실 정도였어요. 법문을 시작하면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스님 시간이 없어요'라고 쪽지를 보내면 '죽은 사람에게도 몇 시간씩 염불해주고 법문해 주는데, 산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면서 되레 우리들을 혼내고 그랬어요."

스무 평이 조금 넘는 법당에는 등산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스님의 법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사는 기세간은 지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재앙이 없으면 테러를 비롯해 서로가 투쟁을 해 살상을 일삼는 등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사상으로 남에게 베풀면서 살라는 보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成住壞空)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찰나 찰나 변해가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면할 길이 없어요. 부처님은 인간에게 생로병사만큼 다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방법론을 가르쳐주셨어요. 불교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해 절대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이 있어서 이상적인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자기의 마음을 깨달으면 자기가 곧 부처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우주의 자재인(自在人)이 돼 영원한 생명을 실현하는 각자(覺者)가 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깨닫는 방법으로는 참선, 염불, 주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에는 좋고 나쁘다는 우열이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끊임없이 정진하는 가가 중요합니다. 수행정진을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원력이 필요합니다. 원력은 '바람'이 되겠지요. 자신의 원력이 반드시 사회로 회향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능엄경>에 보면 참선을 해 부처님의 경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겁(多劫)으로 지은 업장이 두터워서 마음 공부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 장애를 없애는 방편으로 '능엄주'를 하라고 합니다. 꼭 '능엄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력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지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관음신앙이 널리 퍼져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천백억 화신을 나투는 보살로, 천수천안(千手千眼)으로 사바세계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원을 세웠어요. 관음신앙은 <묘법연화경>이라는 대승경전에서 비롯됐습니다. <묘법연화경>에 보면 '제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이 있는데, 이때 관(觀)이란 소리와 모양을 듣기도 하고 보는 것을 뜻합니다. '보문(普門)'은 관세음보살에게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킵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사람에게는 이 문은 환하게 열려 있으며, 그 문에 들어가면 생사해탈을 할 수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관음염불을 하다 보니 환희심이 나서 <관세음보살발원문>을 하나 지었어요."

혜정스님이 지으신 <관세음보살발원문>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세에 돌아가신 모든 이의 어버이와 무수한 전쟁터에 원혼 돼 가신 이들
극락정토 왕생하여 대법열 누리오며
천당불찰 태어나서 무량복을 받사이다
거룩하신 관음보살 당신 앞에 발원함은 중생의 모든 고뇌 건지고자 함이오니 이 세상 모든 사람 한량없는 번뇌 속에 삼독물결 크나큰 죄 다 없애주옵소서.'

스님께서 직접 지으신 <관세음보살발원문>을 통해 이 세상에 고통 받는 사람이 날로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혜정 스님의 원력을 느낄 수 있었다.

스님은 "참선을 통해서나 염불을 통해서 깨닫고 보면 일체 모든 것이 부처님 법 아닌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분별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의 소동파 이야기를 세세하게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중국에 '소동파'라는 유명한 문장가가 있는데, 시와 그림으로 이름을 날리다 보니 굉장히 오만했다. 하루는 옥천사에 승호 선사를 찾아갔더니 스님이 소동파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런데 오만한 소동파는 스님을 골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칭(秤)가요"라고 답을 했다.

"칭가라, 처음 들어보는데요."

"나는 선지에 밝다는 종사들을 찾아보고 그 분들의 기량을 달아보는 칭가란 말이요."

칭(秤)이란 한자로 저울이란 뜻인데 소동파는 '자신이 선지식들의 법력을 달아보는 저울'이라고 소개를 했다. 승호 선사는 세상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소동파를 혼내주고 싶었다. 승호 선사는 갑자기 "으악"하고 무섭게 일성대갈(一聲大喝)하였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다면 이 소리는 몇 근이나 되겠소?"하고 물었다.

문장에는 능할지 몰라도 도대체 "으악" 소리는 몇 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스님의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한 채 옥천사를 빠져나온 소동파는 기가 한 풀 꺾였다. 그 후 소동파는 불교의 본지는 학문이나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사들을 찾아뵈었다. 어느 날 상총 스님을 찾아가 설법을 청했다. 그러자 스님은 "그대는 왜 무정(無情)설법은 듣지 못하고 유정(有情)설법만 들으려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산이나 나무와 같은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는 말을 소동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무정설법'을 화두 삼아 말을 타고 깊은 계곡을 끼고 돌아오다 거대한 폭포를 만났다. 폭포소리에 소동파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활연(豁然)히 대오(大悟)한 것이다.

소동파는 그 자리에서 오도송을 한 수 남겼다.

계성변시장광설(溪聲便是長廣舌)
산색기비청정신(山色豈非淸淨身)
야래팔만사천게(夜來八萬四千偈)
타일여하거사인(他日如何擧似人)
계곡의 물소리 모두가 부처님 설법인데,
산천초목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는가.
하룻밤 사이에 8만4천 법문을 깨달았는데,
다른 날 이 도리를 어떻게 남에게 일러 주겠는가.

"소동파는 깨닫고 보니 물소리, 새소리,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부처님 법문 아닌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법당에 있는 부처님만이 부처라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전부 부처라 생각하고 공경하세요. 지금 요란하게 울고 있는 매미소리, 새소리도 마음을 열고 들으면 다 법문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혜정 스님은 법문을 끝내고 요사채에 딸린 공양간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현공풍수를 아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풍수지리! 내가 직접 배워 생활에 적용하여 보십시오.

현공풍수는 중국 당나라 양구빈(834~900년)선생이 창안하여 그 동안 천년이 넘도록 사제지간에만 극비로 전해 내려온 독특한 풍수이론으로 최근에 대만에서 공개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최고급 풍수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공풍수이론에 대해 정보부족으로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공풍수는 1에서 9의 숫자조합만을 이용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고 1학기만 배워도 수 십년 풍수지리를 공부한 사람보다 주택(건물), 분묘를 더욱 명쾌하게 길흉화복을 감정 할 수 있는 천하제일의 풍수지리학입니다.

현공풍수를 배우면

※아무리 좋은 대명당일지라도 좌향과 시기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 8운(2004년~2023년)중에 간, 인, 곤, 신, 술, 진 6개 좌향으로 신축한 주택(건물) 또는 이사한 주택, 묘 (이장 포함)를 쓰면 패가망신 하게 됩니다.
※특히 양택에서는 생극제화법을 이용하여 추길피흉 할 수 있습니다.
※현공풍수의 복잡한 이론은 조견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풍수학설(포태법과 동서팔택법)이 맞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 대상자
스님, 법사, 포교사, 건축, 토목, 도시계획, 조경, 인테리어, 전원주택, 펜션, 부동산컨설팅, 경매, (한)의사, 군지휘관, 장례업, 문중관계자, 민속학자, 문화콘텐츠, 감정사, 토지개발관계자, 역학인, 기존의 풍수사, 일반인
※ 기본 한자만 알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및 문의전화 ◀
- 문청역학학원 (서울) 010-6316-3604
- 바보철학학원 (경기평택) 018-308-1636
- 광양시평생교육관 (전남광양) 011-626-0270
- 한림대평생교육원 (강원춘천) 016-772-6688
- 군산대평생교육원 (전북군산) 010-7788-1688
- 예승철학교육원 (대구) 010-3097-1698
- 진주동남학원 (경남진주) 055-761-1828
- 부천대평생교육원 (경기부천) 011- 308-1830
- 원광대평생교육원 (전북 익산) 011-659-1744
- 대전대평생교육원 (대전광역시) 011-308-1830

대 한 현 공 풍 수 지 리 학 회
http://cafe.daum.net/gursrhdvndtn

불자라면 육바라밀 실천해야

으로 향했다. 주말에는 등산객들에게 무료로 점심공양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여나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안고 산을 내려갈 것을 염려해서인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많이 먹을 것을 권했다. 인자한 스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니 관세음보살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지실에 들어서니 터 자체가 좁아서인지 옹색하기 이를 데 없다. 수행자는 무소유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였다. 은사인 청담 스님 사진과 서옹 스님의 서예 작품 한 점이 고아한 맛을 풍길 뿐이다. 혜정 스님은 은사 스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정화운동이 한창일 때 은사님이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갈 때에 혹시 누가 와서 나를 때리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그 사람을 때리지 마라. 오히려 나에게 인과(因果)를 믿으라고 말을 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청담 스님이 사셨던 세월을 넘기고 나니 이해가 되데요. '인과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불교의 지고지상의 진리'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청담 스님은 상좌들의 장삼을 곧잘 다려줄 정도로 하심(下心)이 몸에 익어져 있었다. 하심은 인욕(忍辱)에서 생기는 것이며, 인욕이란 자기를 잊었을 때 자기를 버렸을 때에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란다. 우리네 개념으로 참아야겠다고 생각해 억지로 참는 것은 이미 인욕이 아니라고 했다.

혜정 스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님과 함께 우연히 봉암사에 놀러 간 것이 출가의 계기가 됐다. 그때 장삼을 입은 스님과 처음으로 마주했는데, 그 분이 바로 '봉암사결사' 를 주도했던 성철 스님이다. 성철 스님은 "인생무상을 들려주면서 사람들은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을 살 것처럼 쓸데없이 집착을 부린다"면서 "생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학교 공부도 다 소용없는 것"이라 했다. 스님은 성철 스님의 말씀이 매우 솔깃해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 만에 다시 봉암사로 돌아와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됐다.

봉암사는 공주규약(共主規約)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기에 행자생활 또한 엄격했다. 그때는 보름마다 포살을 했는데 청담 스님, 성철 스님할 것 없이 대중 모두가 천배씩의 절을 했다. 그리고 수행의 일환으로 모든 대중이 탁발을 나갔는데, 청담 스님이나 성철 스님도 예외 없이 탁발을 나갔다. 혜정 스님은 어른스님들 옆에서 수행자의 진면목을 보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자신의 덕목으로 삼았다.

"봉암사에서 대중 스님들과 함께 매일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울력을 하고 참선하는 일과 속에서도 청담 스님은 저에게 '네 마음자리를 찾아라' 고 했어요. 아직도 그 마음자리를 완전히 찾지는 못했지만, 공부에는 엄격하면서도 다른 일에는 자비스러웠던 은사스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청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할 때, 혜정 스님은 잠시 해인사 재무국장 소임을 맡았다. 어느 날 태국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대회에 다녀온 청담 스님이 "앞으로 서구 사람들과 교류하려면 젊은 스님들은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한마디에 영어공부에 열정을 쏟았다. "은사 스님 말씀은 그대로 법이었다"면서 "은사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존경하기에 그대로 따르게 되더라"고 회고했다. 혜정 스님은 도반 서너 명과 함께 영어회화를 배우며 뉴스위크지반까지 다니면서 영어 실력을 연마했다. 국제 포교사로 종단의 통역관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수행자는 도를 깨치는 일이 본분사'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영어공부를 접었다.

스님은 불자라면 육바라밀(六波羅密)' 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육바라밀인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수행덕목으로 삼아라고 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고 참다보면 그것이 인욕바라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진하다보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갖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부처의 마음을 깨우치면 천지 우주간 부러움과 두려움이 없단다. 내가 바로 너요, 내가 바로 우주요, 내가 바로 자연인데 부러울 것이 뭐있겠느냐는 것이 스님의 말씀이다. 좀더 높은, 좀더 많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소유하기 위해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따끔한 경책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혜정 스님은 ...

봉암사에서 청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1958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 문경 봉암사, 합천 해인사, 마산 성주사에서 수행정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동화사 주지, 해인사주지 직무대행, 조계종 종회의원 역임. 지금은 청담문화재단 이사, 도선사 조실, 청담학원 이사이며 삼각산 문수사에 주석.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8. 상언고암 대종사

고암 (古庵, 1899~1988년) 스님은 조계종 제3~4대 종정을 지내신 분이다. 법명은 상언(祥彦)이고, 자호가 환산(歡山)이다. 1904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적성보통학교를 나오고, 1918년 해인사 재산 스님께 출가해 3·1운동 때는 개성과 서울 연락책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1922년 해인사 용성 스님께 계를 받고 25년 강원을 졸업, 1939년부터 전국 선원을 돌며 용맹정진한 뒤 해인사·표충사·범어사 조실을 지냈다. 1958년 직지사 주지를 지내고, 1978년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와 1988년 하와이 대원사 조실로 계셨다.

필자와는 하와이 대원사에서 만났는데, 천진하기가 삼척동자와 같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아무도 몰래 공양주 채공을 겸해 한상씩 차려 놓으면 6시 예불에 참석하신 보살님들이 즐겨 먹으며 공양주를 찬탄한다.

"한국 음식 맛은 진짜 대원사에 와야 본다니까. 얼마나 부지런하면 새벽같이 일어나 이렇게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 논담!"

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저 "많이들 잡수세요"하고 잘 먹고 가는 것만 고맙게 생각한다.

삼척동자가 와서 절을 해도 언제나 큰 절로 답하시며,

"우리 아기 부처님께 절을 받으니 나도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구나."

하시고 사탕 하나씩을 나누어 주시며,

"성불 하십시오."

한다. 하와이 대원사에서 주최한 여덟 번의 강의에 여섯 번은 같이 지냈는데, 두 번은 본토(미국)에서 불사가 있어 출타하셨기 때문에 뵙지 못했다. 언제나 보면 작은 봉투에 10불(弗)짜리 서너 개 넣어주시며,



"객지에 나오면 씀씀이 헤프게 되니 조금이라도 보태 쓰게. 나는 자네 덕분에 불교 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됐어."

하고 손을 꽉 잡아 주셨다. 너무나도 다정하고 천진한 부처님, 이 부처님 때문에 하와이 불사가 원만히 회향됐다고 생각한다.

항상 미소 짓는 얼굴에 짜증 섞인 빛을 보지 못했다. 보살님이고 스님이고 좀 실답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괴롭게 해 주지스님이 짜증을 내면,

"오죽하면 절에 와서 사정 하겠나. 그래도 부처님 돈을 가져가면 더 이상 나쁜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이야."

하고 그동안 신도님들께서 한두 푼씩 모아 주신 것을 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 주머니에는 단돈 100불 가지고 있을 때가 드물다. 신도님들이 용돈 주시며,

"약 값 하세요. 또 헛되게 쓰지 마시고."

"고맙소. 반듯이 병든 곳에 약으로 쓰지. 돈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잘 돌으라고 해서 돈이라 이름 지은 것이요. 그러니 내 주머니에만 꼭 들어있으면 그 자리에서 썩어질 것 아니어. 그 놈이 잘 돌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헐벗은 사람도 아름답게 꾸며지게 하거든."

이것이 법문이다.

"스님, 법문해 주세요."

하면,

"내 법문 신도님들이 다 해놓고. 또 나 보고 무슨 법문 해달라고 하는 거요."

하도 천진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천진성을 듣기 위해 자주 가 성가시게 한다. 누구고 사정하면 안 들어 주는 일이 없다.

1987년 본토에 계신 어떤 스님이 오셔서,

"섬에만 계시지 말고 본토에 오셔서도 포교해 주세요."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스님은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포교가 저절로 됩니다."

"그럼 가 볼까!"

해 나섰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1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1988년 세수 90으로 돌아가셨다.

조계종 3~4대 종정 지내…천진하기가 삼척동자와 같아

"밑에는 땅이 있고
위로는 하늘이 있다.
하늘 땅이 모두 여기서 생겨났는데
여기를 알겠느냐.
하와이는 미국에 있고
백두산은 한국에 있다.
하 하 하!"

이것이 스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들려주신 법문이다.

현대불교현불샵 입점 기념 특별 세일전 17%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항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수의 등 수납한 모습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12>

상호율 무시한 경제이익은 존재할 수 없어

잘못된 자유경쟁은 돈벌기 능력경쟁… 욕망 충족만 추구

탐욕의 이데올로기에 뒷받침된 신자유주의의 현대경제학은 미국월가의 금융시장 파탄과 함께 이미 그 지적 기반이 붕괴됐다고 할 수 있다. 탐욕에 대신하는 불교사상을 새로운 경제학 속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하느냐, 바꿔 말하면 소욕지족(少欲知足)을 강조하는 불교사상 중에서 '자족의 경제학'을 어떻게 주창해 나가느냐, 이것이야 말로 21세기의 미래사회를 개혁하는 새로운 경제학의 방향이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제창된 불교경제 혹은 불교경제학은 대충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사원(사찰, 교단)의 경영으로서의 불교경제이고, 둘째는 인식론으로서의 불교경제(학)이며, 셋째는 실천론으로서의 불교경제(학), 넷째로 주류경제학에 대신하는 새로운 현대경제학으로서의 불교경제(학)이다.

이중에서 먼저, 사찰(寺)의 경영 혹은 경제로서의 불교경제는 필자의 고찰로부터 논외로 제외하고자 한다. 사찰특유의 경영이나 출가 승려의 일상적인 수행생활 특히 선사(禪寺)에서의 검소한 생활경제, 그것은 그 나름대로 오늘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좁은 조직 혹은 지역에 한정된 미시적 경제행위 보다도 더 넓은 사회, 국가 혹은 지구규모의 거시경제를 대상으로 고찰해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선 '인식론으로서의 불교경제(학)'이란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그 대표적인 주장자로서 고바타 하루오(難波田 春夫) 前 와세다대학 교수를 들 수 있다. 고바타 논점의 특색은 공(空)사상에 기반을 둔 경제인식론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경제학과 다른 독자적인 불교경제학은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제에 관한 불교적 입장은 모든 경제학의 설명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를 공(空)의 원리에 의해 더욱 깊은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불교경제학이라 불리어지는 것과 같은, 특별한 다른 경제학과는 상이한 경제의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는 듯한, 그런 독특한 경제학은 불교적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와 경제학은 연계되지 않으면서도, 불교적 입장은, 모든 경제학에 더욱 깊은 근거를 부여해, 보다 깊은 의미를 갖게 한다. (중략) 결국 불교적 입장은 기존의 많은 경제학의 이론 외에 이것들과 버금가는 별개의 경제학을 제창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의 경제학에 보다 깊은 불교적 의미와 근거를 부여한다는 형식으로 경제학과 연계시킨다."

그러면 공(空)의 원리, 사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연기관(緣起觀)을 의미하고 있다.

고바타에 따르면 연기관 혹은 공관이 되는 것은 상호율(相互律) 즉, 'A는 비(非)A에 의해 비A는 A에 의해서만 인간으로서 현실재(現實在)로서 실재(實在)한다'고 하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실재 논리를 가지고 실재를 관(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깊은 근거로 삼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자동률(自動律; 'A는 A이지 비A는 아니다'는 사유의 논리)을 실재의 논리로 깊이 믿었던 시대가 근대사회인데, 이것으로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다. 자동률이라는 사유의 논리를 원리로 하는 근대가 상호율이라는 실재의 논리를 원리로 하는 새로운 다음 시대로 이행해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가 바로 현대사회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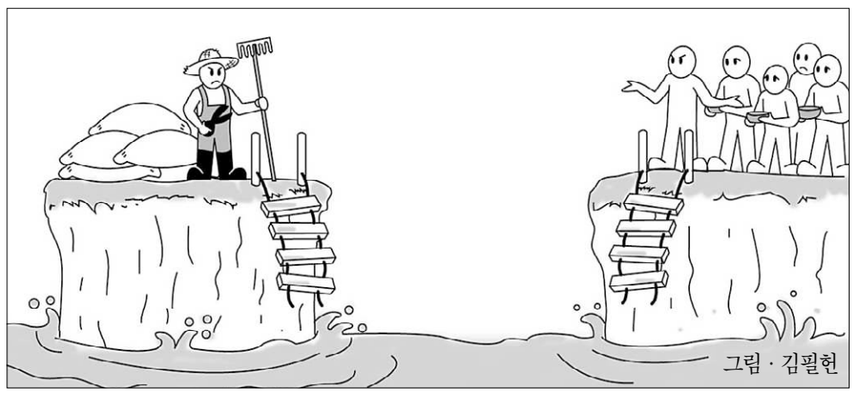
그렇다면 자동률 또는 상호율의 어느 쪽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실의 인식이나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고바타에 따르면, 자동률에 대응한 근대사회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①A는 A이고 비(非)A는 아니다, 라는 것은 '나는 나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더우기 무엇을 하든, 당신 멋대로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유사회 예찬론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으며, 번뇌망상으로부터의 해탈이 아니라 거꾸로 번뇌망상에서 제멋대로의 해방, 자유방종화라 할 수 있다.

②'나는 나이다'라고 해 제멋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 돈(金)이 필요해진다. 개인책임의 자유경쟁은 돈벌기 능력의 경쟁이 돼, 거역할 수 없는 경제만능주의의 노선으로 질주하게 된다. 여기서는 돈이라고 하는 본래 수단인 것이 목적으로 전환, 오로지 경제논리에 따라 욕망의 충족을 더욱 추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잘못의 결과가 자원 · 에너지의 낭비이며, 폐기물의 대량발생, 공기나 물의 오염에 따른 환경파괴가 따르게 된 것이다. 고바타는 이것을 '근대사회의 패배'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다른 한편의 불교적 입장이라고 할 '상호율'에 기반을 둔 경제행위나 경제생활이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은 자타본래일여(自他本來一如) 혹은 자타불이(自他不二)라는 공(空)사상의 입장이다. 바꿔 말하면 참된 이익은 불이(不二) 혹은 하나(一如)라는 것, 즉 자리(自利)의 근거는 타리(他利)에 있고 타리의 근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생산자 쌀값과 소비자쌀값을 들고 있다.


그림 · 김필헌

농민이 생산자 쌀값을 인상하면 그 결과, 소비자 쌀값이 상승한다든지 도시민의 생계비는 증대하고 노동자임금이 상승한다. 이렇게 해서 경제전체의 비용 상승을 초래해 모든 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러한 사실은 종래의 경제학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이 기존경제학의 설명에 불교의 입장에서 어떠한 깊은 근거가 성립되고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인가. 고바타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불교적 입장에서라면 농민의 존재근거는 농민 가운데에는 존재하지 않고 농민이외에, 즉 국민전체 속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농민들이 나의 입장, 농민만의 입장에 서서 농민만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깊이 믿고서, 이에 고집해 자기들이 농사 지은 쌀을 비싸게 팔게 되면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그들만의 이익이 실현될 수는 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농민이 구입하는 상품 값이 오름에 따라서, 생산자 쌀값인상에 따른 농민만의 이익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만다. 결국 일체가 공(空)이 돼 자기 자신만의 이익추구의 근거가 사회의 다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실증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한 생산자만의 이익은 본래 존재할 수 없다. 요컨대 자타(自他)의 이익은 불이(不二)이며 일여(一如), 바로 그것이라는 뜻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⑫ 코칭과 미래의 자신

허달의 불교와 코칭

내가 전문코치 자격으로 간여하고 있는 한국리더십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리더십과정, 코치 양성과정과 함께 '창의적 교수법'이라는 좋은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창의적 교수법을 강의하는 전문가들 중에 교사 출신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수하는 '자기 중심적 요소(Me Centered)'가 강한 반면, 코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개입시키는 일은 가급적 삼가고 '상대방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한다'(You Centered)는 그러한 큰 차이가 있다. 더 부연하면 티칭, 컨설팅, 멘토링 등은 상대방 고객과 함께 솔루션을 찾아가는 'Doing'에 관한 접근이고, 코칭은 상대방의 존재에 접촉하는 'Being'에 관한 접근이다.

따라서 코칭에서 강조하는 바, 따듯한 마음에 바탕을 둔 경청, 질문 등 기술적 요소들은 얼마든지 티칭, 컨설팅 등에 접목하여 그 본래 목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에서 실시하는 멘토링은 100% 코칭 기술을 접목하여 시행한다. 기업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신입사원의 이직률인데, 대기업을 표본으로 한 조사를 보면 신입사원의 1년 내 이직률은 2007년 27%를 상회하여 기업의 채용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다수의 기업들이 사내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그 중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직률을 거의 0%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다.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서 코칭은 상담의학(相談醫學)과 비견되기도 한다. 공감적 반응의 기법을 활용함에 있어 코칭과 상담의학은 거의 기술적으로 근사하다. 다만, 상담의학이 고객의 과거를 탐험해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트로머(Trauma)를 제거하는 데 주력함에 비해, 코칭은 상상력을 활성화해 고객의 미래를 확장하고 긍정적이 되도록 지지함으로써 과거의 트로머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이를 문제 해결의 자원(Resource)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이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미래의 자신과 만나 현재 당면한 문제 풀어

코칭의 과정에서 고객의 미래를 확장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미래의 자신(Future Self)을 투영(Projection)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에게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를 명상 속에 몰입하게 해 20~30년 뒤의 상상 속의 자신과 만나도록 도와준다. 원하는 바를 이미 이룩한 자신의 모습을 만나보고 그 느낌을 성찰한 뒤에 그 자리에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면 현재, 과거의 여러 당면 문제가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실마리인 것을 깨닫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 내면의 확신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재의 시점으로 되돌아 오도록 돕는 것이다.

약학박사 학위 과정의 최종 단계에 있던 한 여성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코칭 받겠다고 상의해온 적이 있다. 학위 논문은 곧 통과되겠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하소연이었다. 남들 다 하는 연애도 한 번 못 해보고, 옹알이 하는 갓난아기 안고 동창회 나오는 친구들 부러운 것도 참고 박사학위에 매달렸는데,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니 회의가 든다는 것이었다. 학교에 남아 교수들, 대학원생들과 씨름하는 생활이 계속되는 것도 신물이 나고, 설사 제약회사 연구실에 취직돼 신약개발팀에 합류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임상(臨床)은 의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약학박사라 해봐야 심부름꾼에 지나지 못할 것이라는 푸념이었다.

코칭의 처음 몇 단계를 거쳐, 그녀는 결국 자신의 20년 후 Future Self를 투영해 보고, 그 모습에 '엄마마눌연구왕여사'라는 긴 이름을 지어 붙이는 것을 계기로,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자신을 가두었던 의기소침 상자(Box)에서 탈출해 사랑 받는 마누라,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엄마, 그리고 인류에 공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약연구자가 되는 꿈을 모두 함께 이루겠다고 의욕적인 진로를 설정했다.

"생각의 속도로 날기 위해서는, 그곳이 어디든 그대는 자신이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을 읽어보면 성자의 은유인 치앙 갈매기가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에게 나는 법의 극의(極意)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비결은 자신의 본성이 이미 완전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함을 깨닫는 일이었다. 우리의 자성이 이미 완전하며 모두가 이미 부처임을 굳게 믿는 것이 불자에게 요구되는 오직 하나의 믿음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고기 움직이니 물 흐려지고 새 나니 깃털 떨어진다”



인곡 스님, “보름날이 좋다” 시자들 권유에 입적 하루 연기
지극정성으로 49재 모신 혜암 다시 오대산에서 ‘용맹정진’

인곡은 1961년 초여름 이후 내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누운 채 미질을 앓으며 문병온 제자들을 맞이했다. 자리에 누운 지 벌써 스무 날 째 곡기를 끊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다고 시자와 문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도선사 주지이면서 당시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하던 청담이 스님을 보내기도 했다. 청담은 그 스님에게 인곡을 문병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도록 했던 것이다.

“스님께서 몸을 버리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인곡은 한동안 침묵으로 대답했다.

혜암은 이때 인곡을 직접 간병하지는 않았다. 간병하는 시자가 이미 두세 명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곡기를 끊고 있는 동안에도 인곡은 맑은 정신으로 제자들에게 짧은 법문을 했다. 하안거 해제 전날, 그러니까 자신의 입적 전날에는 문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는 말했다.

“고기가 움직이니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나니 깃털이 떨어진다(魚行水濁 鳥飛毛落).”

수행자로서 중생제도를 못하고 세상에 빚을 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문도들이 의미심장한 인곡의 말에 긴장을 더 하자, 인곡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이 십사일 삭발하는 날이군. 나도 삭발을 해야겠어. 오늘 밤 만물이 잠들었을 때 조용히 갈 것이야.”

그러자 한 시자가 비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께서 가신 후에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주지 자운스님에게 부탁해 놓았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또 다른 시자가 물었다.

“입적하신 후에 염불을 하리까.”

“내 염불은 이미 내가 하고 가니 나를 위해서 살아 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너희들은 염불하지 말라.”

이에 시자들이 삭발을 해드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다. 한결 기분이 좋아진 듯 인곡이 〈증도가〉 한 구절을 웅얼거렸다.

훼방도 할 수 없고 칭찬도 할 수 없음이여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한계가 없도다.
不可毁不可讚 體若虛空勿涯岸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연하니
찾은즉 그대를 아나 볼 수는 없도다.
不離當處常淡然 覓卽知君不可見

그런 뒤, 무릎을 꿇은 채 좌정하고 시자와 문도들에게 물었다.

“어째서 ‘찾은즉 그대를 아나 볼 수는 없다’고 했는가.”

시자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말했다.

“배고프면 밥 달라 하고 추우면 옷 달라고 하니 분명히 알지만, 그 자체를 찾아보려고 하면 미래겁이 다하도록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방 윗목에서 말없이 앉아 있던 혜암도 한 마디 했다.

“혜가대사께서 ‘밝고 밝게 항상 알지만 말로써 미칠 수 없다(了了常知 言之不可及)’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말이 더 필요 없구나.”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가야산 계곡을 울리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가깝게 들렸고, 창호에는 달빛이 환하게 어렸다. 시자들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 입술이 바싹바싹 탔다. ‘오늘 가겠다’는 스승의 입적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흐르는 시간을 붙들고 싶었던지 한 시자가 비통하게 말했다.

“스님! 기왕 가실 바엔 오늘은 14일이고 내일이 15일 해제일이며 우란분재일, 아미타재일이니 좋은 날이옵니다. 좀 더 입적 시간을 연장하셨다가 가시면 어떻습니까.”

이에 인곡이 달빛이 어린 창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인데, 좋고 나쁜 날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얼마 후에 가겠노라.”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제자가 말했다.

“임종게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삿된 사람의 일이니라.”

“입적시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것쯤은 할 수 있지.”

“저희 생각으로도 보름날이 좋고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좋은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보름날 가시도록 하십시오.”

시자의 간청에 인곡은 허락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지.”

비로소 시자와 제자들은 안도했다. 14일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문도들은 뜬눈으로 인곡의 곁을 지켰다. 겨우 눈을 뜬 인곡이 한 제자에게 물었다.

“묘법연화경 화성유품 제7 가운데 ‘대통지승여래가 10겁을 좌도(坐道)해도 불법이 불현전(不現前)이니라.’는 뜻을 알았느냐.”

언젠가 이 부분을 의심하던 제자가 인곡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곡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야 할 문제라고 답했던바 이제는 알겠느냐는 물음이었다. 아직도 제자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각처로 다니면서 여러 선지식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알려고 애를 썼으나 마음에 계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봉스님에게 가서 물은즉 ‘불법이 불현전이지!’ 하시는데 머리에 무엇이 핑 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인곡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一心不生) 만법이 때 묻지 않느니라(萬法無垢)”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

허깨비 꿈과 같은 67년 세월이여
나 이제 가노니 흐르는 물이 하늘에 뻗침이로다.
夢幻空華六十七年
仁谷煙沒流水連天

혜암은 수행자로서 인곡의 삶이 바람과 구름 같다고 여겼다. 그림자 없이 스쳐가는 바람과 구름처럼 머문 바 없이 머물다간 인곡이었던 것이다. 인곡에게 선과 교와 율을 겸비한 선지식이라는 것도 추모하는 뒷사람의 수사일 뿐이었다. 만법이 무구하다는 것을 보여준 올곧고 자비로운 수행자라는 사실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다.

혜암은 슬퍼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인곡과 같은 수행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혜암은 49재를 지내는 동안 줄곧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오대산으로 향했다. 49재를 지내는 동안 심신이 피로했지만 단 하루도 쉴 겨를이 없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신심은 더 치열하게 솟구쳤다.

문도들이 몸이 지쳐 있고, 더구나 오대산은 추우니 해인사에서 겨울을 나고 올라가라고 만류했지만 혜암은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다.

“스님, 해인사에서 겨울 나시고 가십시오. 병이 나면 큰일 납니다. 한 약이라도 달여 드시고 건강을 회복한 뒤 떠나십시오.”

“은사스님의 삶을 생각하면 단 한 순간도 망설일 수 없습니다.”

“남쪽에도 선방이 있잖습니까. 극락암 경봉스님 회상에서 동안거를 날 수도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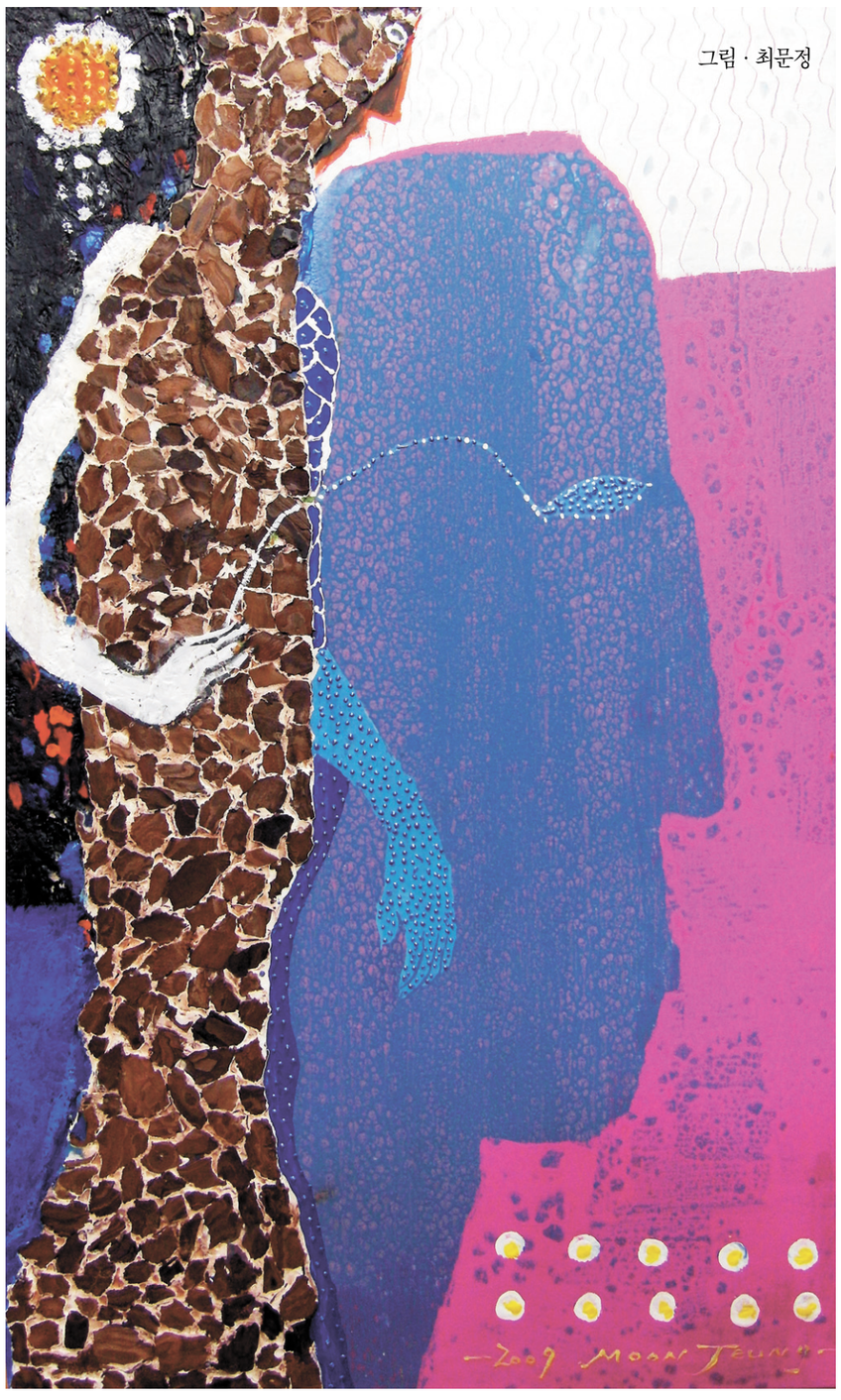
“일찍이 오대산 다섯 암자에서 정진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난 다음에 경봉스님 회상으로 갈 것입니다.”

혜암은 걸망을 메고 오대산 북대로 갔다. 북대 미륵암은 오대산의 다섯 암자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겨우내 얼음장 같은 곳이었다. 눈이 응달 산자락에 한 번 쌓이면 잔설이 봄까지 녹지 않았다. 북대 미륵암이 회오리바람처럼 거칠다면 서대 염불암은 동굴처럼 은밀하고, 동대 관음암은 아침이 상서롭고, 중대 사자암은 부처의 그림자처럼 고구정녕하고, 남대 지장암은 극락처럼 편안한 암자였다.

혜암이 북대로 바로 간 것은 자기 자신과 다시 한 번 더 맞서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암자에서 홀로 정진한 까닭도 그러했지만 이번에는 사뭇 달랐다. 혜암은 아무 것도 상관하지 않고 예전처럼 밤낮으로 행선을 했다.

폭설이 내려도 적멸보궁을 다녀왔고, 비가 퍼부어도 마찬가지였다. 수마는 이미 극복한 상태였으므로 행선을 하면서 조는 일은 없었다. 일정한 보폭과 빠르기로 무심히 걸을 뿐이었다. 예전에는 자면서 걷다가 계곡으로 미끄러지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다.

상원사 선방 수좌들이 장좌불와를 한다며 혜암을 흉내 내어 따라 하지만 보름을 넘기지 못했다. 산길을 잘못 들어 행방불명이 되는 바람에 대중들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바위에 부딪치어 강릉의 병원으로 실려 가는 수좌도 있었다.



그날도 혜암은 행선을 나갔다. 폭설이 두어 자쯤 내려쌓여 암자 마당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새벽에 문득 눈앞을 스치고 간 인곡의 잔상이 예사롭지 않았으므로 예정대로 행선을 했다.

코끼리 형상을 한 북대 앞산까지 나갔다. 바람이 쌩쌩 불어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래도 혜암은 적멸보궁까지 내려갔다. 산길이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지만 혜암은 어렵지 않게 상원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적멸보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북대로 돌아오는 어스름 길이었다. 눈앞에 호랑이 발자국이 보였다. 일자로 선명하게 찍힌 짐승 발자국은 틀림없는 호랑이 발자국이었다. 순간 혜암은 상원사로 돌아갈까 망설였다. 그러나 곧 그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생사를 뛰어넘은 납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혜암은 자신을 시험하고 싶어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 북대로 올라갔다. 호랑이 먹이가 되더라도 용맹정진해 온 수좌의 면목을 잃고 싶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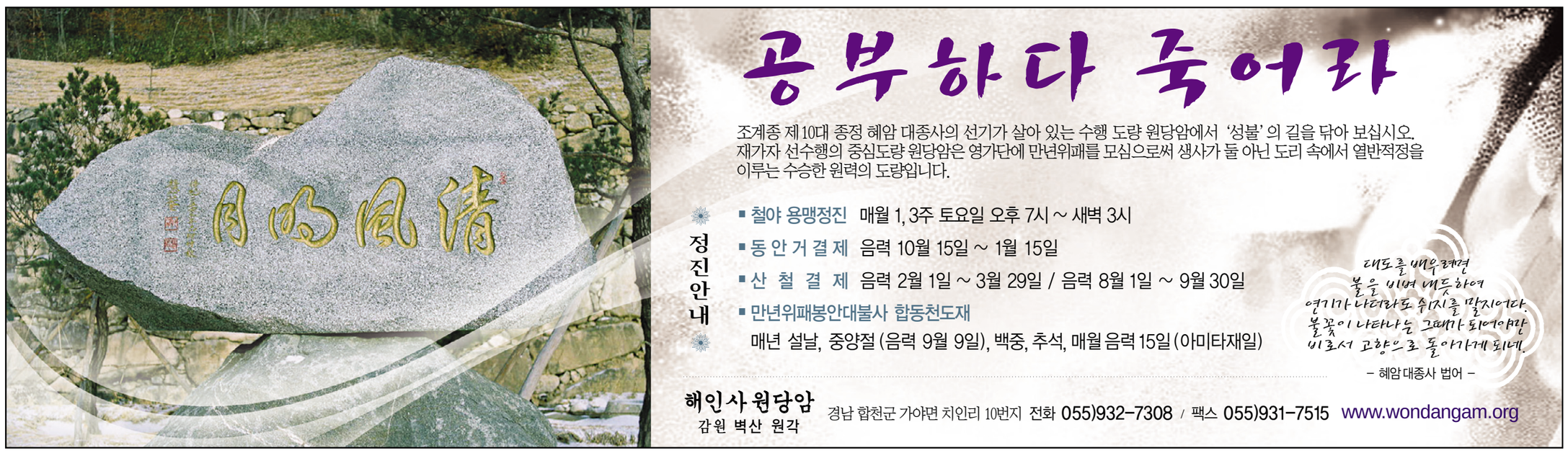
‘살아도 온몸으로 살고 죽어도 온몸으로 죽으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수행자의 삶이 아닌가.’

두려움은 한 순간에 사라졌다. 호랑이가 있건 없건 화두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 과연 호랑이는 북대 초입에 앉아 두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서 혜암을 기다리고 있었다. 혜암은 호랑이를 의식하지 않고 걸어갔다.

그러자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길을 비켜주었다. 혜암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사라졌다. 혜암은 북대로 돌아와 문득 새벽에 스친 인곡의 잔영을 떠올렸다.

‘은사스님이 호랑이로 화신하여 나타난 것은 아닐까.’

이듬해 혜암은 남대 지장암으로 수행처를 옮겼다. 이로써 혜암은 오대산 다섯 암자 모든 곳에서 정진하는 서원을 성취하게 된 것이었다. <계속>



경전 · 선지식 대신할 명쾌한 답변

'체계불학'으로 쓴 '불교 초보탈출 100문 100답'



"임진왜란 때 승병을 조직해 참전했던 서산대사는 살생으로 인한 과보를 받았을까?" "불자가 아닌 사람이 불교의 계율을 어겨도 그에 대한 과보를 받을까?"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에 따르면, 이에 대한 대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초기 선승들은 좌선을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일까?"

"부처님은 윤회를 가르치지 않았다는데 사실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다"이다.

위의 질문들은 경전이나 조사어록, 불교학술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리달송한 것들이다 보니 답변하는 일 조차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김성철 교수의 체계불학'이란 부제를 단 <불교 초보 탈출 100문 100답>(불광출판사)은 이런 난해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들을 내놓아 주목된다.김 교수의 홈페이지(www.kimsch.net)에 올라온 질문들은 그야말로 다양하고 기발하다. 3년 6개월여 동안 불교 초심자부터 불교전공 학생, 교수, 스님 등 각계각층의 네티즌이 김 교수에게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이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저자는 질문자들의 예봉을 피하지 않고 난해한 질문들을 마치 화두 풀듯이 경전에 근거해 차분하게 풀이해 주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은 불교 입문자나 학자, 수행자 모두에게 지침이 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철 교수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채식도 살생 아닙니까?"

" '모든 것이 생명' [華嚴]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생명이랄 게 없다' [般若]는 무차별적인 조망은 '생명'과 '무생명'을 가르는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과 무생명을 가르고, 그에 의거하여 살생하지 말라는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천저한 속제(俗諦)의 일이고 분별적 활동입니다. 불교윤리적으로 '분별'할 때 식물은 불교적 의미의 생명, 즉 중생이 아니기에 식물을 먹거나 해치는 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김 교수의 답변은 '수행', '교리', '생로병사와 윤리' 그리고 '불교와 이웃종교' 등 불교교리를 오늘의 신행(信行)과 결부시켜 현실감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김 교수가 평소 주장해 온 '체계불학(體系佛學: Systematic Buddhology)'을 완성하기 위한 연구과정의 소산이란 의미도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체계불학이란 "현대의 문헌학적 연구성과에 토대를 두고 불전의 가르침을 유기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수미일관한 하나의 신행체계로 구성해 내는 불교학"이다.

초기불교에서 대 · 소승, 밀교와 정토, 화엄과 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불교사상을 신행과 결부시켜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김 교수의 열정이 돋보이는 이 책은 '불립문자(不立文字: 문자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음)'를 오해해 경전과 어록을 무시하는 일부 불자들에게 권할 만하다.

불광출판사 | 1만5000원

김성우 기자

'죽음', 삶의 온전한 의미 반영된 거울

자신 돌아보는 명상 실천서



죽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
소갈 린포체 · 오진탁
판미동
1만7000원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죽음과 영원을 위해 변화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또는 남겨진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주어진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려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붐이다. 죽음의 참된 의미를 들여다 보는 책 <죽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판미동)의 저자인 티베트의 소갈 린포체는 삶과 죽음은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이며, '죽음은 삶의 온전한 의미가 반영된 거울'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명상 실천서로 손색이 없다. 김성우 기자

날마다 시신 마주하며 되묻는 일기

'깨달음', 태연하게 사는 것



납관부 일기
아오키 신몬 · 조양옥
문학세계사
1만원

"날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있자면 죽은 사람이 평안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 죽음의 문 저편에는 빛이 있다."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 작별의 화장을 해주고 영원한 여행을 떠나기 위한 의상을 입혀(염습) 그 시신을 입관(入棺)하는 사람을 뜻하는 납관부(納棺夫). 장례회사에서 10년간 납관부로 일한 <납관부 일기>의 저자 아오키 신몬(青木新門)은 "납관부는 '시체 처리사'가 아니라, 죽은 이가 안심하고 사후 세계로 갈 수 있게 돕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날마다 시신을 마주하면서 생과 사를 진지하게 되물은 저자는 납관부일을 계속해오던 중 알지 못하던 편안한 삶의 시심(詩心)을 깨치게 된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태연하게 죽는 것이라고 여긴 것은 잘못이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태연하게 사는 것이었다"는 말을 체득하게 된다. 김성우 기자

"마음을 풀어놓고 관하기만 하면 된다"

7년 무문관 수행 중국의 만행 스님





중국에서 7년에 걸쳐 3번의 폐관(閉關: 무문관) 정진을 단행한 스님이 출현했다.

1993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3번의 무문관 수행을 마친 만행 스님(동화사 주지) · (사진)은 그간의 구도기를 쓴 책 <마음의 달(心中月)>(대유학당)을 한국어로 펴냈다.

책에 따르면, 만행 스님은 무문관 수행을 할 때 하루 18시간씩 좌선을 하고, 나머지 6시간도 6자진언 태극권 등을 하며 잠을 자지 않았으며, 혹 졸음이 올 때도 눕지 않았다고 한다. 좌선할 때는 가부좌를 하고 굴의 천장에 기둥을 매고 동아줄을 늘어뜨린 뒤 목을 감음으로써 혹여라도 자신도 모르게 눕게 되는 것을 방비했던 것이다.

두 번의 폐관 정진을 마친 후 스님은 티베트에 가서 랍몽 선사를 만나 밀교 기연을 얻었다. 그 뒤 스님은 다시 6조 혜능 선사가 수행했던 동굴로 와서 3년을 더 폐관 정진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행 스님은 혹독한 무문관 수행을 이겨냈지만, 극단적인 고행을 권하지 않고 오히려 단박 깨침을 강조한다. 스님은 책에서 " '닦을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 하근기의 사람들"이라며 "선종에서 '돈오(頓悟)했다'는 것은 중근기의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고, 상근기인들은 돈오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인데 또 무슨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가? 도(道)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놓고 고요히 안정한 뒤에 관(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하기만 하면 된다"며, 늘 깨어있으면서 비춰보는 '각조(覺照)'를 강조했다.

마음의 달 1. 2 | 대유학당 | 만행 지음 | 각권 1만원

김성우 기자

토굴 수행 중 첫 시집

지도 스님 '초담화'



"더함도 덜 함도 없이
처처시시 근기대로 부처주니 부처요
좋고 나쁨 없이
보살피고 보살펴주니 보살이라…."

토굴 수행 중인 지도 스님(사진)이 첫 시집 <초담화>(모아드림)를 펴냈다. 모두 111편의 신작시가 수록된 이 시집에는 "한 자 시로서 더불어 함께하고자 이 시집을 엮게 되었다"는 덕비스님의 출가 전의 방황과 갈등, 출가(천태종 구인사) 후의 수행생활과 출출가 후의 고행, 만행의 여정이 담겨져 있다. 한편, 지도 스님의 첫 시집과 사진집 발간을 축하하는 '덕비지도 제1회 개인전' 이 9월 5~6일 구미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초담화 | 지도 스님 | 모아드림 | 7000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원철	호미
3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4	일곱 번의 작별인사	무비	불광출판사
5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6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백성욱	김영사
7	자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수행이야기	천친, 현현	불광출판사
8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9	프랑스 수도원 고행	향적	금시조
10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도신 스님 록커 되다… '색즉시공' 결성

신촌블루스 멤버로 구성… 12일 제천 덕주사에서 첫 공연

"록(Rock) 하면 다 머리가 길어야 하나요? 오히려 요새는 머리를 빡빡 깎는게 유행인거 같더군요."

머리 긴 록커가 헤드뱅잉을 하며 기타치고 노래하는 모습은 익숙해도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이 록을 한다는 건 그저 생소하기만 하다.

음성포교의 선구자인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이 이번에 또 한번 대형 사고를 쳤다.

기존의 불교음악들은 불교적 색채를 내기 위해 국악을 이용한 노래와 음악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도신 스님은 대중적인 록 장르를 과감히 선택해 현대인들에게 불교음악을 알리는 새바람을 일으킬 예정이다.

스님은 "그룹 결성 전 색즉시공 멤버와 함께 음악회에서 록 위주로 몇 번 공연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다"며 "이 같은 반응에 용기를 얻어 밴드결성을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이미 2002년, 2007년도에 시리즈로 제작된 '색즉시공' 이라는 영화제목과 동일한 그룹 명칭에 대해 스님은 "그런 영화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색즉시공이란 뜻은 '색이 곧 공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의미를 부여해 만든 이름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결성된 색즉시공의 멤버들은 과거 '골목길' 의 신촌블루스로 활동했던 정예 멤버로써, 정세환, 김지명, 김영석, 이후승, 박효진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신 스님과 '색즉시공' 멤버들. 신촌블루스 전 멤버 김지명씨(뒷줄 왼쪽), 리더 정세환씨(뒷줄 가운데).

리더인 정세환씨는 그룹결성 소감에 있어 "불자로서 단지 음악이 좋아 시작한 일이며, 스님과 함께 좋은 공연을 하며 뜻 있는 일에 봉사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불교음악으로 불교포교에 앞장 서겠다"는 도신과 색즉시공의 첫 공연은 9월 12일 제천 덕주사를 시작으로 △10월 10일 서산 부석사 △10월 15일 공주 사암연합회 등에서 펼쳐진다.

도신 스님은 "스님과 그룹의 만남이 어색하게 비쳐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꾸지람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사회봉사를 위한 음악회나 불우 이웃을 위한 자선 콘서트에 적극 참여해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음악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색즉시공의 정규앨범은 내년 가을 발매될 예정이다. (010) 4610-4613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만봉 스님 불화 회고전

인사동 화봉갤러리서


1일 인사동 화봉갤러리서 열린 만봉불화회고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故 만봉 스님의 '만봉불화회고전' 이 3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8월 26일 문을 열었다. 9월 1일까지 인사동 화봉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스님의 작품을 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전시회에는 스님의 대표작 팔상도와 극락도 등 150여점과 스님의 유품 및 제자 10명의 작품도 동시에 전시됐다. (02) 333 -9331

이은정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작품 한 자리에

제3회 문예향전 서울미술관서 7일까지

국내 최고의 전통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출신 작가모임인 문예향(회장 이광훈)이 9월 1~7일 제3회 문예향전을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임석환씨, 제48호 단청장 홍창원씨, 제6호 벼루장 김진한씨, 불상장 허길량씨 등 현존하는 중진작가 39명이 참여한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경열씨의 홍화염 3필과 공주 방석복원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많은 예술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시회에 앞서 이광훈 회장은 "중용의 도를 깨달아 불교문화예술을 꽃 피우고, 성보예술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시는 불화, 회화, 공예, 도예, 사진 등의 분야로 나뉘어 전시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722-3308, 732-3314

이은정 기자


서칠교 작가의 아난존자, 가섭존자.

❸ 궁락도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궁중여성들의 차 풍속 담아

중국 당(唐, 618~907)대에는 여러 장르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인물화가 특히 발달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일컬어 '인물화의 황금시대' 라고까지 한다.

대만 대북고궁박물원 소장의 '궁락도(宮樂圖)' 는 당대의 그림을 저본으로 해 후대에 모방한 그림으로, 당대 궁중 여성들이 차를 마시던 방법과 과정이 그대로 표현돼 있어 주목된다.

그림 속의 탁자 위에는 중국 형주요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다완과 은접시, 칠기 등이 호화롭게 놓여있다. 탁자의 좌측하단에 앉은 여인은 한 손으로 다완을 들어 차를 마시고 있고, 몇몇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온하면서도 풍요롭다.


필자미상, '궁락도(宮樂圖)' , 북송, 비단 위에 채색, 48.5x70.0cm, 대북고궁박물원 소장.

그 중에도 화려하게 치장된 이들의 복식과 화장에 우선 눈길이 간다. 당시에는 그림 속 여성들처럼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미의 기준이었으며, 양 볼에는 홍분(紅粉)으로 연지를 찍고 이마와 콧등, 턱 부위에 흰 분칠을 하는 삼백화장(三白化粧)이 유행했다. 여성에 대한 지금의 미적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 는 음다법에서도 엿보인다. 그림 속에서 여인들은 탁자 중앙에 놓인 솥에서 차를 덜어 다완에 담아 마시고 있는데, 탁자 위에는 일반적으로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찻주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화가가 자칫 빠뜨리고 그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당시의 음다법이 지금의 음다법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구의 표현에서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당시에는 찻잎을 쪄낸 후에 적당한 크기로 압축해 말린 떡 모양의 병차(餠茶)를 주로 마셨다. 병차의 경우에는 그림에서처럼 차를 곱게 가루 내어 큰 솥에 넣고 끓여 각자의 취향에 따라 소금 간을 해서 마시게 된다.

당대에 일부 화가들은 점차로 예법과 도덕적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궁정취향의 탐미적인 예술작품을 제작했는데 '예술을 위한 예술' 이라고 할 만한 이러한 현상과 함께, 차 역시 이전에 귤, 대추, 생강 등을 첨가하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순수한 차 맛을 즐기기 위해 소금만으로 간을 한 '차를 위한 차' 가 생겼으니 흥미로운 일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차는 대중화됐으며, 질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도(茶道)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당시에 화려한 귀족문화에 있어서 차는 빼놓을 수 없는 여가 생활이었다. 동시에 저잣거리에 즐비했던 다점(茶店)에서 판매되는 차는 일반인에게도 인기 상품이었다.

선승들은 수행의 방편으로서 차를 마셨으며, 문인(文人)들 역시 차를 즐기며 그 흥취를 시로 표현했다. 당대의 차 문화는 이처럼 다양한 계층과 의식을 아우르는 보편성과 함께, 정신문화를 대변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당대를 기점으로 해 차를 마시는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됐다. 그림 속의 음다법은 그 다양한 모습 중 일부인 것이다. 이후 중국의 차 문화는 다인들에 의해서 체계화됐으며, 점차 동북아시아의 차 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하지만 차 문화가 중국에서 이웃나라로 일방적인 전파와 수용의 단계를 거친 것은 아니다. 차가 재배되는 지역의 풍토와 기후는 차의 맛과 성질을 변화시켰으며, 이것이 음다법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박하고 맑음을 선호하는 기호와 예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풍습에 따라 차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다일여(禪茶一如)의 정신을 강조한 불가의 선차(禪茶)를 위시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차 문화가 발현되게 됐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氣 giban 기반

■ 제품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10%DC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42 밥은 숙명

엄마의 기획상품 '도라지김밥'

어떤 일을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음식에도 숙명 같은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내게 그러한 음식은 다름 아닌 '김밥'이다. 어린 시절, 김밥은 엄마가 모처럼 마음을 먹거나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나 맛볼 수 있는 별미였다. 강원도 토박이라 매운 맛을 즐겨하는 엄마는 김밥을 만드는 남다른 비법이 있었는데, 도라지를 잘게 찢어 고춧가루, 식초와 설탕을 넣고 새콤 달콤 매콤하게 무쳐 김밥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여느 김밥과는 다르게 매콤하고 개운한 맛이 나는 '도라지김밥'은 우리 집 별미 중 별미였다. 부엌 한편에 껍질이 말끔히 벗겨진 도라지가 물에 자작하게 잠겨져있는 날은 엄마가 도라지김밥을 만들 확률이 컸다. 행여 예상이 빗나가 도라지김밥이 아닌 도라지무침이 상에 올려 지면, 김에 밥과 도라지 서너 가닥을 올려 아쉬운 대로 김밥을 만들어 먹곤 했다. 지금에야 김밥이 그 종류와 맛이 다양해지고 흔한 음식이 됐지만, 그렇지 않던 시절에 도라지김밥은 엄마만의 획기적인 기획 상품과도 같았다.



도라지를 잘게 찢어 고춧가루, 식초와 설탕을 넣고 새콤 달콤하게 무쳐 김밥재료로 넣으면 매콤하고 개운한 맛이 난다.

성인이 돼서 김밥은 실용성 때문에 찾게 되는 음식이다. 밥맛은 없는데 배에서 밥 때를 맞춰 신호를 보내올 때나, 해결해야할 일들은 급한데 눈치도 없는 배가 밥을 달라고 성화할 때, 김밥만큼 안성맞춤인 음식은 없다. 장거리를 이동을 하는 중에는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위해서도 김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다. 이러한 김밥의 실용성과 편리함 때문에 최근 들어 김밥은 내게 더욱 각별한 음식이 되었다. 지방을 자주 오가는 생활이 지속되다보니 밥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잦아지고, 차안에서 쉽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단연코 김밥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김밥으로 인한 일화는 그러한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그 사연인 즉 이러하다.

평소 나는 우등버스 타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장거리를 가야할 때는 대개 우등버스를 이용한다. 기차에 비해 요금도 저렴하거니와 편하고 넓은 좌석도 마음에 들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경치도 기차에 비해 더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어 좋다. 다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버스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의 뱃속상태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내게 기차를 권하곤 한다. 탈이 많은 나의 뱃속이 고속버스를 타고 있는 중에는 더욱 민감해져, 예정에도 없는 휴게실에 버스를 들리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하튼 얼마 전에는 부산의 한 절에서 마련한 여름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7시30분 행 고속버스에 올라탔다. 늦은 저녁을 해결할 요량으로 김밥 한 줄도 샀다. 그리고 시간 전략상, 두어 시간이 채 흐르지 않아 김밥을 꺼내들었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중간지점에 이르면 버스가 휴게소를 들리는 편인데, 그전에 저녁을 챙겨먹어야 휴게소에서 화장실 볼일을 보기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의 뱃속 상황은 얄궂게도 그러한 전략과는 무관하게 돌아갔다. 버스가 휴게소를 들러 다시 출발하기가 무섭게 슬슬 신호가 오는 것이다. 일단 참아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뱃속으로 집중된 신경을 흩뜨려놓기 위한 전략으로 음악도 들어보고 책도 꺼내어 읽다 노트북으로 밀린 원고를 끄적여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 시간이 흐르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렀고, '공익'을 위해 이만하면 애쓸 만큼 애썼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버스기사 아저씨에게로 다가갔다.

"한 이십 여분은 더 가야 휴게소가 나오는데… 좀 참아보이소."

자리로 돌아온 나는 그 기나긴 시간동안, 텅 빈 종이도시락과 나무젓가락과 먹다 남은 단무지조각이 버려진 애꿎은 봉지만 노려보며 배속에 대고 사정도 하고 달래도 본다. 결국 그날, 나를 태운 고속버스는 어김없이 휴게소를 다시 들러 목적지에 십 여분 늦게 도착했고, 그 바람에 마지막 전철을 놓치고 말았다.

'앞으로는 버스 안에서 굶어죽은 한이 있더라도 김밥은커녕 물 한 모금을 마시나보자.'

자정이 넘어 새벽1시를 향하는 시각, 동고동락하듯 달달대며 끌려 다니느라 고생 많은 캐리어가방의 소리마저도 처량 맞은 밤에 소용도 없을 다짐을 하고 또 해본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1 쉽다! 건강해지는 길

자동차 오일은 교환하는데 몸 위해 뭘 하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건강해지는 길은 쉽다. 바로 아이처럼 사는 것이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피로해져도 금새 회복된다. 왜 그럴까?

아이들은 항상 움직이고 매사 호기심을 갖고 밝게 살기 때문이다. 항상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몸의 기가 활발하게 흐른다는 것이다.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정신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병이 났을 때 무엇때문인지를 알지 못한다. 왜 아프게 되었는지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알 수가 있다. 자동차에는 연료도 넣고 오일도 교환하면서 우리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나? 밥은 연료에 해당하고 비타민, 보약은 오일에 해당한다. 자기 체질에 맞는 연료와 오일을 공급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쉽다. 건강해지는 길은 아이처럼 사는 것이고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나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면 된다. 물론 평소 나에게 맞는 연료와 오일을 주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건강을 지키는 5계명(필자 선정)

1.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식전 30분~식후 1시간 내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게 되면 위장 속에 위산농도가 묽어지게 되어 소화기능이 약해진다. 식사와 물 마시기는 따로 하는 것이 장 건강에 좋다. 그리고 체중 50kg 기준 물 2ℓ가 기순환에 필요한 양이다. 식사시간을 피해서 마음껏 물을 마시도록 하자. 물을 마시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요즘같이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때에 물 마시기는 최고의 예방법이다.

2. 하루 1시간 30분 이상 걷기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량을 반드시 움직여야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하루 1시간30분은 필수운동량이다. 걸을 때는 턱을 들고 팔을 앞뒤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턱을 들어야 척추가 반듯해지고 팔을 앞뒤로 움직여야 등근육과 뇌기능이 활발해진다.

3. 자신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먹자

사람마다 필요한 비타민이 있다. 그때 증상에 따라 필요한 비타민을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비타민을 챙겨먹는 것이 필요하다.

4. 하루 건강차 한잔 이상 마시기

국화차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녹차는 번뇌를 가라앉힌다. 홍삼차는 활기를 주고 대추차는 위장을 따뜻하게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차 한두잔 정도는 마시는 여유를 갖도록 하자.

5. 혀, 소변, 대변 체크를 생활화한다

아침저녁으로 혀를 보자. 깨끗한 혀는 100점, 백태는 80점, 황태는 70점이다. 뱃속의 건강상태가 혀에 태로 나타나니 날마다 하는 건강검진이다.

소변은 시원하고 투명한 색이 건강 100점이고, 노란색이 진하면 80점, 거품이 많으면 70점이다. 노란색이 진하면 몸속 어딘가 염증이 있는 것이고, 거품이 많으면 간기능이 약해진 것이고 당뇨병을 조심해야 한다. 대변은 황금색 바나나같은 대변이 건강 100점이고, 색이 진하고 풀어져나오면 80점,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면 70점이다. 변비인 경우에 식이섬유소가 많은 키위, 고구마, 사과가 효과적이고, 설사인 경우에는 바나나, 호박, 따뜻한 차가 좋다.

이경제 한양방의료센터salm 대표원장

1968년 출생, 1992년 경희대 한의학과 졸업, 1992년 이경제한의원 개원, 2000~2002년 MBC '일밤 건강보감' 출연, 저서 〈기통찬 한의사 이경제의 이침이야기〉 〈이경제의 건강보감〉 외, 2008년~현재 한양방의료센터salm 대표원장, 한양방의료센터 삶 www.salm.co.kr



불교박람회서 만행화 보시 열풍

스님들께 부담이 될거라 생각하면서도 저는 만행화 신발을 홍보하고자 절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스님들은 저에게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이에 힘입어 만행화를 '2007한국불교박람회'에 출품했습니다.

제가 만든 만행화를 불교박람회에 전시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2007 한국불교박람회에는 다양한 불상과 불교문화상품이 전시, 출품됐습니다.

수천가지 종류의 불교문화 상품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외국인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불교박람회가 열리는 4일 동안 만행화 신발을 전시, 홍보판매를 하면서 저희 만행화를 관람했던 사부대중은 고무신을 닮아 스님용, 불자용이 아니냐는 말을 하며 존스럽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고무신코를 닮아서 전통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진다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반시중에서 보지 못하던 신발이기에 불자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저는 제품을 설명하고 알릴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박람회 기간 동안 열심히 홍보를 하던 중 동안거, 하안거 결제에 100일간 공부하러 가실 스님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선원에 만행화 신발을 보시할 수 있도록 발원을 하면서 박람회에 방문한 불자들께 조심스레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다니는 남한산 망월사 스님과 신도님들이 불교박람회에 만행화가 전시 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동안거, 하안거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조심스레 정진하시는 스님들께 보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추었습니다.

스님과 신도님들께서는 박람회장을 다 돌아보신 후 108켤레의 만행화를 보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간절했던 발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에 보시를 하러 가게 됐고 만행화 108켤레는 강원도 월정사로 본찰 남한산 망월사의 스님, 신도회장, 불자님들의 뜻을 담아 동안거 정진 중이신 스님들께 전달됐습니다.

월정사에서 정진 중이던 스님들은 신기한 듯 회색 방한용 털신을 신어보시고 "시중의 검정 털신만 신어봤는데 이렇게 만행화 털신은 처음신어보신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님, 신도회장, 불자님들은 여러 스님들이 신발 신는 모습을 보며 뜻이 잘 전달 돼 너무나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02)733-5715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요가 개인지도, 요가 출장지도
요가 명상 무료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 명상, 오후 : 요가)
위치 : 종로2가 종각역 4번출구
사띠 요가 명상원
02)723-6817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출가 수행 예비자 모집
인천의 사표가 될 조계종 승려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40세 이하 남. 녀
지원 : 조계종 전 교육 지원
상담 후 종립에서 행자 생활 수행.
011-737-2658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각종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귀한 인연
50대 계사생 비구승입니다.
부처님 법을 펼칠 작은 도량을 찾고 있습니다.
포교당이나
암자를 가지고 계신
귀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2446-26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7484-6885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제공 가능, 인천 사찰
032)522-8131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경남 양산
011-880-6606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비구승
010-9191-2563

전국 어디든지 절이나 절 지을 터 아주 싸게 보시하실 분 연락주세요.
010-7188-7723

토굴이나 암자 무보시 하실 분 또는 무보증 월 10만원으로 보시해 주실 분 기다립니다.
(▷충남, 경기 지역을 원합니다)
010-7587-8897

전통 범패 배우면서 행자, 스님 하실 분
▷무료 탱화 필요하신분
경남
016-428-6665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논산
041)736-57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010-3188-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강서구
010-4754-0396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40-50세) 양평 용문면
010-7484-68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전지역
011-393-0013
011-710-7294

법우림 스님 소원성취 기도
- 소원성취, 21일, 백일기도 수시접수
- 천도재, 49재, 태아영가천도 수시접수
- 개인 사정과 사찰 형편에 맞게 의식집전

부 설 : 동양철학상담센터
상담사 : 혜도림 혜안정 도여림 도여경
기도성취 전법도량 자성사
문의 : 02)3663-8416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하루 저녁에 깨우치는
나경(패철) 사용법
문학박사 전 용 원 저 개정 증보판
2만 5천원 전국 서점에 있음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하신 후 전화(1688-1137)주시면 책에 저자가 직접 사인, 낙관찍고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무료 동봉하여 함께 보내드립니다.

문경 보덕암 부처님 대웅전 대지 불사금 6만원 시주 하시는 분에게는 와성효소 엑기스 (3개월 복용량)을 무상으로 보시하겠습니다.
효소의 효능 : 당뇨병, 알콜중독, 식중독, 아토피, 암 등의 면역작용 있습니다.
농협 15004-51-246526 김광일
010-3167-1860 / 054)572-186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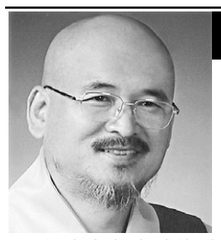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학공부
집에서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자미두수 주역
사주 전과정 45만원부터. 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 전화 1688-1137

봉은불교미술원 수강생 모집
우리나라 전통회화의 정수인 불화(탱화)를 직접 그려 보십시오.
- 모집부문 : 불화반, 1일체험
- 교육내용 : 불화(탱화), 사불화, 전통문양 및 단청문양그리기
- 일시 및 교육장소 : 2009년 9월 4일부터 수시 접수합니다

1. 일반(어른)반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5시 (천안 한암사 어린이 회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5시 (아산 봉은불교미술원)
2. 어린이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4시 (천안 한암사 어린이 회관) 매주 다섯번째 주는 쉽니다
- 수강료 : 불화(탱화반) 1달(4회) 5만원, 재료비 1만원 / 1일체험 2만원 (재료비 포함)
- 문의 : 봉은불교미술원 041)541-3545, 016-751-3545 / 한암사 종무소 041)592-4747

홈페이지 www.bongen.pe.kr 봉은불교미술원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보름단기출가학교 모집
수행자의 모든것을 경험
- 일시: 10월 5일(월)~10월 19일(화)
- 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대구큰절 · 감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등
- 출가 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오 가 피 뿌 리
오가피가 몸에 좋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수행자가 경북 안동에서 생산한 오가피 뿌리를 갈근, 두충, 당귀, 대추(이상 국산), 감초(중국산)와 함께정성껏 다렸습니다.
60팩 1박스 10만원(3박스 이상 구매시 9만원)
주문 후 입금 확인되면 3일 이내 배송해 드립니다.
농협 121022-56-217821 정부연
경북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 526 유일한농원 머슴 정원규
011-886-1256 / 070-7743-1258

명당 탐지기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상표
심룡척!!
심룡척은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90~180도 회전한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 된다.
9월 15일 가격 인상 마지막 할인 행사!!
* 그 동안 66만원에 공급해왔습니다만, 9월 15일부터 7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는 분께는 60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 수맥탐지봉(1만 5천원)+ 월간역학 1년 구독(10만 5천 6백원) 을 드림.
*신청방법: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0만원 입금 후 전화 주시면 9월 20일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드림(9월 15일 한정)
*<패철 보는 법 책(2만 5천원)>도 판매합니다. 구입 시 월간역학(8천8백원)도 함께 무료 증정.
*역학공부: 저렴한 비용, 집에서 간편 신속 확실히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주역 자미두수 동영상 강의 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www.kbs.cc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월간역학
창간 20주년 기념 이벤트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하여 주역 .사주 .관상 .풍수 뿐만 아니라 유.불.선의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수록하여 매월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월간역학은 2010년 창간 20주년을 맞는 기념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지금 회원가입 하시면 총 120만 5천 6백원을 단 10만원으로 할인해 드림.
1년 구독료 10만 5천 6백원+월간역학 <해설위원> 광고(1년 50만원)+ 월간역학 인터넷 광고(1년 50만원)란에 사진, 사찰명 한의원이나 역학자 기타 업체 상호와 영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1년간 게재+수맥탐지봉 1세트(1만 5천원) = 120만 5천 6백원. 이 행사는 10년만의 행사로 다음 기회는 2020년에 있음.
2. 회원증(호화 금박, 가로 42cmx세로 30cm), 해설위원 위촉장 보내드리며, 본사 발행 모든 도서 20% 할인, 타 출판사 취급 도서 10% 할인 해 드림.
3. 국내외 학회 및 토론회, 풍수기행 등의 행사에 초청 받으시는 외에도 많은 혜택을 드림.
가입방법: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1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주역 동영상 강의- 저렴 속성 완성
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 www.kbs.cc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무료전화 : 080-080-7373 www.soomac.org
수맥탐사 지도사 전문자격증반 13기 개강
수맥탐사 지도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등록함으로 21세기 최고 전문 직종으로 자리매김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사)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에서는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모를 질병,사고)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DOWSING 기법을 도입, 전문가를 양성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인원

수맥탐사 지도반	3급 : 취미반	야간반 - 6주 (30명) 토요일 19:00~21:00
	2급 : 자격증반	주간반 - 12주(20명) 목요일 14:00~16:30
		주간반 - 12주(15명) 토요일 14:00~16:30
	속 성 반	* 해외, 제주, 기타지역 거주자 *
	*3급 : 교육 희망 단체 상담환영	

※ 교육내용
탐사기구 사용법, 동 · 식물. 인체 영향, 수맥과 산소. 집터 관계법. 현장실습, 탐사도면 작성법 명상, 뇌파훈련 방법, 풍수지리, 인테리어(공간배치법)
2. 지원 자격
20세 이상 남녀. 학력 무관
※ 직업 원하시는 퇴직자 및 주부환영, 직장인 우대
3. 지원서류
본 협회 소정양식 각 1부 - 반명함 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 1통 (일반 편입. 자격증 수료증사본 1통)
4. 특 전
◎ 사)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2급 자격취득(국가민간자격등록 2009-0028)
◎ 수맥 상담 탐사지원, 개인 샵 지원, 강사파견, 1급 입학자격부여
◎ 환경처방 제품 지원, 중국 지회 견학 파견, 다우리 상조 활동지원

◇ 개강일 : 9월 10일(목) 14:00 (선착순 모집)
9월 12일(토) 14:00 취미반: 19:00
※ 전 교육이수자에게 수익사업 알선지원 우수지도자 강사 배출파견

사단법인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교육문의 : 서울 02)337-3467 / 010-3837-7833

불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수 제품입니다
요술연꽃 촛대 (불자 및 가정용)

요술연꽃세트(홍련→백련)

장수거북연꽃세트
특 징 (티라이트전용)
1. 경제성 : 1회용이 아닌 반영구성
2. 친환경 : 천연왁스만을 사용
3. 다양성 : 카멜레온 기능(요술)
4. 메시지 : 종교적 의미(홍련 → 백련)
가 격
- 요술연꽃세트 15,000원 (연꽃, 받침대, 티라이트 1개 포함)
- 연꽃크기 : 직경 8cm
- 장수거북연꽃세트 23,000원

egaart www.egaart.co.kr ☎ 031)882-0512 Fax. 031)881-6201

아기보실 분
사찰에서 3세 아기 보실 분을 모십니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도록 챙기고,
오후 5시 ~ 밤 10시까지 돌봐 주시면 됩니다.
사찰 內 방 2칸, 부엌 1칸, 욕실 1칸 제공합니다.
(살림 가능, 가족 있어도 됨 / 금액은 전화 상담 후 절충)
011-9236-6569

점 포 임 대
부산불교회관 (부산시청 옆)
(2층, 81평) 전통찻집 하던 곳
문의 : 여여선원
☎ 051)853-5486~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오후 마감.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5억 (지하철역 100m)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4억 5천 (조정가)

- 위치 : 경남 (남해청정해수관음도향)
- 법당 : 50평
- 요사 : 130평
- 부지 : 920평
- 가액 : 2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00평
- 법당 :지상4층(160평)
- 시내최고자리고찰
- 급양도가 : 20억

- 위치 : 경기
- 대지 : 13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5천

- 위치 : 전남
- 부지 : 12,0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가 보이는 사찰(3층)
- 총대지 : 약 108평
- 법당 (와가) 30평, 공양간 30평
- 요사채 방 8개, 공양간 30평
- 법당 뒤편 산(공원)
- 도심 중앙 도접
- 가액 : 4억 3천

지리산 최고 아름다운 토굴
- 대지 총평수: 1450평
- 토굴 30평(현대식)
- 토굴 주변 산세, 전망, 풍광 최고
- 계곡물 사계절 졸졸
- 주차장 및 텃밭 마당넓은 절
- 가액 : 2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비밀보장 철저, 세무상담 무료 서비스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사 찰 안 내

- 위치:부산 1호선 전철에서 2분거리
- 자연녹지 300평,
- 하천부지 300평 위에 법당 40년(슬레트법당)
- 대지: 양산 30년 절(전세)
- 가액: 보시고 절충

010-9613-556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
- 약 900평
- 법당, 요사채
- 산세 수려하고 물도 좋음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1억 8천만원

055)672-034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 대지: 357평, 임법당 37평, 요사18평(실제사용 25평)
- 창고건물 10평, 정원정비 잘 되어 있음, 3층석탑
- 사찰연대 35년 됨, 인등 250개, 법당등 500개 이상 설치됨
- 가액: 3억(절충가능)

010-4029-48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산시 소주동
- 단독주택 약 40평, 법당1, 방2, 요사채, 창고2, 버스종점 바로 앞,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650만원(절충가능)
- 스님 사정상 급 양도

010-4528-9807

한 국 불 사

- 서울 약 50평 9억
- 경기도 4억 8천만원 외 매물 다수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재개발 지역 보상문제 상담환영

02)6674-3535
010-3154-3535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종무소 법당 에어컨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8653-3216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석관동
- 평수: 3층 건물 2층 42평
- 구조: 법당 25평, 방2, 주방, 간이 사무실, 화장실
- 시설: 불단(원목) ,영단(영구위패 500개) 1년연등(500개)등 최고급 시설
- 가액: 보증금 2천 월 8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7609-092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김천역 10분거리
- 법당, 요사채 각 2층
- 대지 170평, 법당 45평 요사채 60평
- 김천 혁신도시, 고속철 역사 도로 개입
- 가액: 7,000만원 인수 (대출 승계 조건)

054)435-38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도 군포시 군포역전 시장 앞
- 5층건물 중 2층 전체
- 약 80평.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8811-75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역 근교 (4층)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5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40평
- 완벽한 시설, 즉시 법회 가능
- 스님 사정으로 급 안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0만원

051)501-2723

암 자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
-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별채 8평,
- 부지 400평(등기 150평)
- 가액: 9천 8백만원

010-6695-0115

사 찰 안 내

- 위치: 강남 김해시 삼방동
- 평수 : 55평
- 법당 완벽, 호신불 150불
- 오존불, 탱화
- 시설일체완비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10-6215-974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 평수: 55평, 2층건물에 2층
- 삼존불, 지장보살님,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시설비 900만원

010-7188-2981

포교원 안내

- 위치 : 주문진읍 시내
- 평수 : 22평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0-5201-83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
- 대지 230평, 법당 15평
- 요사채 15평(황토방 2칸, 작은방 3칸), 창고 10평
- 가액: 5천 5백만원

054)834-908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능곡 전철역 3분거리
- 3층건물 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냉난방완비
- 시설총액 1억원 이상 소요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 4천만원

010-9889-9442

도심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청주시 우암산중턱
- 대지60평, 건평 80평
- 특징: 현재 신행과 포교 활성화 된 도량, 주변 주차장, 소방도로, 공원 등 여건 좋음
- 가액: 2억 5천만원(가격절충) (대출금 5천 5백만원 포함)

010-2259-63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김천 중간
- 대지 : 532평
-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 통나무집 1채, 총 7채
- 가액: 2억

011-540-331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문수사)
- 부지 총 1,700평중 540평 종교부지
- 건물, 임법당, 요사채, 산신각포함 100평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소요되었음
- 스님의 건강악화로 2억에 급히 양도함
- 특징: 조그만 암자나 교통편리한 다른 건물교환 가능합니다.

055)572-0405
011-9850-820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
- 법당: 60평(2층)
- 요사채: 60평(1층)
- 가액: 2억 8천만원(절충가능)
- 자연경관수려, 지하천연수 시설 최고 완벽

016-347-5308
033)661-5308

토 굴 안 내

- 위치: 청도 비슬산 자락
- 부지: 1400평
- 가옥: 황토집(58평)
- 창고: 22평
- 특징: 산속 청정계곡 참 좋은터
- 가액: 6억 5천만원

010-9057-211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마산 운동장 옆 산호시장 부근
- 평수: 30평(3층 중 2층 전체)
- 삼존불, 신중탱화
- 즉시법회 가능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백만원
- 스님 부재 중으로 급 안내

055)232-7151
019-550-972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
- 평수: 2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3천만원 (집기류포함)

011-491-234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8부능선
- 평수: 대지 50평 건평 45평

010-8856-440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3동
- 2층, 30평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완벽
  시설비 : 2000만원

051)752-5856

사찰(급)안내

- 위치: 포천시 송우리(의정부경계)
- 총평수: 430평
- 1. 2층 건물 중 1층 명부전 50평(위패단 및 극락도량) 2층 대웅전 34평
- 2. 별채 1호 80평 중 1층 휴게실, 2층 산신각 및 선방 1칸
- 3. 별채 2호 150평중 일부 주차장 일부 60평 중 종무실, 매점, 공양실, 선방2칸, 화장실4평
- 모든집기 일체 양도합니다
- 가액: 15억 5천만원

010-9757-7245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 부지: 총 1650평,대지 300평
- 건평 100평
- 구조: 법당 요사채 2동 산신각 용신각, 황토벽돌 .
- 요사채 1동은 구들방으로 된 황토 귀틀집임(방 5개)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320-884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600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고층질수있음)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5억(절충가능)

011-9888-1563

사 찰 안 내
단 독 주 택 사 찰

- 위치 :고양시 서오능 부근
- 대지 : 179평
- 가액 : 7억

011-9495-1261

부 산 대 사 찰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 국유지 : 480평(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 11억 5천만원

011-563-1545

포교원안내

- 위치: 성북구 길음동 전철 출구 바로 앞
- 4층건물 중 2층
- 실평수: 40평, 법당 20평
- 방2, 욕실, 공양간, 삼존불, 후불탱화,각단탱화(고려불화)
- 가액 :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총 2000만원

010-2665-239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5억 5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 총776평 (대지238평, 전538평)
- 건물 : 요사채 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산신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이상 (3년~4년생)
-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 진입
- 함창읍에서 2분 ~ 3분거리, 점촌에서 5분
- 가액: 1억 2천만원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 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의 정류소 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3천 8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춘천시 남산면
- 교통: 가평 터미널에서 10분 강촌 나들목에서 12분
- 특징: 완벽한 기도처, 현 산중턱 독립펜션운영중
- 평수: 700평, 가옥 50평 사찰터에서 펜션을 운영하니 사정상 사찰을 하실분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가액: 5억 3천만원(주변 땅은 매입 가능함)

033)263-1719
019-9177-1084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 삼성가 목조 5평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 : 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전원주택 ·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텃밭 1개
- 산중턱 황토집, 심야보일러
- 집근처 강이 흐르고 경치가 아주 좋고 , 조경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
- 가액: 3억 3천만원

033)462-9734
016-337-9736

콩만한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용암사)
- 대구에서 50분 창영에서 20분 합천에서 25분 부산에서 80분) 진주에서 대구가는 국도 20번에 접합
- 100M 차량 출입가능
- 대지: 200평+200평...평당 약 20만원
- 건물: 법당(목조 13평 6천소요)
- 요사채(신축 32평: 슬라브일부기와. 평당 300만 소요)토목 및 석축 옹벽에 많이 소요되었음
- 가액 : 몽땅 1억 4천만
- 스님 부재로 운영곤란 하여 양도 하려고 합니다

011-9329-4241(처사)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서울 강서구 화곡역5분거리
- 평수: 2층건물 2층. 45평
- 옥상방1개(옥상 사용)
- 구조: 법당, 방1, 주방, 화장실
- 시설: 삼존불, 상단, 신중단, 영단 원목 불단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3889-8078
오전 10시 ~ 오후 9시까지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213-1번지
- 마을과 국도 150M거리 산밑
- 법당 10평, 단청(방2), 요사채30평, 큰주방1, 큰방2, 실내화장실1, 샤워실1, 창고10평, 실외화장실 2, 산신각
- 총 340평,마당넓음, 주차10대
- 법당 앞 돌탑, 텃밭, 심야온수전기보일러
- 가액: 전세 3,500만원 시설비 없음

010-7157-067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후문 부근
- 5층 건물에 3층 약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85만원/시설비 2,500만원
- 상담하시는 스님 최적지

02)887-2138
010-9940-9779

공양 올린 승려가 36만, 하루에 3000명 출가 시켜

<41> 요(遼) · 금(金) · 원(元)대 제왕들의 불교정책

송대(宋代)에는 북방으로부터 요(遼), 금(金), 원(元)의 소수민족들이 차례로 흥기해 중원(中原)을 위협했다. 이들 삼국의 통치계층은 당시 주류를 차지했던 유가(儒家)를 받아들이면서도 불교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따라서 이들 삼국황제들의 불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요하(遼河) 유역에서 생활하던 계단족(契丹族; 거란족)들은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의 통치로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 신책(神冊) 원년(916)에 계단국을 세웠다. 대동(大同) 원년(947)에 야율덕광(耶律德光)은 국호를 '요(遼)'로 개명했고, 보대(保大) 5년(1125) 금(金)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9대 황제 210년의 역사를 남겼다.

요대의 불교는 중국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전래됐다. 당(唐)의 천복(天復) 2년(902)에 하북과 하동의 9군(郡)을 점령한 후 거란족 최초의 사찰인 개교사(開敎寺)를 창건했다. 그 후, 신책 3년(918)에 태조 야율아보기는 "공자묘와 불교사찰, 도관을 각지에 건립하라"는 조칙을 내린다.(<요사(遼史)>권1 <태조본기>) 천찬(天贊) 5년(926)에 태조는 발해(渤海)를 평정하고 대부락(大部落)마다 사찰을 건립했다. 모두 '천웅사(天雄寺)'라고 통칭해 발해로부터 귀화하는 승려들을 머무르게 했다. 태종인 야율덕광이 천현(天顯) 11년(936) 연운(燕雲) 16주를 차지하고 유주(幽州)를 연경(燕京; 현 北京의 서남부)으로 바꾸면서 요의 황제들은 불교를 극도로 중시하기 시작했다. 회동(會同) 5년(942)에 태종은 황태후가 병에 걸리자 탕약을 친히 복용시키고 보살당(菩薩堂)에서 기도를 올리며 승려 5만 명에게 공양을 올렸다는 기록이 보인다.(<요사>권4 <태종기>) 이로부터 불교가 아주 빠르게 요나라에 전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야율융서(耶律隆緖; 983-1031 재위), 야율진종(耶律眞宗; 1031-1055 재위) 등의 황제들도 모두 불교에 귀의해 친히 수계를 받았고 많은 사찰들을 창건했다.

도종(道宗)인 야율홍기(耶律洪基; 1055-1101 재위)에 이르러 요대의 불교가 극성기에 이르렀다. 도종은 유가와 불교의 전적에 정통했다. 특히 범어(梵語)에까지 능통해 막힘이 없었고, "널리 공부해 용수(龍樹)를 회통했고, 근원을 찾아서 마명(馬鳴)을 홀로 헤아렸다"고 할 정도로 교학에 뛰어났다. 특히 도종은 화엄에 뛰어나 <화엄경수품찬(華嚴經隨品贊)>과 <화엄경찬(華嚴經贊)> 등을 찬술했다. 또한 도종은 계율을 매우 중시해 궁정에 계단(戒壇)을 시설해 율학(律學)을 융성시켰다. 재위 중에 "공양을 올린 승려가 36만이고, 하루에 3000명을 출가시켰다"(<요사>권22 <도종기>)는 기록이 보일 정도이다. 이로부터 요국의 황제들은 대부분 불교에 귀의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또한 그에 따라 대규모의 불사(佛事)들도 함께 행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요대의 역사와 남긴 문헌들에 따르면, 황제와 귀족들이 거금과 막대한 토지를 보시해 사찰을 창건하거나 대장경을 인쇄했다는 기록이 다양하게 보인다. 또한 요대의 민간불교에서는 특히 '결사(結社)'가 유행했다. 이른바 '천인읍사(千人邑社)'라는 결사의 형태인데, 수많은 신도들이 힘을 모아 보시를 하는 형태로 그 목적에 따라 '사리읍(舍利邑)', '미타읍(彌陀邑)', '도솔읍(兜率邑)', '공등탑읍(供燈塔邑)' 등 다양한 명칭들이 나타난다.

금(金)의 불교 역시 황제와 귀족들의 주도로 일어났다. 북송의 휘종(徽宗) 정화(政和) 5년(1115)에 본래 요의 지배를 받던 여진족(女眞族) 완안부(完顔部)의 추장 아골타(阿骨打)는 요의 군대를 물리치고 '대금국(大金國)'을 건립했다. 금의 천회(天會) 3년(1125)에 북송의 군대와 연합해 요를 멸망시키고, 다시 그 다음해 변경(汴京)을 점령해 북송을 멸망시켰다.

거란족과 다르게 여진족은 고구려와 발해의 영향으로 이미 불교가 전래돼 널리 퍼져 있었다. <금사(金史)>에 따르면, 개국공신인 종웅(宗雄)이 죽자 태조 아골타는 그를 위해 불사(佛寺)를 건립했다.(<금사>권37 <종웅전>) 또한 아골타를 계승한 태종 완안성(完顔晟; 1123~1135 재위)은 불교에 귀의해 황궁에 부처님을 모셨다.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권19에 따르면, 천회 원년(1123)에 "황제가 궁성에서 친히 서광을 보았는데, 빛 가운데 부처님이 현현하셨다. 그에 따라 조칙을 내려 불상을 조성해 궁성에서 공양했다. 황제는 친히 쓸고 닦았고, 매번 무릎을 꿇고서 공양 올리기를 몇 년이 지나도록 힘들어하지 않았다. 매년 법회를 열고 1만 여 승려에게 공양했다"라고 한다. 세종(世宗) 완안옹(完顔雍)이 즉위(1161)하면서 금왕조는 전성기에 이른다. 세종은 흥불정책을 세워 대정(大定) 2년(1162)에서 대정 24년(1184)에 이르는 기간에 연경에는 대경수사(大慶壽寺)를 건립하고 막대한 재물과 전답 20경(頃; 1경은 약 2만평)을 희사했다. 또한 앙산(仰山)에 서은사(棲隱寺)를 창건해 전답을 보시하고, 1만 여 승려를 출가시켰다.

그러나 세종은 당시 금나라는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군비의 확충을 위해 송의 제도를 모방해 공개적으로 도첩, 사호(師號), 사액(寺額), 자의(紫衣) 등을 매매했다. 이는 불교가 외형적으로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승가의 자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장종(章宗) 완안경(完顔璟)은 기본적으로 세종의 불교정책을 계승했다. 명창(明昌) 4년(1193) 북방의 저명한 만송행수(萬松行秀) 선사를 궁궐로 청해 설법을 들었다. 승안(承安) 2년(1197)에 다시 재정의 궁핍으로 도첩을 매매하게 됐고, 승안 4년, 태후의 유명(遺命)으로 화룡부(和龍府)에 대명사(大明寺)를 건립해 3만 승려를 출가시켜 도첩을 보시하고 명복을 기원케 했다. 그러나 장종은 세종보다도 철저하게 승가를 관리했다. 승려의 사도(私度)를 철저히 금지시켰다. 왕실과 귀족의 집에 출입을 통제했고, 3년에 한 번씩 승시(僧試)를 치르게 했다.

승려들에게 부모를 참배케 하고 상례를 치르도록 규정했다.(<금사>권9 <장종기>) 장종 이후, 몽고군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자 군비의 지출을 위해 더욱 많은 도첩 등을 매매해 결과적으로 승단의 부패와 타락을 부추겼다.

세조 쿠빌라이는 숭불(崇佛)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불조통기> 권48에 따르면, 원의 중통(中統) 원년(1260) 세조는 티벳 사카파[薩迦派]의 5대조인 판디타[八思巴]를 '국사(國師)'로 삼아 옥인(玉印)을 하사해 전국불교를 다스리게 했다. 10년 후, '제사(帝師)'로 승격시키고 '대법보왕(大法寶王)'에 봉했다. 세조의 숭불에 대한 계기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불조역대통재> 권22에 보이는데, 세조가 제사에게 묻기를 "사찰을 건립하고 탑을 짓는 것은 어떤 공덕이 있는가?"라고 하자 제사는 "복(福)과 음덕(蔭德)이 무량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로부터 인왕호국사(仁王護國寺)를 건립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세조는 매년 보시를 행하고 승려들을 출가시키며, 대장경을 읽으라는 조칙을 내렸다. 불법으로서 황실을 지키고자 궁정을 "모두 범자진언(梵字眞言)으로 장식하고, 행주좌와에 불법과 어긋나지 않도록 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조는 다만 '구복(求福)'과 '진국(鎭國)'을 위한 것이었지, 보다 깊은 교학이나 선에 대한 관심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세조의 불교정책은 원대에 그대로 지속됐다. 황실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은 불교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계기가 됐다. 지원(至元) 28년(1291) 선정원(宣政院)의 통계에 따르면, 천하의 사찰이 4만2000여 개소, 승니(僧尼)가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고 돼 있다.(<불조통기>권48) 이는 불교가 가장 성행했던 당대(唐代)보다도 더욱 큰 규모다.

요 · 금 · 원대황제들의 불교정책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북방의 소수민족 정권에 의한 친불교적인 정책, 특히 원대 황실의 재정적 지원은 유학을 중시한 양송대에 침체되었던 불교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또한 중국 거사불교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하겠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당시 주류였던 유가 받들며 불교에도 우호적
황제 · 귀족들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융성



그림 · 김홍인

설법 · 화술
최면, 설법, 강의, 축사 등

1.교육일정
◆ 개강일자 :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7시~9시까지
◆ 모집인원 : 종합반 선착순 10명 개인지도반 수시접수
◆ 교육비용 : 35만원, 2개월과정(8회)

2.교육내용
◆ 설법, 강의, 축사, 회의 토론 등, 실습
◆ 말에 힘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실습
◆ 대인 불안 공포증 없애기,
◆ 음성언어, 제스쳐, 시선 처리 등, 실습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피드백

3.지도교수 김철회 박사 40년 노하우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H·P 011-248-1567
TEL 02)747-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대한불교 비구니조계종 입종을 환영합니다

첫째, 본 종단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도의국사를 종조로 소의경전은 금강경 육조단경으로 하고 기타경전은 제한치 아니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보하고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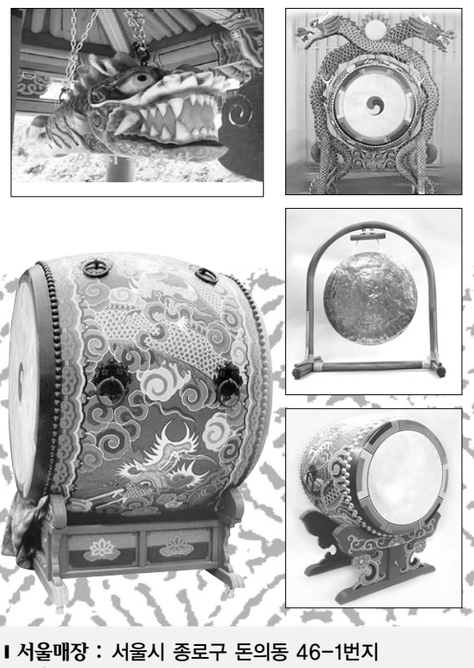
둘째, 종도님들 께서 현재 가지신 신분과 재산 등 기득권은 그데로 인정하며 종단운영은 맑고 투명하게 종도님들과 더불어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최초의 파자파티(비구니)스님이 남존 여비의 어려운 시대상황을 극복하고 출가하여 지금의 비구니스님의 설자리를 마련하였음을 강하게 믿습니다.

파자파티비구니 스님의 뜻을 받들고, 양성평등시대에 걸맞는 비구니스님의 입지를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불자님들의 포교를 확대 강화하는데 뜻을 함께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입 종 안 내
■ 종단명 : 대한불교 비구니 조계종
■ 종교단체등록 (26111-00154)
■ 비영리법인고유번호 (620-82-67363)
■ 총무원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83-20번지
■ 연락처 : 052)225-7378 / FAX 052)277-0194
H.P 010-7135-7378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43기 氣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마사지나 지압등의 수기법이 아닌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다.
▶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전문가반 개강
◆ 수련일자 : 9월 5일(토) 오후 2시~4:20(주1회 6개월)
◆ 대 상 자 : 기치유능력이 있거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양성반 개강
◆ 수련일자 :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4:20(11주과정)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문의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웃음보살 불등거사 〈59 · 끝〉

구성 : 김흥인



소금만 먹은 사람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싱거워 맛이 없다고 불평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음식에 소금을 넣어주었다. 그는 소금을 넣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음식이 맛있는 것은 소금 때문일 것이다. 조금만 넣어도 맛이 나는데 하물며 많이 넣을 때와 견주겠는가' 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무지하게도 소금만 먹어댔다. 그 결과 입맛이 틀어져 도리어 병이 나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외도들이 음식을 절제해서 도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7일 또는 보름 동안 음식을 끊은 결과, 배만 고파지고 깨달음을 얻는 데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과 같다.
저 어리석은 사람이 소금이 맛있다고 생각해 그것만 먹어 결국은 병이 난 것처럼 이것도 그와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삼생동안 서로 만나다 삼생상우(三生相遇)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삼생상우(三生相遇)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원관(圓觀)이 낙양의 혜림사에서 은사(隱士)인 이원과 아미산 천축사를 가다가 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12년 후에는 천축사에서 소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이안에게 법을 설하는 모습을 통해 삼생을 통해 만나는 광경을 시간대별로 판각한 작품이다. '이원방원관(李源訪圓觀)' 이야기의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원관 스님과 이원 두 사람이 아미산(峨眉山)으로 구경 가다가, 어느 지방의 길가에서 한 여인을 보고 원관 스님이 "내가 저 여자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태어난 지 사흘 후에 찾아오면 당신을 보고 웃을 테니 그러면 내가 확실한 줄 아시오. 그리고 열두 해가 지난 뒤 천축사로 찾아오시오"라고 말했다. 원관 스님의 이야기가 너무 이상해서 이원이 스님의 말대로 수소문해서 여인의 집을 찾아가 보니 사흘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었다. 이원이 아이를 보자 그 아이는 이원을 보고 웃었다. 이원이 이로써 그 아이가 원관 스님의 환생인 줄 확실히 알았으며, 그리고 12년이 지난 뒤 팔월 추석날 이원은 천축사로 찾아갔다. 갈홍천(葛洪川)이라는 개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 달이 환히 밝은데 저쪽을 보니 웬 조그만 아이가 소를 타고 노래를 하며 오고 있다. 이 노래를 듣고 이원이 달려가 절을 하고 말했다. "원관 스님! 건강하십니까?" 그러자 목동이 대답했다. "이 공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선비요, 나와 그대는 길이 다르니 삼가 서로 가까이 하지 맙시다. 그러나 세간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오직 부지런히 수행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곧 다시 서로 만나게 될 것이오." 아이는 저만큼 떨어져 소를 타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었다. 이원은 그제야 그 스님이 도를 통한 큰스님인 줄 알고, 더 가까이 해 법문을 듣고 공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돌아가서 열심히 수행했다. 원관 스님은 삼생에 걸쳐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자유자재한 삶이었다. 성철 스님께서도 법어집에서 이 이야기를 전생의 일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며 자유자재한 것이기에, 영겁불망하는 대자유인의 삶을 표현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동학사

동학사 오르는 길 물푸레가 길을 연다
햇살에 부푼 팔뚝 실핏줄이 투명하다
저 가지 물에 꽃음녀 보랏빛으로 물들까
결빙의 이야기들이 잔설로 쟁여져 있는
가파른 산허리를 지친 몸으로 오른다

어디서 계곡 물소리 빈 그늘을 흔들고
아직은 온통 잿빛, 연초록 언제 물드나
물푸레, 물푸레나무 나지막이 부르면
산문에 오르는 길이 물빛으로 환해진다

–박지현 21세기시조동인지 〈건반과 고삐〉

대관신청기간 : 2009년 9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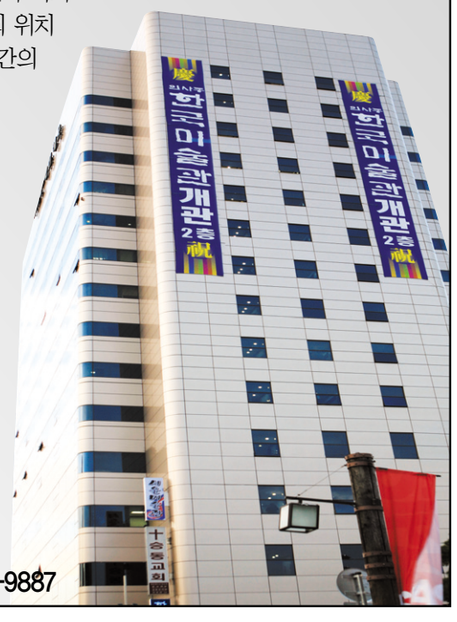
2010년 대관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2층 전층 436평

- 전관 1360㎡(412평) (공유면적포함)
- A관 700㎡(212평) 〃
- B관 660㎡(200평) 〃
- 1관 554㎡(168평) 〃
- 2관 462㎡(140평) 〃
- 3관 343㎡(104평) 〃
- 사무실 80㎡(24평) 〃

첨단 전시 시설을 갖춘 대형 전시장!!

한국미술관은 대표 화랑가인 인사동의 중심 인사동사거리에 위치한 대형 전시관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미술 애호가,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시 작가들의 작품 홍보에 최적의 위치로, 최상의 전시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관신청 문의 및 접수
· TEL : 02)720-1161~2
· H·P : 011-275-4330 관장 이홍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2층
· 홈페이지 : www.koreagallery.co.kr



불자가 개관한 미술관입니다. 불교서적과 미술서적을 전문으로 출간하는 이화문화출판사에서 미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불자님과 스님의 전시를 정성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화문화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67-2
月刊 書藝文人畵 TEL 02)732-7096~7 / Fax 02)738-9887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길을 묻는 이에게

한발 한발 떼놓으면서도 짊어지지 않고 가는 도리 알아야


그림 · 최주현

부산지원에서 여러 불자님들과 더불어 큰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스님들께서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 스님들을 뵙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황송하고, 또 노스님을 뵈오니 아버님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더불어 불법을, 아니 불법이라기보다도 세상 이치를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한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 불(佛)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전체를 싸고 돌면서 모든 생명을 생산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 불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며 교(敎)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돌아가는 이 자체, 말하고 통하는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단어가 어느 한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끝없는 진리를 표현하는 방편으로써 불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어느 교를 막론해 놓고 불교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물 한 그릇도 흙 한 줌도 역시 모두가 그 생명의 근본이 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판을 붙여 놓고 내 종교, 네 종교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항아리 속에서 진드기가 공에 매달려서 살듯이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구 바깥을 벗어나서 우주로 마음을 돌려 보실 수 있다면 우리 불교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개혁이 돼서 앞으로 성스럽게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면서, 실천 또 실천, 그리고 또 실행을 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티베트 불교 일본 불교 통일교, 모든 종교들이 나서서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싸우는데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부산의 여러 스님네들을 뵈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스님이라고 하기보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왜냐? 그것은 법랍이 높고 낮고 간에 그 마음 때문입니다. 서로 위해 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받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가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도는 다 어디 가고 수행자들이 서로 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한인회관을 서로 팔아먹고 서로 잡혀먹고, 서로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아서 외국에서도 비난을 받는 많이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놔두고 참, 스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불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은 체계적으로 못하지마는 그 뜻은 아마 조금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부산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보고 그랬지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의 감사함을 느끼고 또 흙의 감사함을 느끼고 바람으로 인해서 공기의 감사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불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당초에, 생명이 생기기 이전에 지금 현재의 지수화풍에 의해서, 흙과 물과 바람 이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바로 거기에 따뜻한 원기를 줌으로써 생명체가 생기고, 그 생명체가 생김으로써 바로 우리는 불이라는, 생명이 생기기 이전인 불이라는 그 자체의 불성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뭉쳐서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생명이 나온 것인데, (컵을 들어 보이시며) 이것도 역시 세 가지가 뭉쳐서 불에 구워졌기 때문에 이 컵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그렇게 한데 합쳐서 온 누리에 어떠한 거든지…, 혹성이 돼서 그것이 부딪치고 또 깨지고, 부딪치고 모이고 부딪치고 모이고 그러면서 수억겁이 흘러서 미생물의 문제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생물이 수없이 흘러나오는데, 묘한 것은 그 미생물은 넷이 동업자가 돼서 같이 했지만 네 종류로 나왔습니다. 태로 낳고 알로 낳고 화해서 낳고 습(濕)에서 낳고 이래서 네 가지로 화현을 했는데, 묘한 것이 있어요. 물의 성품은 물의 성품대로 물에서 살게 했고, 바람의 성품은 바람의 성품대로 날면서 살게 했고, 습에서 난 것은 습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습에서, 이 땅에서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기묘한 것이 불입니다. 불의 성질! 그런데 불의 성질은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근본, 세상에 나기 이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 자체는 모든 것을 포괄하게 돼 있고, 모든 것을 같이 이끌어 돌아가는 한마음의 끝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이든 더하고 덜함이 없이 그 소중한, 바로 불이라는 보배가 우리에게 전부 주어졌다는 겁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우리는 쫓고 쫓기면서 단계 단계를 밟아 진화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미생물의 단계 또 곤충의 단계, 동물의 단계, 즉 인간의 바로 밑에 있는 코끼리라든가 소나 말 같은 단계를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됐다 합니다.

여러분이 먹히고 먹고, 쫓기고 쫓고 부딪침을 거듭하며 뼈아픈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다 하더라도 인간 이 자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인간으로 세 번을 태어나 살아야 인간 됨됨이가 제대로 된다, 바로 부처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짐승으로 살다가 금방 인간이 된 사람은 가끔 짐승의 짓을 잘해서 행동 자체가 거칠고 악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생각을 돌려서 공한 자체를 알고 인간으로서 행해야겠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돌아가는 지금 이 시점의 공한 자체를 부처님께서는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했던 그 사생 자체가 얼마나 묘한지…, 물의 성질을 띄고 나왔기 때문에 물에서 살고, 또 흙에서 살고, 습한 흙에서 살고 또는 날아다니며 사는 사생들이 불성을 다 가졌지만 사람만이 좋고 나쁜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나쁜 짓도 하겠지마는 좋고 나쁜 것은 다 압니다. 인간도 차원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인연 지은 대로, 악업 선업을 지은 대로 여러분의 몸속에 뭉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딩어리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자체 생명의 의식들은 스스로, 내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있는 자생중생을 제도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바로 다스리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대로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그 마음이 한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한마음에다가 놓고 다스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모든 마음들을 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옳다고 하시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입니다. 다 여러분의 생각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게 하나도 없고 그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으면 작은 대로 쓸모가 있고 크면 큰 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찮은 허망함 속에 진짜 참자기가 있으며 참진실이 있고 실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한 사이가 없이 하고, 또는 하고도 한 사이가 없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마음의 도리를, 스스로 고정됨이 없이 한 발 한 발 떼어 놓으면서도 짊어지지 않고 가는 그런 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고 다니는 것처럼, 놓으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나오기 이전의 배낭

☞26면으로 계속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학인 모집
영남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8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수 강 일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6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서진주 I C에서 5분거리〉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 문의전화 : 055)747-8419
영남범패불음원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사)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 불교예술로 승화된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에서 의식교육 3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 의 내 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의 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화	2시~5시 야간반7시	30명 (6개월)
2.의 식 전문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법 각종사찰행사전문반 ⊙전통예능(범음범패:삼신이운,진언성,복청게,원강도량,운심게,오공양소리,진령게,사다라니,육건이,실개수공발보리,칭양성호,관욕게,합장게,영산작법소리등,30여곡)	목	2시~5시	20명
3.작법무반	바라,나비,사찰학춤	금	2시~4시	30명
4.국악기반	태평소,단소,대금 (영산회상,청성곡등)	금	4시~6시	30명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 기숙승방 운영(선착순 우선):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嶺南佛敎藝術大學
Young Nam Buddhism College of arts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스님 전국에 배정되어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어려운 불자 자녀들의 장학기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 051)327-509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buddhanews.com

모든 것 한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니 거기다 맡겨놓아라

☞25면에서 계속

을, 악업 선업이 들어 있는 마음의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과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짊어지고 나왔으니 말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고 했지만 바로 미래도 여기 있습니다.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나오니까 정신계와 물질계의 그 깊은 사연들은 삼합이 합해 합쳐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도 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50% 정신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부처님의 본뜻을 받지 않고 오직 그렇게 물질세계에서만 끄달리고 있습니다. 흑, 욕심, 아만, 아상, 아집 이 모두를 한꺼번에 짊어진 채 거기서 나오는 대로, 배낭 속에서 나오는 대로 온통 성질을 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온통 싸우고 분통을 내고 또는 병고를 앓고, 온통 야단법석이죠.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악업 선업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게 무엇인가?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인과성이 수없이 거기에 들어서,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이 끓어오르듯이 온통 나오는데, 그 방울 방울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배낭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산 것만큼, 행한 것만큼, 바로 자기가 저지른 것만큼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짊어지고 나왔고,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누구의 탓을 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내가 짊어지고 나온 탓이니까 말입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세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고 그게 화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도 직선적으로, 직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내가, 공한 이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게 하나요,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점프해서 뛰어넘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체가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진화돼서 나왔구나! 그랬으니까 그 나온 거는 나온 거로되 무조건 놓고 가야겠구나!' 하는 거죠. 즉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하고 바로 맡겨 놓고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정신계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며 그런 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붙이고 또 붙인다면 그건 영원히 참자기의 그림자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맛도 못 볼 것입니다. 그 맛을 알아도 남한테 일러 주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맛을 모르고 내 몸 하나 이끌어 가지 못한대서야 어찌 불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세계로 치닫게 되는 교차로에 놓여 있는데 물질세계 50%만 가지고 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철학이니 지리학이니 천문학이니 하고 무수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죠. 그럼 요거부터 맡씀드릴까요? 미국의 하버드대학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수님들하고 전부 같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스님! 지금 우리는 우주에서 천파를 통해서 외계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해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천부당만부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무전전화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놓아야 남한테 무전전화도 하고 무전전화도 받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그 통로가 막혀 있다. 모두 각자 나에게 통로가 있으니까 그 통로를 바로 틔워 주어서 물리가 터지고 모든 게 파악이 된다면 내가 두루 맘험할 것이고 볼 것이고, 두루 들을 것이고 환나툼나 만날 것이고, 내가 결정지을 것이고 내가 안팎으로 통신하는 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라는 그 이름 없는 부처님 그 자체는 바로 진드기 밥 하나도 내 밥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광발이라 했고, 모든 손도 내 손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평손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내 손 아님이 없고 내 손 없는 데가 없고 내가 없는 자리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두 당신네들 마음속에 통로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 마음속의 통로를 안다면 벽도 붓장도 없어서, 자기 마음으로 창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 있던 자기가 창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감옥에서 탁 틔어져 나오니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두루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두루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즉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귀로 듣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더 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의견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실험하고 했더니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아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거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미거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팝그릇을 보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이것을 갖다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보나마나니까요. 가고 온다 하더라도 아무 실천이 없다면 가고 와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들어도 행하지 못하면, 진실된 행을 못한다면 한데로 떨어지고 그건 소용없는 거니까요. 과거를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만으로는 도가 아니죠. 그러나 과거를 알아서 현재의 그 다섯 가지를 글리면서 모든 거를 실천하고 자비로써 한마음이 돼서 발전시키고 개혁해 나갈 수 있다면 바로 힘이 엎이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지금 언어로 말하자면 속명통은 컴퓨터, 타심통은 팜지기, 신족통은 팩시밀리, 천안통은 천체망원경, 천이통은 천체무전통신기인데 이 다섯 가지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자랑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뜻이 열 가지 백 가지의 뜻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진통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가? 지금 시쳇말로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레이더망은 이 대기권에서 벗어나서 안에서 나오는 거,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그것을 무전통신기로서 다 통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할 문제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한다면 누진통으로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섯 가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조금 맛만 봤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전부 알았다' 이런다면 법써 그건 그른 거예요.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고 해도 그른 거고 안 이루겠다고 해도 그른 겁니다. 그대로 실현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묵언! 묵언 행! 남의 팔을 잡고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리며 물려서지 않는 믿음으로 거기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한데 합쳐진 한마음의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 한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이열치열이라는 그런 속담의 말도 있듯이, 모든 것은 거기에 맡겨 놓는 겁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니 나는 시자일 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움쭉거려서 이 몸을 움쭉거리게 하는 거지, 몸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차를 타고 오신 분이 많겠죠. 운전수는 중간에서 차를 잠 이끌어 가지고 가면서 고장이 났으면 고쳐서 가고, 한데로 빠졌으면 다시 돌려서 빼 가지고 건져서 가고, 또 위로는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몸을 다스리면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나오는 대로 다 제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것은 다, 좋은 거는 감사하게 놓고 나쁜 것은 '아하, 나쁜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좋은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바로 어언간 밝은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50% 물질세계에 물이 들어서 요만큼도 여유가 없이 남이 화나는 소리하면 화를 벌컥 내고 안으로 굴릴 줄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도 지금 정신세계, 즉 말하자면 무심세계의 의학이 돼야 되는 거지 학술적인 이론의 의학이 돼서는 바로 30%, 35%밖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65%는 누가 감당을 하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고 내가야죠. 말을 하다가 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에 착이 꽉 들어차서, 아픈 것도 아픈 게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프다 뭐다 하니까 더 아플 수밖에 없죠. 웬 줌 아십니까? 몸속의 악업 선업들이 원수 갚으려고 나오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모든 걸 갚으려고 요거 나오고 조거 나오고, 때를 찾아서 잘 나오는 것을 아, 그것을 모르고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놈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속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내가 요놈의 거를, 나오는 거를 컴퓨터에다 다시 입력을 해 넣어야겠다.' 왜 요런 생각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컴퓨터에다 다시 입력을 해 놓으면 앞서 입력했던 게 아주 엎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 업보라는 게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일 초에 몇 바퀴씩 돌아갑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많지만 그건 이름대로 이름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자식이 됐다가 금방 형님이 됐다가, 아우가 됐다가 금방 사위가 됐다가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금방 어떤 것이 됐을 때에 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자고 남자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걸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은 나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팥죽 그릇에서 팥죽 끓듯, 팥죽 방울 나오듯 그냥 나오는 걸 가지고, 제 솥에서 팥죽 나오는 걸 가지고 꼭 조상 탓이나 하고, 딴 데서 부슨 세균이 붙어서 병에 걸렸다고 하고 또 딴 데서 마가 들어서, 가난이 들어서, 병고가 들려서 이렇다고 하시니 여러분은 참으로 나갈이 어리석습니다. 허허허, 나갈이….

나도 사실은 못나고 못나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무지땡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왜 이런 김을 걷게 했나?' 하는 생각에 하늘을 쳐다보고 악을 쓰면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사람의 콧구멍은 내리졸렸는데 소 콧구멍은 치졸렸기 때문에 먼지가 끼어서 막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뭘 그러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는 뼈저린, 그 못난 생각을 다시 한 번 돌려서 이렇게 생각했죠. '못났으면 못난 대로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고 크면 큰 대로고 작으면 작은 대로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그 어떤 것도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짊어지고 나온 것인데
>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위 법문은 1991년 9월 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햇볕정책' 전략적 의미 찾아야

2000년 6 · 15 남북공동선언의 서명 당사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헌신해왔던 김대중 前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마지막 혼을 불살랐던 과제는 남북문제였다. 북한이 김기남 비서를 단장으로 '특사조의방문단'을 남측에 파견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접촉과 이명박 대통령 면담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고위당국간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 대통령의 서거는 남북화해의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민주화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도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해 노력했던 지도자였다.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주도해왔던 김대중 前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햇볕정책'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기본 가정은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북한정권은 자체의 힘으로 변하기 어려운 정권이란 전제하에서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냉전구조해체구상'은 기존의 정전협정에 기초한 냉전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김 대통령의 현상타파 노력은 현상유지를 바라는 국내외 세력의 저항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2000년 6 · 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적인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이상 적대관계를 지속해왔던 남과 북이 공존공영관계로 관계설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북한을 공존과 협력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현재까지도 남남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현 집권세력이 내놓은 선거구호 중에 가장 자극적인 구호는 '친북좌파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이다. 해묵은 이데올로기 덧씌우기로 지난 10년의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을 폄훼하고 '경제 살리기'란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내세운 보수세력이 집권했다.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의 본질적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변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복원은 어렵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지, 아니면 화해협력을 주도했던 햇볕정책의 창안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의 계승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대북 강경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며 남북갈등이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6 · 15 선언의 서명 당사자인 김대중 前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 할 것이다. 김 前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6 · 15선언에 대한 평가도 '정치화'됐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 前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6 · 15 선언이 역사로서 사멸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로 되살아나 부활할지는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김 前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대북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의 전략적 의미를 찾아서 대북정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기약 없는 급변사태론에 기대어 요행을 바란다면 남북관계 복원은 요원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태고종 선관위의 막중한 책임

태고종이 종도들의 여망과 불자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운산 전 총무원장의 사임(8월 11일)으로 갑자기 선거정국을 맞은 태고종을 보며 많은 종도와 불자들은 조용한 선거로 종단의 발전 모드를 형성 시켜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태고종 선관위는 4명의 총무원장 후보가 등록한 상황에서 3명의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문제는 '복수추천'이다. 세 후보의 추천이 복수의 종회의원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발표에 즉각 '수용불가'입장을 밝힌 세 후보는 복수추천이 부적법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과 선관위가 선거 공고 이후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어 규칙을 정했으며 그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은 점을 들고 있다.

상황을 따져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 학생들 학급선거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어느 조직이든 선관위는 '중립'의 의무가 있다.

자격을 인정받은 한 후보자와 인정받지 못하고 '그 처사를 수용할 수 없는' 세 후보. 이들의 입장과 주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선관위다. 선관위가 얼마나 중립적이고 엄정한 잣대로 선거업무를 수행하느냐에 태고종의 앞날이 달려 있다. 태고종 선관위는 종도와 신도들이 불자인 것이 부끄럽게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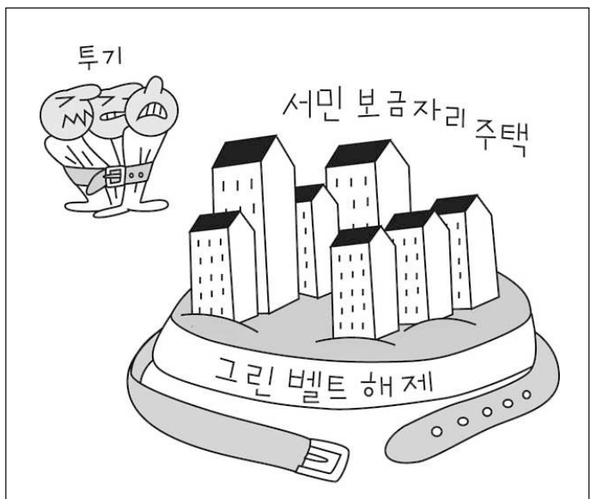
불교환경연대의 3대 불사

'환경보살.' 불교환경연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활동 10년을 맞은 불교환경연대를 '환경보살'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별명의 의미는 매우 심장하다. 바로 '보살'이란 말을 유념해야 한다. 보살이란 대승불교 사상의 총령이다. 일체중생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원력을 세우고 중단 없는 실천행을 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사람은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공하는 모범을 보여 왔다. 각지에서 난개발이 치성하고 지역이기주의가 들끓는 가운데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환경보살의 길을 걸어 온 것이다. 걸어 왔다고 하기 보다는 '3보1배를 해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3보1배를 우리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제 불교환경연대는 향후 10년을 논제로 쏘아올리고 있다. 불교 NGO센터 건립과 불교환경문제연구소 설립 그리고 인재불사를 3대 불사로 상정했다. 모두 긴요하고 시급한 불사들이다. 불교의 현대화 과정에서 이 세 분야는 그 중요성에 비해 다소 도외시된 감이 없지 않다.

제도권 안에서의 발전 코드와 밖에서의 발전 코드는 같을 수 없다. 불교환경연대의 지난 10년이 빛나는 것은 제도권 밖에서 시대적 요청에 충실히 부응했다는 점이다. 이제 향후 10년의 과제를 함축한 3대 불사는 불교계의 대사회적 위상을 자리매김 시키고 환경과 관련한 내적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불자들의 동참과 관심을 당부한다.



현불만평 박구원 한쪽은 단단히 묶어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올바르게 '경전독송'하는 방법

9월의 테마-독서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이제 결실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 이런 때에 불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육체의 양식이 음식이라면 마음의 양식은 경전의 독송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의 보배를 간직하여 그것을 깊이 사유하고 실천하여 부처의 삶으로 연결시켜 참다운 진리의 공덕을 쌓는다. 이를 더듬어 봄에 경전독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효과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찰에서 가장 아름답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는 스님들의 목소리이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들은 수많은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전과 논서들이다. 예를 들면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기신론> 등이다. <법화경> <화엄경> <정토삼부경> <능가경> <지장경> <천수경> 등도 독송한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처님의 주옥같은 가르침으로 미래에 부처가 될 공덕을 쌓는 매우 중요한 수행의 한 부분이다. 아울러 살아 숨쉬는 진리의 부처님을 대면하는 제일의 작업이며 일반적으로 독서 또는 글읽기라고 말한다.

경전을 독송하는 방법은 우선 큰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그 내용을 집중해 생각한다. 독송이 끝나고 나면 잠시 독송했던 내용을 마음속에 그려내면서 깊이 사유해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 다음 자기 능력에 맞추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현실생활에 옮기되 습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혹여 글을 모르는 분들은 식구 중에서 글을 아는 자녀나 손자에게 큰 소리로 읽게 해 함께 독송한다. 그러면서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스님이나 잘 이해하는 불자에게 물어 이해하도록 한다. 경전을 읽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경의 궁극적 의미를 체험해 깨닫는 것이다.

<별역잡아함경>을 보면, "비록 경전을 잘 들었으나 만약 받아 지니지 않으면 갖추지 못한 것이다. 비록 잘 받아 지녔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갖추지 못한 것이다. 비록 그 의미를 알았으나 그 의미처럼 수행하지 아니하면 갖추지 못한 것이다. 만약 경전을 믿고 받아 지녀 희사하는 마음을 잘 갖추고 자주 절에 가서 법문을 들으며 받아 지니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의미처럼 수행하면 그는 원만하게 수행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불자가 경전을 받아 가지고 독송하고 그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겨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함께 한다면 이것이 바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대승불자의 완전한 삶이다.

이러한 경전을 독송한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공덕을 짓게된다. 다음은 부처님의 경전이 가장 먼저 저장된 곳이 바로 허공이기에 허공에서 인연이 성숙돼 불과를 속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제일은 바로 경전을 독송해 올리는 일로 무명(無明)을 타파한다. 끝으로 나와 남을 모두 이익이 되게 하는 일이며, 부처님의 혜명(慧命)인 법신(法身)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 가정 모두가 함께 공덕을 이어받아 행복의 평화로운 열반을 누리게 된다.

법상 스님
중앙승가대



백발백중「구단구궁법」

저자 법화스님 직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직업,성격, 명운 척척 들어 맞춘다.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과거 10년, 미래 10년을 꿰뚫는다.
◆ 2주 완성

당신도 2주후 『최강자』가 될 수 있다.

부산자비원 051)554-6040
010-9399-7442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CD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암 합장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원로, 종회의원, 종단 대덕스님에게 드리는 글]

태고종은 불교 전통종단입니다.

- 제24대 총무원장 선거의 잘못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

삼가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정예하와 원로 대덕스님들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중앙 종회의원 스님과 종단의 여러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 불교 전통종단 태고종이 외부로부터의 위협도 아닌 일부 종도들에 의해 위란(危亂)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불교 전통종단 태고종이 가꾸어 온 위상조차 크게 흔들리게 된 점을 수행자로서 발로참회(發露懺悔)합니다.

세상이 태고종단의 참여와 실천을 요청하고 있는 이때에, 밀실(密室)에서 자의적(恣意的)으로 세상을 우롱하는 종단의 몇몇 인사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보경스님, 이하 선관위)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8월 11일 제98회 태고종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자진 사퇴를 한 이후, 종단의 화합과 종도들의 화목 그리고 세상을 좀 이롭게 하는데 작은 추춧돌과 대들보가 되기를 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지난 8월 17일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를 공고하고, 8월 24일~26일까지 3일간 후보자 등록을 모두 종료한 이후, 선관위가 새로이 정한 선거세칙을 적용하여 입후보자 4명 중 인공스님만을 제외한 3명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을 발표하였습니다.

선관위에서 8월 17일 선거공고를 하고, 8월 21일에 선거규정을 새로이 만들었으며, 후보등록을 8월26일에 마감을 한 이후, 8월 27일 오후 2시에 후보자격 심사를 하면서 선관위에서 새로이 정한(중복 추천을 제한한다) 선거 세칙을 적용하여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① 선관위가 종헌 · 종법을 임의대로 바꾼 것입니다. 즉 '총무원장 선거법'에는 "중복 추천을 제한한다"고 하는 아무런 조항이 없음에도 선관위가 스스로 법조문(法條項)을 만들었습니다.

②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이 받은 추천이 중복되어 추천 인원에 미달하였기에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하는 등 직권남용을 하였습니다.

③ 선관위는 선거 업무를 편중, 차별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새로이 정한 규정을 보고, 승인받지 아니하고 공개 또는 공지하지 않았습니다.(종단 공문,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④ 선관위는 무원칙으로 자신들이 정한 선거 세칙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종단의 위상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선관위의 공개 사과와 함께 후보자 자격 심사에 따른 발표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종단 종무행정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종단의 원로스님과 종회의원 스님 그리고 종단 스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종단의 위기가 분명히 태고종단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9월 7일 치러질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는 우리 종단이 전통종단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종단의 공의에 의한, 또한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종단의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우리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거듭 종단의 원로스님과 종회의원 그리고 대덕스님들의 매서운 경책 있기를 합장 당부 드립니다.

항상 종단 큰스님들께서 청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3(2009)년 8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자 정 대 은, 정 지 허, 이 도 산 합장

[전 종도에게 드리는 글]

부끄러운 종단 선관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제24대 총무원장 선거의 잘못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

한국불교사의 길이 남을 태고종은 위로는 일체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선사님을 모신 종단으로서, 종단의 선지식과 신행 종도들의 귀의처(歸依處)요, 만대백성과 대대손손의 문화적 보고(寶庫)입니다.

이러한 태고종단이 외부로부터의 위협도 아닌 일부 종도들에 의해 위란(危亂)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 위의(威儀)를 가져야 할 종단 수장(首將)의 불미스러운 일이 채 정리되지 않고 생채기가 채 아물지도 않은 이때 또다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종도들에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수행자로서 종단의 지도자로서 발로참회(發露懺悔)합니다. 이 부끄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불교 전통종단으로 가꾸어 온 위상조차 크게 흔들리게 된 점을 깊이 각성하고 반성합니다.

우리 국가와 국제사회가 태고종단의 참여와 실천을 요청하고 있는 이때에, 그 부름에 응당 힘쓰기에도 부족한 마당에 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공개적이고 투명하기를 바라는 종도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도 버거운 절대절명의 시기에 그것도 밀실(密室) 아니, 자의적(恣意的)으로 세상을 우롱하는 종단의 몇몇 인사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보경스님, 이하 선관위)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좁디좁은 우물 속에서 그 하늘만 가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 우물 속의 왕(王)이라면 우두머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불도(佛道)를 닦는 종도들의 지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11일 제98회 태고종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자진 사퇴를 한 이후, 태고종도들은 차기 총무원장이 종단의 화합과 종도들의 화목 그리고 세상을 좀 이롭게 하는데 작은 노둣돌이 되어주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한 종도들의 바램을 담는 그릇조차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종단 선관위는 지난 8월 17일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를 공고하고, 8월 24일~26일 3일간 후보자 등록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선관위가 새로이 정한 선거세칙을 적용하여 입후보자 4명 중 인공스님을 제외한 3명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을 발표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합니다. 선관위에서 선거공고(8월 17일)를 하고, 선거규정을 새로이 만들고(8월 21일) 후보등록을 마감(8월26일)한 다음, 후보자격 심사(8월 27일)에서 새로이 정한(중복 추천을 제한한다) 선거 세칙을 적용하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① 선관위가 종헌 · 종법을 임의대로 마구 바꾼 것입니다. 즉 '총무원장 선거법'에는 "중복 추천을 제한한다"고 하는 아무런 조항이 없음에도 선관위가 스스로 법조문(法條項)을 만들어 냄으로서 종회가 해야 할 '입법활동'을 하였습니다.

② 선관위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종헌과 종법의 '후보자 추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입후보자들이 받은 추천이 중복되어 추천 인원에 미달하였기에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③ 선관위는 선거 업무를 편중, 차별시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업무에만 충실해야 할 선관위가 선거 세칙으로 정한 규정을 보고, 승인받지 아니하고 공개 또는 공지하지 않고(종단 공문,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특정 후보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선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④ 선관위는 무원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의 모든 선거법은 그 발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에서는 자신들이 자의적, 임의적으로 정한 선거 세칙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의 소홀과 잘못된 자격심사에 대하여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선관위의 후보자 자격 심사에 따른 발표를 당장 철회하고, 등록 후보에 대한 공개 재심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셋째, 재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4대 총무원장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때 비로소 한국불교의 전통종단으로 또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선출된 종단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종단 지도자로 선출되어야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길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걷고 함께 걸어갈 때 태고종단의 앞 길은 신작로처럼 탄탄대로 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3(2009)년 8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자 정 대 은, 정 지 허, 이 도 산 합장